

‘빛이 왔다’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herelight>

dada수행글모음 Part4

ft. 어서와, ‘빛이 왔다’는 처음이지?

[목차]

1. [\[기갸\] \[22.01.23\] 영적 금련구](#)
2. [\[기갸\] \[22.04.25\] 금련구, 포털, 매트릭스 2](#)
3. [\[기갸\] \[22.07.09\] 금련구, 포털, 매트릭스 3](#)
4. [\[기갸\] \[22.07.09\] 금련구, 포털, 매트릭스 4](#)
5. [\[기갸\] \[22.07.29\] 금련구, 포털, 매트릭스 5](#)
6. [드라마 세션장면 최초공개 2](#)
7. [드라마 세션장면 최초공개 3](#)
8. [0824 기택강독 - 기적수업의 유일한 주제 : <권위 문제> 1](#)
9. [0824 기택강독 - 기적수업의 유일한 주제 : <권위 문제> 2](#)
10. [0824 기택강독 - 기적수업의 유일한 주제 : <권위 문제> 3](#)
11. [기택강독 0727 바다와 물풍선](#)
12. [기택강독 0727 바다와 물풍선 2](#)
13. [기택강독 0727 바다와 물풍선 3](#)
14. [무언가가 환상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15. [뉴비들을 위한 공지 또 올립니다. 필독해주세요](#)
16. [감정 청산 수행기 남기실 적에 조심하셔야 할 부분 - 필독해주세요](#)
17. [너 이래도 그게 너한테 소중한냐?](#)
18. [1029 가슴을 열어라 - 의식교류의 중요성 1](#)
19. [1029 가슴을 열어라 - 의식교류의 중요성 2](#)
20. [1029 가슴을 열어라 - 의식교류의 중요성 3](#)
21. [다 집어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
22. [육체, 감정체, 멘탈체, 에테르체](#)
23. [\[돌고래\] 0817 기택강독 - 참수행의 시작과 질의응답 1](#)
24. [\[돌고래\] 0817 기택강독 - 참수행의 시작과 질의응답 2](#)
25. [\[돌고래\] 0817 기택강독 - 참수행의 시작과 질의응답 3](#)

- [26. \[카페\] 1111 갯수저 챌린지 제안](#)
- [27. \[돌고래\] 0831 기택강독 - 시크릿 카르마 1](#)
- [28. \[돌고래\] 0831 기택강독 - 시크릿 카르마 2](#)
- [29. \[돌고래\] 0831 기택강독 - 시크릿 카르마 3](#)
- [30. \[카페\]영혼의 파편화와 트라우마 청산](#)
- [31. \[세션\] 귀한 사람은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 [32.기택강독 1012-1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 [33. 기택강독 1012-2 모든 것이 다 옳다 vs모든것을 다 용서한다](#)
- [34. 기택강독 1005-1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쓸까](#)
- [35. 기택강독 1005-2 그래도 싫은 일을 어떻게 할까](#)
- [36. 뭐를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문제라면 문제](#)
- [37. 사람이 힘들 수 있다.](#)
- [38. 누군가의 생각과 노력과 마음씀이 엄청 들어가있는거야 물건 하나가](#)
- [39. 0203 세션엿보기 - <하겠다> 마음먹으면, 하기싫은 마음이 안올라오는게 정상입니다](#)
- [40. 0210 세션엿보기 - 빛과 우산](#)
- [41. 0213 세션엿보기 - 아 나는 사랑스럽구나](#)
- [42. 기택강독 20221228 기적수업의 핵심개념 <희생> 1](#)
- [43. 기택강독 20221228 기적수업의 핵심개념 <희생> 2](#)
- [44. 0224 세션엿보기 - 이보시게 페라리엔 고급유를 넣는거라네](#)
- [45. 0224 세션엿보기 - 몸은 신성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 [46. 스타워게즈와 구기종목](#)
- [47. \[세션\] 0325 세션엿보기 - 내 귀가 모기 귀로구나](#)

1. [기꺼] [22.01.23] 영적 금렵구

안녕 친구들

대충 댓글로 언질 주는걸로 알아듣길 바랬는데... 잘 모르는 거 같아서 한숨을 좀 쉬면서 이런 글을 써본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치열한 에너지 싸움,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가 에너지상승을 해왔는데 그걸 기를 쓰고 막으려고 어둠세력은 온갖짓들을 해왔고, 지금 그게 절정이다.

여기 꺼은 영적 금렵구(사냥 금지 구역) 이다.

영적 금렵구는 영적세계의 리소스를 잡아먹기에 형성되려면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상위차원에서 허가가 나야 한다.

지구에서 영적 금렵구는 매트릭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한 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이 되어 상위차원에 의해 쓰임받을때 가능하다.

매트릭스 붕괴현장에는 저급 아스트랄령들이 접근하지 못하기에 상급 아스트랄령들이 공격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즉 금렵구내에 있으면 저급 아스트랄령들로부터의 공격이 차단되며 상급 아스트랄령들에게 영적 도움을 받는다.

금렵구내에 있다는 것의 뜻은 물리적으로 갯에 들어와 있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차원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상급 아스트랄령의 급수나 숫자는 금렵구 매트릭스 대표 붕괴자의 빛 크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매트릭스 붕괴의 규모가 클수록 빛이 커지며, 이 빛의 범위가 금렵구의 범위로, 빛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영적차원을 점유한다.

금렵구 참여자들도 매트릭스를 붕괴시키는데 일조하면 금렵구는 더 커지며, 그에 따른 상급차원의 도우미들도 많아진다.

도우미들은 아무렇게나 오고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위차원에 의해 하나하나 허락을 받고 계획에 의해 온다.

금렵구 내 인간들에게 모두 도우미가 붙는 것이 아니며, 같은 숫자가 붙는 것도 아니다.

본인의 의사와 믿음에 따라 도움 받는 정도가 달라지며 금렵구 대표자가 의도적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다.

개별 인간은 매트릭스 바깥 빛 존재들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수에 상관없이 빛의 크기만이 중요하다.

금렵구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물리적 차원보다 영적 차원, 마음 차원에서 하나된 느낌을 거듭해서 가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갯인 이 금렵구의 빛의 크기는 상급존재들이 환호하고 전폭지원할만큼 유래없이 큰 지구적인 크기이다.

금렵구의 설립 시점부터 대표 붕괴자는 영적 차원의 리소스 사용에 책임이 있기에 자신의 의사나 자유를 제한 받는다.

그는 상위차원의 연결점역할을 해야하기에 그가 개인의 인격이나 자기주장을 내세운다면

금렵구의 기능성과 존속여부가 훼손되고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상위차원의 계획을 방해함으로 인한 업이 따른다.

다다가 미겔시절부터 쓴 글은 다다 개인이 쓴 글이 아니며, 글이나 댓글에서 느껴지는 인격과 개성또한 다다 개인의 것이 아니다.

다다는 수행글을 쓰기 시작한 얼마 후부터 금렵구 형성에 대해 상위존재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왔으며 글 쓰는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었다.

상위 아스트랄령은 에너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에 금렵구 내 결속력이 높은 자일수록

몸이 물리적 몸에서 영적 몸인 에너지체로 변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근육통, 두통, 관절통, 미열, 현기증, 구역감, 소화장애 등 신체변화가 한동안 있게 되며,

피부가 맑아지고 신체적인 활력을 찾게 되며, 식사량및 수면량이 적어지고 생채식 위주로 식습관이 정렬되게 된다.

주변 환경과 타인의 감정에 기민해지기에 심리적인 민감함, 예민함, 사람에 따라서는 심리적 고통이 한동안 따른다.

해당 금렵구는 분명한 설립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이 이뤄질때까지
지속될것이다.

결론 및 굳이 했던 얘기 또 정리해서 해 주는 이유 :

다다 글 보기만 하고 수행은 안하는 사람들은 시간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였는지 영혼 차원에서 긴긴 세월동안 후회할것임
한 번은 말해 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말해준다.

2. [기꺄] [22.04.25] 금렵구, 포털, 매트릭스 2

이 글을 정말 예전에 시리즈로 하려고 해서 1편 쓴 후에...

그때 제대로 썼어야 했는데 그당시에 노출한 정보만 해도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 생각해서

묵혀두다가... 이래저래 댓글이나 디스코드에서는 적잖이 했던 애긴데...
이제서야 글로 정리 해봅니다.

매트릭스 영화에 스미스 요원 나오잖아요?

스미스 요원이 매트릭스 관리자인데 이들은

매트릭스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잡아가 세뇌 혹은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네오가 트리니티와 접선 후, 진실을 알게 되기 전에 요원들에게 잡혀가지요

배꼽에 강제로 뭔가를 집어넣는데, 트리니티가 나중에 몸밖으로 꺼내 제거 해주지요.

네오가 깨어나 보니 다른 인간들은 모두 관 속에 들어가 에너지를 적출 당하고 있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인간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빛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전체적인 영적 자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환경이나 물, 음식, 전파 등 여러가지가 체계적으로 망쳐져 왔기에 영이 깨어나기는 커녕 제정신으로 건강하게 사는것만 해도 힘든 것이고 여전히 먼저 깨어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두터운 파동체가 지구 매트릭스에 붙들려 종속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파동체에 통하는 미약한 신계의 빛, 생명빛이 이 환영인 몸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줌은 물론

이 빛을 이용해 고차원적 가르침과 결합하여 전체의식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 시키게 되고

또한 그 빛을 이용해 개별 카르마인 파동체 매트릭스를 부수어 나가게 되는것인데요

깨어나는 사람은 이 지구 매트릭스에 미약하게 구멍을 내게 되고

이 구멍을 통해 영계의 각종 존재들이 이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자각은 좋은 일인데, 이게 이 쓰레기장같은 지구에서는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거지요.

이건 왜냐하면 지구의 인간계가 3차원이라고 치면 지구의 영계는 아스트랄계 4차원 인건데

3차원에 구멍 뚫었잖아요? 그럼 자연히 바깥인 4차원에 연결이 되는거예요 원래는 구멍 뚫으면 우주의 전체 의식과 연결이 되어서 텔레파시도 되고 해야 하지만

지구는 격리가 되어 있기에 지구 영계로밖에 소통이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영계는 썩은물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로 가득하지요.

영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매트릭스 관리자에게 쫓길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영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마크 하는 거예요.

금렵구는 이러한 매트릭스 관리자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영이 깨어나기 전에 극심한 정신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영적 자각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영성계엔 아스트랄게 체험만 넘쳐나는거예요.

요새야 솔라 플레어니 뭐니 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카르마를 벗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래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깨어나기가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 있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음모론이나 뉴에이지라고 하실텐데 이런 저런 신비체험, 아스트랄게 공격등은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께에 결속력이 강한 걸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상하게 보실 텐데

밖에서 저급령에게 시달리다가 께에 모여서 정신이 맑아진 분들이 적잖아서 그렇답니다.

제가 그런 아스트랄게, 귀신 이야기를 께에다 하는 걸 질색해서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우리 곁에 별별 희한한 일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오픈톡으로 이야기하지요.

고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연단을 께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럴만해서 그러고 있는 거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가, 제정신이 되어 보면, 명확하고 고요한 의식상태를 처음 겪어보기에
몇 번 겪어 보면 다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기가 싫어지지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도 부르는, 매트릭스 관리자를 비롯 이런 존재들은, 인간의 생명력을 원하는 기생체로서,
이들은 생명이 없는 환영이기에 이들이 존재를 유지하려면 인간의 생명력을 필요로 해요.

이들은 먹을 것이 많은, 생명력 많은 인간, 즉 매트릭스 미약하게나마 부순 인간, 영적 자각한 인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됩니다.

영적 자각으로 인해 영계와의 통로가 생기기도 했고요.

영적 자각을 못했더라도, 각종 에너지 힐링이며 차크라 명상, 빛 명상, 제3의 눈 집중 등을 하는 인간들은 영계에 소문이 나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어떻게 미약한 영적 자각을 한 후

귀신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빛이 다가오거나 목소리가 들리거나

성령이나 예수님 부처님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거나 다가오거나

너에게 특별한 능력, 힐링 능력,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등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꿈 속에서 접선해서 각종 감언이설로 유혹하기도 하는 등 사기치듯이 억지 계약을 맺게 합니다.

각종 기도원이나 이런저런 단체들에 교주들이나 수장들 있죠? 사이비 교주라든가.

신통력과 이적을 부리고 방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이런 영계의 정령들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할수도 있죠.

살아 생전에 집단을 형성해서 종교나 정신활동을 한 자들은 죽어서 영계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들이 단체니까 수가 많지요? 이들이 생명력을 빨아들일 인간 집단이 필요하고 이 인간 집단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각종 이런저런 단체, 집단들입니다.

사이비 집단 가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어딘가에 잠식된 듯이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정신이 그러한 에너지 기생체들에 의해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빨린다고 하죠? 기빨리는 거 실제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트릭스를 아예 확실하게 부숴 버리면 절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들은 환영이기 때문에 미약한 생명빛만을 원해서 존재를 유지하기를 원할 뿐, 강한 빛에 노출되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매트릭스를 확실히 부수어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자를 반대로 이들이 설설 기며 피해 다니게 되게 때문에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군가가 매트릭스를 부수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를 확실히 부셔서 탈출을 해 버리면 즉 백회차크라까지 다 열어 버리면

4차원 영계가 아닌 절대계와 연결되는 포털이 형성되기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성계에 백회를 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절대적으로 비밀시 되어 있지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두 무의식 속 왜곡된 신적 마음이 그려내는, 이 어그러진 우주를 그려낸 그 미친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지요.

이것들을 실재로 인정하지 말고 모두 환영 취급 하며 실재 즉 신성만을 인정해 그리스도의식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엄연히 가짜 세상속에서 우리는 아직 가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가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하죠.

자신의 인식범위에 없다고 다 없는 일 취급해 버리는 건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 있지요? 생각이 이상하다는 걸 인식해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하여 특정 생각을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 기사 보면 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악마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살해라는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그보다 작은 일들은 무수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이 매트릭스 상에서 모든 것에 다 최면이 걸려 있으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트리거입니다. 생체로봇이고요

그 최면 걸린, 누에고치 속에 들은 인간에게 기생하는 존재들을 위한 배터리

그게 지금까지 인간이었고 어쩌다 그와중에 조금씩 정신이 들어 괴로워하는 거미줄에 걸려 어떻게든 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에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었고요,

여기서 깨어나서 벗어나지 않고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도 자신의 인식범위를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알고 계시다면

자신의 인생이 이 가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출구가 과연 존재하는가

깨어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기궐] [22.07.09] 금렵구, 포털, 매트릭스 3

이 글에서는 좀 더 심화적인 4차원 영계 교육 좀 시켜드려 봅시다.
무의식 속 환영으로 구성된 지옥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

1. 에너지 기생충

바이러스처럼 증식욕구만 있으며 자의식이 없습니다.
사람의 에너지장의 하부차크라가 그려내는 동물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에너지체 일부에 주로 기생합니다.
극초단파 통신기지국과 와이파이를 쏘는 전파공격무기입니다.
노출 및 분쟁을 일으키는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퍼집니다.

2. 에너지 기생의식체, 에너지 뱀파이어

사람의 에너지장의 상부차크라가 그려내는 멘탈체에 기생하며 생명력을
좀먹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린 그냥 귀신 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지박령이나 원혼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사람을 감언이설로 꼬드기거나 성인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인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악이라는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갱생이 불가능 합니다.

3. 에너지 기생의식체 중 고급수준의 의식체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으며,

자동화되지 않아 자신의 의사를 제어할 수 있는 고급 의식체입니다.
제 글 중에 세상의 실체 시리즈에서 이런저런 신기한 이야기 해드렸지요?

지구의 지배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의 의식에 의해
점유된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체를 만든 후 (클론) 그 몸을 점거하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2번째 집단의 수장들이기도 합니다.

2번 에너지 기생의식체부터는 의식이 있다고 했지요.
이들의 문제는 아스트랄계에서 영혼을 꼬드겨 영혼 계약을 맺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지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원성 의식이 만들어낸 악 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영의 세계에 있는 선
이라는 개념과 대립하여
각자의 영역을 넓히려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악 이라는 내면의 무의식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에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진실은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미친마음이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미친 지옥도를 그려내
왔거든요.

이 영혼 계약이란 선 쪽도 사람들을 꼬드겨 계약을 하려고 하고, 악 쪽도
사람을 꼬드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선 쪽의 계약은 태어나지 전에 미리 계획하고 온 것을 일깨워서 새로 맺는
형태이며,

그 대립쌍은 그걸 가로채는 계약입니다. 사기이지요.

선 쪽에서 하는 계약은 전체를 위한 봉사가 주요 계약내용이고,
악 쪽에서 하는 계약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나하고 계약하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치유력 줄게,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주목받게 해줄게 등 감언이설로
꼬십니다.

미겔시절 겪어 보신 분들은 이런 일이 만연하다는 걸 사람들 글 댓글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사이.비 교.주로서 이적을 행사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생의식체와 거래를 맺은 것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단이니 감정청산이니 해오시던 것이
개인적으로 이 에너지 기생충/뱀파이어 잡는 거예요.
개인의 카르마를 넘어서서 집단무의식까지 접근하게 되면
집단무의식에 기생하는 기생충 잡는 거고요.

즉 참수행이란 원래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인 여러분이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렵구 지원해주고 보호를 해주는거예요.

이거 하나에 영적세계의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에너지 공격 막아주는 존재들이 있고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존재가
투입됩니다.

이건 겔 초기에 금렵구 해제를 겪어보신 분만 무슨소린지 제대로 압니다.
보호막이 걷히면 가슴이 짹 막히고 머리가 아픈 에너지 공격을 막대하게 받게
되지요.

글이 길어서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네요... 4편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4. [기꺄] [22.07.09] 금렵구, 포털, 매트릭스 4

영혼계약상 이런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은, 살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야 이 인간이야! 애가 깨어나면 우린 뒤진다,
깨어나기 전에 조지자! 애 에너지장 커서 먹을 거 많아!

하고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떼거지로 달려듭니다.

그 모양이 여러분 눈에 안보여서 모르고 사니까 다행이지요. 알면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안 보여도 이런 놈들에게 잠식당하면 제정신으로 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통사람보다 잘 살기가 힘이 듭니다.
운동을 뺄세게 하시고 매일 자아성찰을 하셔야 그나마 제정신 비슷하게 살 수 있지요.

자기자신은 왜 내가 늘 이렇게 어려서부터 죽고싶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대단한 세속적인 욕구도 없고 그저 소박하게 살고싶은데 왜 그것마저도
안될까, 난 저주받았나 싶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에너지 뱀파이어들 잡아 조지는 거기
땀에

그 목적을 깨닫고 그걸 실행하기 전에는 남들보다 훨씬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여기 오신 분들은 싸움질 하러 오신 거예요. ㅋㅋㅋ

그냥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걸 다 품어주기만 하고 싶다
이거는 아직 두려움 청산을 덜하셔서 그렇게 생각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각 그룹별로 영혼계약이 묶인 것이 각자 색깔은 조금씩 다를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롭기만을 기대하시는 좀 힘드십니다.
무의식 깊이 있는 지옥의 입구에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극기가
필요하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디든 영성모임 가보세요 사람들
바글바글하지요...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깨달을 거 같지요 ㅎㅎㅎㅎ

실상은, 깨어나기 위해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깨어나는 재료이고
어둠은 빛을 이끌어내는 재료인 것이예요.
현명하다면, 그 어둠으로 인해 고통받기를 거부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어둠 자체를 없는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란, 깨어나는 재료이고,
그 이유는 여기가 뒤집힌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호령이나 천사도 괴로워하는 그를 구제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괴로움을 떨쳐내고 내면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는 마음을 먹기 전에는
도움 없이 버려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도와주지 말라고, 내 스스로 떨치고 일어서겠다고 서약 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영혼계획상 정말로 혼자 떨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혼 가족을 만나 도움 받게 되어 있어요.

계약 자체가 팀으로 묶여서 오며,

지금 세션팀 1그룹 형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눈팅하던 분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션팀 2그룹 만들어질때 그에 맞는 계약을 한 분들이 자기 때가 되면 나오는거예요.

물론 그중에 인연 되는 사람만 함께 하게 되겠지요.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태어나 있는 분들은 이런 영혼 계약을 하고 온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갖 사이비 종교가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 하지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자조 모임(자조 : 자기 스스로를 돕는)을

찾아가셔서 뭘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셔야지,

우쭈쭈 힘들었구나? 우리가 다 감싸안아줄게 하고 애기 들어 주다가 돈

내놓으라는 데는 가시면 안됩니다.

영적으로 밝은분이 실생활에선 하도 호구되는 일이 많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누구도 남의 하소연 공짜로 들어주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런거는 싫거든요?

남이 내 이야기 좀 들어주기 바라는 그 마음이, 자기 몫의 책임을 떠넘기는

마음임을 인식하지 못하시면

그 마음에 걸맞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에너지 기생충이란 무의식의 상념차원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버그 같은 거예요. 많이 퍼졌으니 바이러스라고 봐도 되고 생명이 없고

퍼지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작동이 너무 엉망으로 되다 보니 이 바이러스가 프로그램자체를 잠식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 환영 세상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이거 실은 다큐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물리적 상황이 아닌, 지구의 영적 상황을 비유로 나타낸 거예요 (1~3편 기준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스미스요원이 자신을 복제해서 그 세상이 엉망이 되고 거의 지배하잖아요.

그거 없애려고 아키텍트(매트릭스설계자)라든가

오라클(프로그램설계자)이 네오를 데리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네오가 3편에서 싸우다가 눈을 잃죠 그러고 빛으로 된 세상을 보지요.

육안의 물리적 시력을 잃고 진짜 비전, 빛을 보는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십자가 모양으로 매달리고 죽어버리지요? 빛으로 화하면서.

기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식이 발현되는 걸 나타내는 거랍니다.

네오의 개인 자아가 죽어 없어짐으로 세상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아름다워지죠.

심지어 아키텍트는 지금이 6번째 설계라고 그러죠 그전에 인간이 자멸했다고

지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일으켜지고 이런 문명의 횡수를 말하는

거겠지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는 모두가 이 에너지 기생충,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숙주입니다.

숙주로부터 플러그 뽑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깨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고, 거의 목숨 건 투쟁을 해야 깨어날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 기생충들은 실은 무의식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악이라는 원래 있지도 않은 개념에 의식이 집중을 하면, 그 결과로서
사념체가 형성됩니다.

저급 존재는 에너지 기생충이고,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의식체가 되기 때문에
뱀파이어라고 표현해요.

이들은 진짜로 사람의 에너지장에 기생충처럼 파고 들어가서 에너지를
좀먹거나,
갈고리 달린 호스 같은 걸 사람의 에너지장에 연결시켜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꿈을 주입해서 성욕을 일으켜 강도높은 에너지를
뽑아가기도 하고요.

초반에 우리 갠 들썩들썩할때 이런 귀신 잡고 있었죠 귀신 줄 많이
끊어드렸죠.

저 자신은 어째서인지 수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갠 초기에 사태가 이정도까지 잠식이 된 줄을 모르고 있다가

몇달째 귀신 잡는 것만 하고 있으니 지지부진 빨리 처리가 안되고
이런 에너지는 빨리 처리를 안하면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엔 갠단위로 에너지 충격을 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했죠
이젠 초기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이 많이 마음을 닦아내서 갠 에너지장이
수준이 높아져서
제가 특별히 무슨 귀신잡는 작업 안해도 여기서 어울리고 연단 하시고 하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귀신줄이 떨어져나가고 에너지 기생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소위 말해 사람
됩니다.

양심이 바로 서고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살고 있었지? 싶게 되지요.

우리 갯에서는 이런 귀신같은 걸 밖에서 겪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 오면 귀신한테 안 시달리니까

여기 나가면 뒤흔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든 안되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귀신 얘기 여기다 푸는걸 제가 질색해요. 그래서 글이 거의 없는거고 이런저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갯 사람들이 결속력이나 믿음이 강한 이유는 이런 게 크지요.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줄 붙인 채로 수행을 합니다.

빛 보고 소리 듣고 황홀경 겪는 일이 귀신계에서 오는것인줄 모르고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해져서 그런 줄 알아요.

뉴에이지에서 나쁜것 보지 말고 좋은것만 보게 유도하는 것은 사람을 계속 붙들어놓고 에너지 빨아먹기 위해서인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상위차크라에 빛이 좀 들어와서 영적 황홀경을 겪은 사람들이

참수행을 하라고 하면 괴로워하다가 갈등하며 사라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합니다.

하부차크라의 진득한 이기심 닦지 않고 영적 경험 해버리면 영적 예고나 생기지요.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영성, 종교, 정치, 어디든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온데간데 침투해 있어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에서 탄생한 에너지라 그걸 먹고 살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두려움, 걱정, 불안을 일으키는 재료를 직시하고 버려서 자신의 무의식을
정화해 낸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 재난등의 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남들 겪는 괴로움 나혼자 안겪고, 누군가 보호해주는 기분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버스 놓쳐서 발 동동 굴렀는데 그 버스가 사고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건 하나하나 우연이 아니지요.
상위차원으로부터의 수신이 원활해야 화를 면하지요.

네 이렇게 영적 차원의 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죠?
5편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쓸 수도 있겠죠...

5. [기꺄] [22.07.29] 금렵구, 포털, 매트릭스 5

안녕 친구들

세션 후기 써주시면 그거 보는 재미에 세션 하는 사람으로서
진행 하는 사람 입장도 혹 궁금하실까 저도 글을 쓰다가

처음에는 세션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쓰다 보니 결국 무의식적 저항, 에너지 존재들 이야기가 되어
제목은 금렵구, 포털, 매트릭스 5편으로 붙여 봅니다.

금렵구란 단순히 보호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연한 말이지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진 것이고
처음부터 세션이 목적이었습니다.

저 혼자 수행 하면서, 이렇게 혼자 하면 힘든 것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쉬워질까? 하고 자주 생각
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도 종종 영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그렇게 쓸 사람이 없었는지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금렵구 운영에 많은 눈에 안보이는 존재가 개입함을 잘 아시지요
많은 영적 세계의 리소스를 쓸 적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지요.
특전사 구한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었던 이유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성향의 장군감들이 모인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지요.

세션을 초기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따 뭐 할지 미리 잠깐이라도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갈수록 생각을 안하게 되더니 언젠가부터 그냥 뭐든 즉석에서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귀찮게 내가 미리 생각을... 이런 식인데요
사실 제가 하는 것이 맞긴 하죠
저는 빛을 수여받은 자로서 나 좋은대로 빛을 쓸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아직 감량이 뭐 그리 대단치 않기 때문에 더 높은 힘을 끌어와야 큰
효과가 나니까요...

이런 재미있는 모순된 느낌이 있습니다

주로 개별 사람을 대할 적에는 저 자신의 빛을 쓰고, 세션을 할 때는 더 큰 빛을 쓰게 되더군요.

힘을 빌린다고는 해도 금렵구를 운영 할 적에는 정말로 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해줍니다.

제 쪽에서 좀 과몰입하곤 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의식을 기울이고 있고요 요청을 해야만 중요한 직관이나 메시지가 오곤 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요청할지가 중요하더군요.

이런 것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저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한편, 저는 그들의 의사를 제 것으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요.

세션에서 말을 따라하게 할 적에 사람들이 쭈룩룩 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때 대단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새롭고 놀랍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세차게 느껴집니다.

내 속에서 물러나 있는 나의 인간적 자아의 일부분이 그걸 보고 놀라는데 이 자아는 세션할때는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땀에 배후에 놀라움이 있는 걸로 느껴지지요.

한마음으로 엮었으니 제가 느끼고 있는 걸 함께 느끼고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매번 놀랍고 신기합니다.

연단을 안 했더라면 아무리 한마음으로 묶어도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를 느끼지는 못할텐데요.

기혈이 제법 열려야 그런 게 되니까요.

상위 차원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고 나니까

다다컴퍼니 입사조건이 연단인 이유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어요.

세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빛을 수송하는 포털, 파이프 같은 거라서 그걸 통해 상위차원의 빛이 들어오고

빛을 품은 제가 분리의식이 환상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엮은 마음들이 다 함께 그 빛을 공유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견고하게 엮은 마음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며

이게 1차 세션팀하고 처음에 씨름 해가며 서로를 이해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서로를 그냥 알아가는 것보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무의식 차원에서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공유된 그 빛은 여러분 각자의 차크라를 통해 외부로 발산이 되는데 이 때 빛은 증폭이 됩니다.

빛은 매개체를 거칠수록 증폭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또한 여럿이서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 또 증폭이 되는데

이 여럿이 함께 동시에 하는 증폭이 시너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인원이 엄청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엮이는가, 얼마만한 깊이와 집중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예요.

기원문 같은 것도 읽는 사람의 마음이 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마음의 저항으로 인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기원문을 하면 당연히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장속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오고 운용하게 된다고 해야겠지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공유한 그 빛은 우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긴 사람들에게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이라도 인연이 있거나 잠깐이라도 의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이 놀랍겠지만 기적수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 사람을 각자 살아있는 개체가 아닌 덩어리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빛 품을 때 내 마음 속 환영들이 다 밝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수행 할수록 주변이 평화로워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 알았던 사람 뿐 아니라 현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품은 빛을 여러분이 교류하는 누군가가 수신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역시도 그 빛을 자기가 관계한 사람들에게 증폭을 시켜 내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퍼질수록 빛이 더 더 커지는 것인데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이죠?
이 세상이 거꾸로 된 곳이라서 그래요.
이 세상은 나누면 줄어드는 곳이지만 실재계는 나누면 늘어납니다.

이러한, 개인이 수행하여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집단이 되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매트릭스에 종속된 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극혐인 일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왜 그토록 극혐 하는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갇은 저항과 저지, 공격이 들어옵니다.

금렵구 방어벽 때문에 예전만큼 직접적인 공격은 못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교활한 방식으로 작업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정신을 잠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셨을텐데, 요새는 그런것은
못할 정도로 내부 빛이 강해졌고

요즘 하고 있는 정보전(드림스내처 ㅋㅋ), 아스트랄계에서의 스파이전 등이 그런 종류이죠.

저는 이런 걸 보는 영안을 담아놓고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건 사고나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에너지상 공격인거를 몰랐었습니다.

그냥 수행 재료로 썼지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수행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

극에 가 닿는 행복을 경험할 때 말고는 주로 우울하고 괴로운 기분이었지요.

보호를 기원할 줄도 몰랐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가지 툴이 있으니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어두운 존재들은 마음 속 어두운 지점을 통해 접근하게 되는데 마치 내 생각처럼 생각, 감정, 느낌이 올라옵니다.

냉정하고 가혹한 목소리이죠.

내 목소리를 쓰고 있지만 실은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범주에서 보면 전체 마음이 만든 목소리가 맞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제정신인 사람은 도박장이나 성매매업소에 안 가게 되는 것 처럼 이런 투쟁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유혹으로부터 마음에서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큰 걸로 여겨서 반응하거나 집중하게 되는 마음을 족족 버리시면 급격한 의식성장이 있게 됩니다.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심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하하하 또 이러네? 내가 속을 줄 알고? 하고 웃어 보세요.

마음을 자꾸 떼시고 자꾸 행복하려고 애쓰시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잘 먹으시면 저항은 그저 성장의 원동력이 될뿐이며
그들은 우리들이 마음 운용의 대가가 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거나 맞서 싸울 것이 없지요.
애초에 이들은 생명이 없는 그림자, 환영이니 웃어 넘기면 됩니다.

이들은 자꾸 뭐든 심각하게 여기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증상을 올려 걱정 하게 만들고,
돈을 걱정한다면 돈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하여 걱정 하게 만들고,
가족에 애착이 많다면 가족이 속 썩이게 만드는 등,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미카엘 대천사님이 있잖아요.
힘들 때는 소리를 내어서 말로서 요청을 하시고요
주변 사람까지 보호해 달라고 청하셔야
주변 사람의 의식에 침입해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천사의 힘을 빌릴 생각을 못 했을 적에
기적수업 문구를 반복해서 읽곤 했습니다.
심할땐 꼭 퇴마의식 하는 것처럼 되곤 했지요.

기적수업 문구 마음에 드는 것을 작은 수첩에 적어서 들고 다니는 걸 추천
합니다.
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손에 직접 쥐어 지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도감이
들거예요.
그리고 우사를 수시로 손 닿는 데 놓고 아무데나 펼쳐서 보세요.

이런 걸 무슨 영적 존재라고 무서워 할 필요가 없고요,

이들은 말 그대로 생명 없는 환영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마음에너지를 줄
실존적 가치가 없어요.

기적수업이나 우사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기 때문에 태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의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공격을 해도 에너지장이 빈 공간이라 그냥 통과 합니다.

그 때 까지는 에너지가 출렁 출렁 합니다.

그런데 그 출렁 출렁 하는 힘은 자신이 부여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어 이게 뭐야 무서워! 라고 겁내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아무 힘이 없는 애들이라니까요?

어 이게 뭐야 무서워! 라고 하는 내 감정적 힘을 뽑아 쓰려고 저 난리를
부리는 건데

고요해지겠다고 거듭 선언을 하시면, 곧 출렁거림은 사라집니다.

<선언>의 힘을 간과하지 마시고, 말로 소리내서 선언을 해 보세요.

말로 소리내서 하시면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재미 있게 여겨 보시면 좋겠죠.

괴로워서 막 울고 싶은 나를 한 단계 위에서 보고 웃어 보세요.

출렁 출렁 하고 싶은 욕구, 드라마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느끼고 버려
보시고요.

살면서 힘든 적 많았지만 안 죽었죠. 다 지나고 나니까 잘 되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서 서로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니 손잡고 웃으면서 가는 길

가는 도중에 돌이켜보면 웃음나는 기억들,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 봐요

힘든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추억들, 고마운것들에 집중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잘 해주고 계셔서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모든 걸 제가 예상 한 것보다 초과 달성 하고 계시고
저의 기대를 훌쩍 뛰어 넘어서 저는 매일 감탄합니다.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6. 드라마 세션장면 최초공개 2

네 이렇게 동시에 수십명이, 30명 정도가..

절대진리를 몸으로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게 30명이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진리라는 게 정말로 지상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진짜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세상을 초월한 것이죠
너무나 멋진 거지요.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에고가 뭐라고 말하든 아무리 왜소하다고 하든.

저도 아직 에고 있지요?

제 예고도 저에게 넌 왜소하다고 맨날 그러합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고의 속성 자체가 계속 까내리는 거라서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강도가 많이 미약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 들어도 또 그런다 응 그러냐?

응 그래 이렇게 꼬달리지 않고 애쓰네... ㅋㅋㅋ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애쓴다 애써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들 애쓴다 애써 애잔하다

네, 개가 하는 짓이 그거라서 개는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합니다.

원래 그냥 매커니즘이 그런거니까요.

근데 그놈이 그러는 거에 내가 괜히 달려가가지고 진짤줄 알고.. 내가 바보죠
그럼?

그거에 힘을 부여하는 게 나예요.

여러분은 귀하고 귀하고 자랑스러워할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자신에게 그 말 해주시고요 너무 우리가 스스로를 왜소하게 여겨온 게
오래돼서요.

자신을 위로할 때고 처음엔 잘 안 와닿아요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요.

돈 못 번다고 타박하고 키 작다고 타박하고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면서...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날 보면.. 모순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날 봐야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 오늘도 쓰고 있나?

네 적어도, 자기비난 하려고 하는 습성 그만 하려고 애쓰고 있나?

그러면 그거 자체로 대단한 거 아닐까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사람인데 판단이 늘 완벽해야 되나요 실수해도 돼요.

오늘 좀 못했으면 어때요 내일도 날인데. 죽지 않는 이상 기회가 있어요.

네 우리 너무 뻑뻑해요 자꾸 위로해줍시다

자신을 그럼 인사해봅시다

꾸벅 고마운 친구들 함께 가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려내봅시다

7. 드라마 세션장면 최초공개 3

삶에서 무력함 느꼈던 적 각자 떠올려 보세요. 그림만 다르지 감정은 동일하죠?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순간에. 영혼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해주기를 바래서 에고를 만들어 낸겁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진실이라는 느낌 오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에고에게 휘둘리고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도권을 다 포기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서 무언가 다른 걸 만들어서 니가 해줘 나는 아무 것도 안할래

이렇게 된 것이예요.

그래놓고 에고 니가 문제야, 이렇게 탓하는 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에고가 문제가 아냐. 에고는 환영이다.

그 주도권을 넘겨준 나를 수습해가지고 내 스스로 조금씩 삶의 개척자, 주도자 이거 찾아오는 건데 신경망 자체가 전부다.

저쪽에 넘어가있어서 아주 조금씩밖에 못 찾아와요.

그래서 결론은 연멘

수행한다고 앉아서 명상해봤자 신경계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인식으로만 하면 너무 오래걸려요.

자 그럼 선언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운명의 주도권을 무언가에게 넘겨주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다시 찾고자 합니다.
나는 주도권을 지닌 자로서 내 운명에 대한 선택권을 되돌려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에게 이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목길목마다 지혜를 주시고 등불을 들어 밝혀주세요.
제가 어려운 고비마다 외면하지 말고 그저 나의 주도권을 찾는 과정으로
올바르게 보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직 가슴 속에 답답하거나 두려운거, 할일 많은거같고, 막막한 그런거
있지요?

느껴 보고 그 안으로 치고 들어 가 보세요.

30초 해보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들어가보세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거예요.

답답한 속으로 들어가 답답함을 정명으로 느껴보세요.

심호흡 여러번 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어깨 허리를 좀 풀어주세요.

몸이 굳은 부분 풀어주세요.

가슴 속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밖에서 볼때는, 딱딱하고 거대해 보입니다만

안에 들어가서 볼 적에는

그냥 구름같은 거예요.

이게 신경망을 흐를 때 혼미하고 졸립니다.

신경망이 아직 저쪽 거라서 통로가 좁거든요.

10중에 1만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9는 내 의사에 반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끊임없는 자기자신과의 싸움 갈수록 더합니다.

내가 내 껍질 벗겨야 되거든요.

근데 나 자신이 이거 하려고 하면요 불가능하죠.

나도 수행 당하는 존재예요.

누구에게?

더 위대한 존재에게...

네

다만, 내가 허용하는 만큼만

수행 당하게 됩니다.

서로 협의해서 가는 거예요.

8. 0824 기택강독 - 기적수업의 유일한 주제 : <권위 문제> 1

▶[기적수업의 단 하나의 주제 : 권위 문제]

<권위 문제> 하나를 다루기 위해 1440p를 쓴 기적수업.

'권위' 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권위'가 맞지만, 용어 자체의 뜻은,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사실을 잊은 걸로 모자라 '내가 신이다! 하나님 너는 내 발밑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

[페이지(합본기준) : 49p. 8단락]

"권위의 쟁점은 사실 누가 창시했는가의 문제다. 네가 권위 문제를 겪을 때는 언제나 너를 너 자신의 창시자로 믿으며, 그러한 너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는 말 그대로 누가 너를 창시했는가를 놓고 다른 사람들이 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각한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하는 근본적인 오류다."

"너는 누가 너의 진정한 창시자인지를 확신하지 못해, 누가 너를 창시했는지 모른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너는 네가 너 자신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여긴다. 너는 누가 창시자인지를 논쟁하기에 너의 마음은 확신하지 못하며, 네가 진정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참수행]

〈하나님에 대한 생각〉

- ㄴ '나하고 무슨 상관 이람', '날 심판, 판단할거야'
- ㄴ '나한테는 관심 없어.', '왜 나를 이런곳에 떨어놓고, 외면해?'
- ㄴ '난 버림받았어. 왜 나를 만들어서..'
- ㄴ '니가 하나님이야? 그럼 내 인생 어떻게 좀 해줘봐'
- ㄴ '난 벌받을거야...무서워. 싫어.'

이런 생각들은, 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수행〉

참수행이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슬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 하나님은 내면에 있으며,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확장체 입니다. 확장체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사람이 곧 하나님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것이 하나님 입니다.

<의문>

내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일부라면, 하나님을 능력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

<답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걸로 보이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 [진정한 '나'를 기억하자]

<얹은뱅이의 일화> - 강한 의지와 믿음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때부터, 얹은뱅이라고 말을 들어왔어요.

"넌 얹은뱅이야."

부모에게도 그렇게 들었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내게 얹은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일어설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날 불쌍해하며 업어주고, 안아줬어요.

오랫동안 걷지 않아, 다리는 근육이 없어졌고,

이제는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 다리에 아무 문제 없어. 앓은뱅이 아니야. 일어나 봐"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부인하겠죠.

"아니요 저는 앓은뱅이로 태어났어요!! 전 못 걸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말합니다.

"아니 너 멀쩡하다니까? 일어나서 걸어 봐."

당신은 말합니다.

"안돼요!! 그럼 제 부모님이 절 속였단말이에요?"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저리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려면,

세상이 자기를 속였다. + 나도 나를 속였다. + 나는 게으르고 멍청했다.

이걸 다 이겨내야 비로소 걸겠죠.

그냥 누워 있으면 세상 편한데,

일어나서 근육을 훈련 시켜야 하고,

설 수는 있지만, 정말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을 이겨내야 하고,

무엇보다,

날 계속 누워 있게 만드려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처음 걷기 위해서는 앓은뱅이 라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남들에게 하는 말들을 봅시다.

"난 왜 이거도 못하지?", "난 왜이렇게 키가 작지?"

"난 돈 못벌어", "시간없어"

"짜증나" , "재는 왜저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할 법한 말인가요?

즉, 두발로 걷는 자가 할만한 생각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거부 해야 합니다.

"아냐, 나는 하나님의 확장체야!

난 하나님의 마음처럼 관대할수있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앓은뱅이가 "나 걸을수있어!" 라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앓은뱅이 일화2〉 - 하나님의 능력

앓은뱅이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다 굳어 똑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잘 걸을 수 없습니다. 다시 앉게 될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일어날수가 있었네?"

왜 나는 여지껏.. 일어날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어나 봅니다.

그러다보니, 이 앉은뱅이는 걷게 됩니다.

걷게된 앉은뱅이의 과거가 어떤 의미와 값어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앉은뱅이였던 세월에 대해서 매일 생각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곳 저곳, 온 세상을 보고 싶어할까요?

어디든 가보고싶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임을 기억해내는 것은요,

'나 하나님 아닌데?' 라는 걸 자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를 인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거를 만들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것]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려면 처음 해야 할것은,

기존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합니다.

내 팔이 내 몸의 일부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9. 0824 기택강독 - 기적수업의 유일한 주제 : <권위 문제> 2

▶ [권위문제2]

< 나는 하나님의 일부다 >

자기가 하나님인줄 알고 진짜 하나님보고,

"하나님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게 권위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땡땡거리면 왜 안되는걸까요?

모순되죠?

다시 재미있는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망간 눈과 팔>

내 몸에 팔2개 다리2개 눈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왼쪽 눈 하나가, "난 나혼자 놀래" 이러는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눈알하고 보조를 안 맞추고 자기 혼자 뱅글뱅글 돌고있어요.

하지만 눈이 혼자 돌고있어도 내 몸의 일부죠.

이번엔, 왼팔이 갑자기 "난 나 혼자 놀거야! 난 나 혼자야!" 라며 혼자 춤을 춥니다.

팔이, 몸에 종속 되어서 몸이 하는 일을 따라 가려면,

스스로 혼자 위대하다는 망상을 버리고,

'아 내가 몸에 종속되어 있구나' 라고 인정 해야 비로소

"오! 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손재주가 좋구나"라는 말을 듣겠지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을 우선 놓아야 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과 같은것 이라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팔이 미쳐서 춤추는거 = 원망, 왼쪽눈알 혼자 뱅글뱅글 = 원망)

팔과 눈이 몸을 만들었나요?

아닐겁니다.

하지만 이 눈과 팔은 "내가 날 만들었다! 우하하!"라고 주장합니다.

팔이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날 만든게 아니구나! 난 만들어진거구나.

내 신경계를 통제하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신경계와 화합을 이룬다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정신을 놓고, 눈알을 뱅글 뱅글 2백만번 돌렸는데,

"그거가 다 쓸모없는 짓이었구나" 라는걸 깨우쳐야 되겠죠.

내가 정신을 놓고, 팔로 춤을 2백만 년 뺐는데,

"나는 예술적인 춤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상한 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눈알을 굴리고, 팔을 흔들며 격렬하게 춤을 추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하는 참수행/참회 수행 입니다.

▶ [참수행의 과정- 사람이 되는 과정]

〈부모님과 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볼까요?

살면서 부모 원망 안하는 사람 드물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쓸 몸을 뱃속에서 만들어가지고 9달 품어서 아파하며 낳으셨죠.

아기는 돌봐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매일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똥기저귀 수 만번 갈며 살려주셨죠.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옷을 사주시고, 밥을 먹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자식은,

"엄마,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어?!" 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모란 신을 투사해 만들어낸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청산을 하다 보면,

"와 내가 진짜 못난자식이었구나.."

"난 부모님한테 밥 차려 준 적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최소 몇천번은 차려주셨구나.."

"나는 부모님께 한번도 안차려줬지. 혹은, 차려주면 생색을 냈어."

"내가 어머니 기저귀 한 번도 안갈아줬는데, 어머니는 내 기저귀 만 번은 갈아줬어"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도 못해봤을까?"

이게 내가 수행한다고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이런거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못난놈이었네!"

이런걸 알아가는 과정..

이게 참수행이고, 이런과정을 거치면 좀 사람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수행이란 걸 할 자격이 좀 되는거예요.

▶ [참수행의 과정 2 - 영적자각]

사람은 되고 나서 수행을 해야한다는 말.

말은 쉬운데, 가슴속 울분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온통 억울하고, 화가 가득합니다. 화병의 종족 한민족이니까요.

누가 조금만 찌르면 막 서러워서 눈물나고 화납니다.

감정 청산을 많이 하시고, 많이 많이 우시다 보면

세상이 그 전에는 논리로, 이유로 보여서

늘 머리로 따지고 의문을 가졌고,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가슴이 조금씩 열리고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다가오게 됩니다.

갈수록 따지는 일이 줄어들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날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울컥 울고, 어느날은 부모님 나이 든 손 잡아보고 울컥 울고..

하면서 가슴이 열리다가, 어느 날, 영적인 빛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 자각을 하게 됩니다.

▶ [참수행의 과정 3 - 견성(영적자각)에 대하여]

견성, 영적 자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수행을 매일 조금씩 하시면, 조금씩 인식이 변하는거라서

내 세상의 감동도 조금씩 깊어지기 때문에, 내가 견성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견성이란, 영적 깨어남 = 영이 깨어나는 것, 말 그대로. 나의 성질을 보는 것

수행터마다 견성에 대한 주장이 다른데,

다른 수행터들이나 참선, 불교등에서하는 견성은

'참나를 보는 것 = 의식자가 되는 것' 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자각은 '영적 존재로서의 나의 기억'을 찾는 것.

영적 자각을 하게 되면, 미치도록 기쁘고, 너무 좋아서 울게 됩니다.

그냥 고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고요한 참나,

이거는 그냥 의식자를 자각하는거지,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며

나만 변하는게 아니라 내 세상이 통째로 변합니다.

이 때 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조금씩 쓰게 됩니다.

10. 0824 기택강독 - 기적수업의 유일한 주제 : <권위 문제> 3

<견성을 하면 내가 창조자 인것을 알게되나요?-견성과 차크라>

견성은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것. 처음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영, 신성'이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는것만으로 미친듯이 기뻐서 울게 되고 일생이 변하는겁니다.

감동이 그냥 일시적인 체험인데에 반해서,

영적자각은 <완전히 존재가 변하는거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그 크기나 강도는 다 다를수밖에 없어요.

내가 창조자인걸 알게되는 시점은

'차크라가 다 열려서 백회까지 뚫리면' 너무나 확실해지며

신과의 소통, 연락망이 확립됩니다.

그리스도의식은 '인간이라는 통로', '신성의 통로' 로서,

일시적으로 육신을 가진 채 지상에 현현하는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이 빛이 온몸에서 차크라에서 다 나오긴 하지만, 가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주로 가슴 차크라)

가슴 차크라가 정식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백회가 열려야 합니다.

수행 때는 간헐적으로 신성, 자신의 신적 자아와 소통 하게 되다가,

'쿤달리니 각성, 백회가 열리면' 아예 파이프가 세워지는거예요 (늘 열려있는 망)

늘 파이프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신과의 소통을 늘 몸으로 하게 되는거고,

점점 더 신적 인간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의 소통을 확립해야만,

무슨 짓을 해도 남에게 상처를 안주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올바른 행동이 되게 됩니다.

(!중요)여기서 오해가 생길수가 있는데,

'뭔 짓을 해도 상처를 안준다'

이것은 뭔짓을 해도 상대가 기분나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짓을 해도 상대를 이 이상한 세상에 '종속시키기보다는 깨우게 된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세상을 위해 좋은일 하며 살게 되는데,

그 방식이 이 세상에 알려진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 친절, 이라는 개념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자식이 있다고 해볼까요?

내 자식이 나이가 찼는데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빈둥거립니다.

내가 쓴소리 하면 그녀석 상처받아요.

"내 예쁜 내새끼" 하며 그냥 두는게 맞을까요?

그게 사랑하는거 아니죠?

진짜로 자식 사랑하면, 내쫓아서라도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겠죠.

예수님이 팩폭 하잖아요

'오구오구 우쭈쭈' 안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적수업 주제 : 권위문제2]

[페이지(합본기준) : 51p. 2단락]

"네 마음의 힘을 약한것으로 치부함으로써 권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사실 너는 마음의 힘을 알고 있기에 너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약하게 할 수 없듯이, 마음의 힘도 약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왜소하다고 자꾸 설득 하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가지고 왜소한 나를 그려내고 있는것입니다.

내가 왜소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려냅니다.

왜 왜소하고, 괴로운 그림 그려야 하나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날 잡으러 와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고있어서 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날 벌을 준다면 너무 무섭겠죠.

그래서 미리 자기 스스로 벌 받고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벌주면...

하나님이 날 찾아왔을때, 날 조금은 불쌍하게 여기시겠지. 라며

우리가 스스로 벌받는 그림을 그려낸답니다.

눈이 미친듯이 뱅글뱅글 도는 이유는 하나님이 잡으러 올까봐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미친듯이 뭐든지 해야만 하는거예요.

〈권태로움과 연단〉

이, 신이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든 미친듯이 해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괴롭죠.

연단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음악 들어도 되나요?

동영상 봐도 되나요?

음악은 어떤 음악 들어야 되나요?

댄스 음악은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 폰 들고 보면서 연단 합니다.

음악을 안 들으면, 머릿속을 다른 걸로 가득 채웁니다.

내일 뭐 하지? 계획 세웁니다.

모임 친구들 생각 계속 합니다.

친구들도 이걸 다 버텼겠지?

이런 생각 하면, 수행에 대한 생각이니까,

생각 해도 될 것 같은. 면죄부 받은 기분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천사를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고 천사 부르는 건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합니다.

아니면, 감정 청산 하려고 애씁니다.

울거나, 과거를 생각 합니다.

뭐를 그냥 한다. 라는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어떻게든 뭔가 다른 걸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연단이 워낙 안하던 것 하는 거니까, 적응기간이 필요하긴 하지요.

그래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적응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연단에 좀 익숙해 지셨다면,

30분 연단을 음악 안듣고 조용한 가운데 해보세요.

'권태로움이 이렇게 끔찍한거였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에고가 생 난리 발작을 합니다.

고통보다 권태로움이 더 괴로워요.

뭔가 안하고, 주의 집중 안하면, 누가 잡으러 올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연단을 하는데, 무릎 계속 낮추면서

자기자신을 혹사시키며 극적인 연단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계속 고통받으려고 하고 안 아프면 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자세 한번씩 낮춰주는것 제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벌 받으려는 마음이고, 권태로움을 극적인 것으로 피하려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든 계속 권태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권태로움 뒤에는 실은 엄청난 두려움이 깔려있습니다.

신이 나를 잡으러 와서 벌 줄거다라는 믿음이 아주 아주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마음을 안 강력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살고있는거죠.

뭔가에 질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려는 마음이 늘 새로운걸 해야만 흠뻑 빠지고 잊을 수 있어서 안심됩니다.

마음이 수양이 좀 되면 똑같은 거 맨날 해도 안 질립니다.

매 순간 새로웁습니다.

과거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게 됐느냐, 신을 내가 버렸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천국을 모욕했다, 큰일났다,

나 도망가야겠다, 잡히면 죽을거야!

"우주가 사라지다" 책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죄책감〉

기적수업은 권위문제와 죄책감을 주로 다룹니다.

죄책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성관련 책은 기적수업이 유일합니다.

죄책감은 아무도 다루고 싶지 않은 금기지요.

▶[추가사항 : 질문 게시판/다음편 예고]

카페에 '자주 나오는 질문' 과 '뉴비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몰려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겁니다.

다음 시간에 '시크릿(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크릿 가능 합니다. 다만,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투비컨티뉴드..

@ 새로 오신 분이라면 글만 읽기보다 돌고래 프로그램 참여를 권합니다.

이렇게 글로서 다 공개를 합니다만, 함께 같은 시공간에 같은 의식장 속에서

하나에 집중 하는 것은 글을 혼자 읽으며 온갖 저항과 의문 파동 올리고 있는
것과는

비할 수 없이 의식장에 영향을 줍니다.

11. 기택강독 0727 바다와 물풍선

사람이 우리 몸, 이거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갖잖아요 여기선 근데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영적 존재라고 하니까

아 몸은 아니고 영혼이 진짜인가보다, 그래서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정신이 아닌것은 몸 정체성만이 아니라, 영혼 정체성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기적수업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요

그러면 제정신인 거는 누구냐?

영혼과 연결이 끊어져서, 저 위에서..

언제 내 확장체인 정신나간 영혼이 나를 찾아줄까?

하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신적 자아,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가지 카르마를 지워야 하는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다면 몸에 종속된 파동이 있습니다. 조상들에 의해 유전되는 것들이

세포속에서 파동치고 있기 때문에 몸 가진 이상은 몸에 영향을 받다가 어느 시점에 몸에 종속된 카르마를 거의 닦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영혼, 영혼이 여기에 오면서 내가 이 몸 쓰겠다라고 의도하고 오는,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부터가 제정신이 아닌거기 땀에.. 우리 정체성이 일시적인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정체성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정체성인거거든요 신적 자아를 찾기 전까지는.

그럼 한시적인 몸뚱이 세포 말고요, 즉 매트릭스 그림판 말고, 영혼의 에너지장에 윤회를 거듭하면서 쌓아 온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장이란 저장고입니다. 저장을 해놓고, 바깥 에너지 하고 교류를 합니다.

바다라고 칩시다. 바다를 영 이 아니고, 인류의 집단무의식 이라고 칩시다. 바다 속에 상어도 있고 해파리도 있고,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플랑크톤, 박테리아 등 영혼 하나는 물풍선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자기 몸안에도 물이 있고 바깥에도 물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물풍선 껍질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다하고 자기가 가진 물하고 구분이 안되지요?

이 상태가 백회 열린 상태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 물 어딴지? 저건 내 물, 이건 내 물 아닌데...

해봤자 뭘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바다가 아니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물도 아니네?

내 담겨 있는 곳이 나는 아니구나.

근데 백회가 열리고 이후에 빛이 수여되기 때문에

자기가 바다가 아니라 빛이라는걸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영성 찾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물풍선
껍질을 계속 강화 하면서 그 안에 꺼를 닦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물풍선 껍질 그냥 터뜨려버리면 돼요..

내가 내 풍선 안에 있는 물 깨끗이 해 봤자 어떻게 되요? 나중에 바다랑
섞이면?

물풍선 껍질 강화 한다는 거는, 이론과 지식에 빠져서 깨달음이란 어디론가
가는 거다

어떤 단계가 있고 그걸 성취하면 난 좋을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 물풍선 껍질 두껍게 하는거고요

내가 나를 고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

나는 영성구도자니까 남들과 달라
이런게 다 강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풍선 얇게 만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거 다 의미없구나
착한놈, 나쁜놈 구분 할거 없구나
뭐 해야 되는 게 없구나
나와 남의 구분이 의미가 없구나

원래 나는 물풍선 껍질도 아니며, 물풍선 속 물도 아니며 심지어 바다도
아닙니다.

원래 나는 빛이에요.

근데 그러면 물풍선 유지 하면서 그냥 빛인거 알면 되자나요.

왜 바다하고 섞여야되요?

빛이란 원래 자기자신 이거든요.

근데 자기자신을 알려면은, 자기 아닌 것을 보고,

이거 나 아닌데?

라고 선언을 해야만 자기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닌 것을 볼 때, 내가 물 아닌 거를 알게 될 때

물풍선 속에 있는 물만 나 아니라고 하면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속성이 물이면, 물 전체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바다를 다 아는 환경이 되어야, 즉 차크라가 다 열려야 완전하게 신적 자아와 결합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풍선을 아무튼 나라고 믿고 있는데, 자꾸만 그 물풍선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면, 즉. 자기 고집이나 경계선, 갈라치기 하는 굳은 껍질같은 마음을 자꾸 없애면 물풍선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헐거워지는거예요 껍질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 들어오지요?

어우 짜.

아니 웬 박테리아가 있어? 이게 뭐야 더러운 거 있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지구의 상황이...바다가 너무 더럽거든요.

그러면 물풍선 터뜨리는게 목적이니까. 아 그냥 섞이면 되지 하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집단무의식에 휩쓸립니다.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시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오히려 제대로 못살죠?

사기꾼놈들은 등쳐먹으면서 잘 삽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울증, 히키, 분열증, ADHD 등등

이거를 이 세상은 거꾸로 뒤집힌 세상이라 미친듯이 경쟁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저 위에 오른 자는 추앙받고,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찢따 병신으로 취급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다행이지요. 바다속에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멘탈계 에테르계 타락한 존재 등 나쁜 애들이요.

바닷물 좀 들어가도 잘 사는 애들 꼬드겨갖고 호스 연결 해서 깨끗한 물 쪽 쪽 빨아들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끔찍한 환경인지 비교대상이 없으니 잘 모릅니다.

그냥 지구 카르마 무의식장 하부 아스트랄계는요 지옥도 입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12. 기택강독 0727 바다와 물풍선 2

이런 존재들은 다 어디서 왔냐고요?

지구인들이 오랜 세월 지구에 살면서, 각종 부정적인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만들어진 사념체들

그리고 원래부터 지구에 붙어있던 의식존재들입니다.

인간도 신의 한 조각이기에 의식을 집중하면, 환영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의지를 가진 걸로 보이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의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버그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자신이 가진 신의 창조력으로 잘못된 것에 집착 하여 창조력을 쓰면 사념체가 만들어지고,

이 사념체의 밀도가 높거나, 자기들끼리 뭉치면 마치 의식을 지닌 듯한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자신들이 타고난 대로 계속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집착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념체는 집착을 하게 만드는 짓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념체는 사고를 유발하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성적 갈망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념체는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물풍선 껍질 얇아진거 갖고, 바다속에 살면서 이런 상어나 해파리 피하려면...

상어나 해파리가 싫어하는 냄새를 뿜으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풍선이 어차피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면

물풍선이 얇든, 두껍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물풍선의 속성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버릴 물풍선이라면...

잘났든 못났든, 물풍선이 색깔이 뭐든,

크기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물풍선 두껍고 아둔하면 하나님 찾을때 내면에서 안찾고
자꾸 외면서 찾습니다.

그러나 자꾸 노력하면 좀 멀리 돌아가도 가긴 갑니다.

저같은 경우에 백회를 열고 나서 빛을 받고 나서 기적수업이 없었잖아요?
영성이나 종교적 전통도 없었고, 저는 지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온거
같구요,

많이 울면서 한번씩 울다보면 극에 달하면 마음속에 지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겁게 올라오더라고요.

물풍선 속을 다시 봅시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물풍선이 영혼이니까, 지금 이 영혼이 육화를 한 상태든, 아닌 상태든

하여간 그동안 쪽 육화 해오면서

자기가 빛이 아닌 물이라고 착각해온 것의 결과가 물풍선이기때문에

물풍선속에 있는 것은 모조리 거짓된 것이며

물풍선 자체도 거짓된 관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말씀 드리면, 물풍선이 우리의 영혼,

에너지장, 다다 글에서 말해 온 솜사탕 파동체로서

물풍선이 통째로 거짓된 관념이고 다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교류라는 관점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냐면

내 물풍선 속에 뭐.. 이를테면 그냥 색깔로 이야기 해볼게요.

영적 광선 그런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의상.

물풍선 속에 녹색이 많다고 쳐요.

그러면 바닷물이 물풍선 껍질에 난 구멍으로 들어올 적에

보라색도 들어올거고 노란색도 들어올거고 그쵸?

근데 녹색이 들어오자나요? 그럼

내 물풍선 속에 있던 녹색하고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녹색이 늘어났기 땀에 무겁지요?

아 이거 뭐야 씹씹 화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화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 모든 건, 달리 말하면, 인식하고 버릴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 잘됐네 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잘못 배워 놓으니

난 왜 아직도 이럴까를 비롯해서...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

왜 해도 안될까...이러고 있는 나는 넘나 어리석구나.. 등등

이거 우리가 다 잘못 배운 거고

영성쪽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로파간다입니다.

몸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 마냥 그렇게 고요할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되면 고요하겠지요.

내가 수행 했는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지? 이러면서 자기비난 하면 차라리 진전이 있는데요,

보통의 평균적인 영적구도자는 아예 마음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절에 들어갑니다.

고요히 앉아있으면 안 느낄 수 있지요.

나가서 돈 안벌어도 되고 무서운 일 안봐도 되니 자극이 안되니 물풍선
고요하지요

고요~ 하게 옴마니 반메흠 하다가

누가 와서 물풍선 걷어 차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ㅎㅎㅎㅎㅎㅎ

마음의 평화 라는 개념이 얼마나 왜곡 되어 있는지 아시겠지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놓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평화가 없고요,

누가 발로 걷어차도 속에 든게 없어야 안 흔들리죠.

자 그러면 녹색 들어와서 녹색 자극하면 녹색물 버리고

빨간색 들어와서 자극되면 빨간물 버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속에 담고 있는게 없어지면 물풍선 이거 껍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다 내 왜곡된 믿음으로 인해 잡고 있는거기 땀에

내가 필요해서 잡고 있는거라서 필요가 없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다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다 전체를 보는 환한 의식상태는 빛이 된 상태이기에,

자신이 물이 아닌 빛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현명하게 영적 구도 라는 여정을 가 보자구요.

금렵구

라는 이상한 이름 붙여 가지고 여기 모여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다 안에 있으면서, 물풍선 노릇 당분간은 해야 하니까

물풍선 보호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수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거나 높은 존재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다속에 괴물들이.... 기도 하고 있으면 그거 듣고 와가지고

오호라 애 먹을거 많네?

하나님 예수님 찾고 있으면 예수님 위장 해가지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명상 중에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구원해주기 위해 왔다

부처님 찾는 중생에게는 보살로 위장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명상중에 나타나요

아니 관음보살님??

내 너의 인류를 위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겨

너에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겠노라~

자 여기 계약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죠?

근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이런 멘탈계 존재에게 정신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겔에서 연단 하라고 하면

영적인 거라는 개념, 관념, 배움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 하고 못 합니다 네 도망갑니다

멘탈계에 정신을 상당 부분 잠식 당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서 기웃거리기는 하는데
연단 하라고 하면 결정적으로 버텨내질 못합니다.

기도나 영적존재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이 일단 바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자신의 정신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건데,
정신이 망가져 있으면, 그 통로는 망가진 세계로밖에 연결이 안됩니다.

즉, 그 사람이 영성을 추구하더라도 어떤 중독상태를 놓지 못했어요
술담배는 뭐 애교이고 성매매라든가 도박이라든가 폭력, 알콜중독 등 심각한
중독 있자나요?

이건거 자체가 애초에 멘탈계 존재가 사람한테 빨대 빨아서 부정성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적 자아와의 연결을 확립해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

상위차원의 빛을 이용할 수 있기에 방어도 받고, 그 안에 뭉쳐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면, 시너지효과가 생깁니다.

13. 기택강독 0727 바다와 물풍선 3

그런데 여러분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람들 재밌게 해 달라고, 웃겨달라고 하자나요?

저도 웃기는 거 잘 못합니다만, 웃기는 거 못하시겠으면

예쁜 그림이라도 올려서 남들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어 주거나,

감동을 주는 등 남을 행복하게 해 주면 되고

무겁게 가게 되고, 자아비판 하고, 자기를 자꾸 작게 말하고,

하소연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살면서 남들을 힘 빠지게 하고 있느냐, 기분 좋게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습에 따라 자기 인생 경로가 달라지고

그에 맞게 살아 오신 거예요.

여기에 수행글 다 공짜지요?

이런 저런 시스템들도 다 공짜입니다.

가져갔으면 조금이라도 뱉어 줘야 되는데

가져가고 가져가고 또 가져간 후에 계속 질문 하면서 답변 가져가고

자기가 기여하는 바는 없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져가 쓰라고 다 공개 해 놓은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의식 성장이 있을까요?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행글 읽어서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담 한마디라도
해서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 주어야

자신도 가져간 것에 걸맞는 마음을 쓰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냥 숨어서 가져가기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면 수치심 때문에 못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경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그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겉에 글 쓰실 때

꼭 나 자신을 까발려가지고 예고를 파헤쳐야, 적어도 무언가 수행기다운
거여야

글을 쓸 수 있는 것만냥 느낀다면,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글도 좋지요. 하지만 그런 글이 잘 안 써 진다면,

그냥 웃긴 그림, 영상 퍼오세요. 그냥 농담지껄이기 해보세요

왜 안됩니까? 다같이 웃으면 기분 좋은걸요.

겉을 금렵구화 시킨 것은 너의 모든걸 까발려야 의식성장 시켜준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을 내어 봐

힘들다고 우는 게 아니라 남들 기분 좋게 만들어 줘 봐

그 조건으로 시스템 걸려 있으니 그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힘들게 갈 길을, 함께 웃으면서 좀 가보자 이겁니다.

수행을 하실 때도 자기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수행이라고 믿는 건데요

바닷물 속을 막 뒤벼 파가지고 그 속성을 아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건, 리더가 되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나 주어진 임무입니다.

바다가 존재 하지만 바다속 해양생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바다에서 그냥 서핑하는 사람들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속성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바다속 플랑크톤이 몇종이고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만한 시간동안 끼쳐왔는지 다 알아야 하는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저 바다란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구나하고, 자꾸 놓는 거를 배우면 됩니다.

네 비유가 좀 길었는데 요약하면

바다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물풍선이 아님을 알기

바다 속에 있으면서 바다가 되었을때도 자기가 바다가 아님을 알기

빛임을 자꾸 선언하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50분까지니까

남은 시간에 선언을 해봅시다.

나는 내안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나를

자꾸만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웁니다.

내 안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나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지상에서 육화한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지상에 펼칩니다.

저는 육화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스스로 위화감이 없습니다.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적에는 위화감이 있을 겁니다.

잘 안 믿기는 자신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 아니며,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본질은 하나의 신성입니다.

저 하고 여러분 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은 아직 알기 싫은거 그 차이입니다.

진리에 대한 인정이, 그의 개별체에 체험의 통로를 내 주게 됩니다.

이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어디에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다 그리스도이고 원래 다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난 아니야!! 라고 믿은 지 오래 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시간도 환영이기에, 강력한 영적 자각이 오면

한 순간도 내가 내 존재를 몰랐던 적이 없었다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자각 하면

어디서 내 안에 이렇게 있었을까 싶은 기쁨이 나오잖아요?

원래 그냥 있었던 거를 발견 한거잖아요?

원래 갖고 있었는데 왜 지금껏 발견을 못 했던 걸까요?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선언했더라면, 더 빨리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직 왜소한 자아상을 너무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 개념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놓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얻겠습니까?

놓아도 안 죽습니다.

죽는 자는 그 왜소한 자아가 죽는 것인데,

놓는 즉시 나의 자아 개념이 큰 자아로 옮겨가기 때문에,

나 자신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명을 경험합니다.

놓을 때 두려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할 때 죽음의 두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파생된 에너지를 붙들고 있으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겪을까봐 무서워서 못 놓습니다.

이건 마치, 딸기 케익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딸기맛이 싫으니 딸기 케익 계속 먹겠다는 말과 같아요.

말 장난 같지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이 부분 인식이 잘 안되실 겁니다.

기존의 인식과 충돌하여 혼미해질테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예고를 놓으면 죽음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것처럼 영성계에서 겁을 쥐 났는데,

사람들을 깨어나게 못 하려는 암흑세력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영성을 향해 가는 올바른 여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고행이 아니며, 즐겁게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나는 나랑 다다를 다르게 여길까

왜 나는 나랑 예수님을 다르게 여길까

왜 나는 다다를 생각하면 나보다 예수님하고 더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되려면 멀었다 생각할까를 한번 고찰해 보세요.

나를 다다나 예수님하고 자꾸만 다르게 보고 싶은 그 욕구를 놓아버리세요.

잘못된 믿음은 다 그냥 허구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든 얼마나 매력있어 보이든 상관없이 허구입니다.

그리스도와의식과 올바른 인간성은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존재라는 정형화된 상을 만들고

오직 행복만 있고 그 어떤 우울감도 못느끼는

인간성이라고는 배제된 기계적인 어떤 존재를 여러분이 자꾸 상상하시는데

그것 역시 암흑세력이 만들어놓은 프로파간다입니다.

인간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특성은 신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식과 인간성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안의 그리스도를 깨웁니다.

이 말은 별 저항이 없지요?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하시면 제일 좋지요 물론..

워크북 하시는 분은 매일 이러한 깨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아직 워크북 하고 있지 않다면 시작해 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워크북 게임 참여해보시면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하게 되실
거고.

또한 워크북만 해서는 무의식 속 저항을 깨기가 힘이 드니
빨리 가고 싶다면 연단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14. 무언가가 환상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언가가 환상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걸 직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무의식 마음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기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도 부인하고,
그것이 있음도 부인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로서 결국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걸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 하는 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겠지요.
두려움이 많을수록 자신을 펼치는 데 제약이 있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확장하고 펼치면,

자신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세상을 나쁘게 물들인다고 믿게 되고,
자신을 어떻게든 작은 틀 속에 우겨넣고
최대한 적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선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15. 뉴비들을 위한 공지 또 올립니다. 필독해주세요

아침에 공지를 올렸는데, 글을 삭제하는 일이 또 생겼네요.
〈저항감〉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으며, 해당 회원님께는 쪽지를 드렸습니다.

뉴비 여러분!

여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참회하고,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온갖 저항을 뚫고 힘든 일 겪어가면서
온갖 사람들의 패악질에 더러운 꿀 봐 가면서
먼저 발판을 닦아 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공짜로 도움만 받아 가셨으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은건지 아닌지 헛갈리고 저항감이 들고 의심이 올라오고
기적수업도 좋은지 모르겠고 우사도 좋은지 모르겠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청산도 안하고 글로 생생히 아주 구체적으로 남기시면,
그거 실례죠?

이게 혹시 실례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한참 그런가? 아닌가? 맞나? 틀렸나? 생각을 하셔야 될 지경이면,
공지에 올라온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문을 며칠이고 매일 하시고요

어떤 만두집이 영업을 하는데 거기 만두 먹고 맛있다는 리뷰가 많이 달렸다고
칩시다.

이 만두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아직은 먹어 보고 싶은 기분이 안 들게 생겼고
먹을까 말까 아 저항 올라오는데 왜 굳이 이걸 먹어야 해? 라는 소리를
굳이 그 식당 가가지고 사람들 만두 먹고 있는데 앞에서 하는 사람은 실례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 분은 혹시 제가 아침에 올린 공지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이런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제가 계속 공지로 리마인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항감이 들고 하기가 싫으면 안 하시거나, 그걸 뚫고 나서 글을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다 토해내는게 다다 수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다 토해 내시면,

여기는 파동이 크게 증폭되는 곳이라서, 그런 글을 읽고 사람들이 마음을
증폭을 시키고,

원래 글에 실린 에너지보다 더 큰 의심이 올라오고, 바쁜 일이 생기고, 원망이
올라오고, 며칠 지나면 누군가는 야반도주하듯이 글 다 지우고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곳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행동을 하시면,

이곳은 강한 의식빛에 의해 그것이 훨씬 증폭되는 특성이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 그에 따른 대가를 더 크게 치르셔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오셨으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며,

자신의 행동은 누구에게든 영향을 끼치므로 어른 답게 행동해 주세요.

16. 감정 청산 수행기 남기실 적에 조심하셔야 할 부분 - 필독해주세요

감정 청산 수행을 하실 때, 안에 있는 온갖 원망, 의심, 두려움, 우울함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다가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 그대로 쓰시면, 그 글에 실린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럴테면 그 글을 보고, 누군가 우울한 사람이 허튼 짓을 충동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고, 당장은 별로 모르겠는데 몇 시간 후 사고를 당하거나, 의문, 의심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무조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에 상관없이, 청산 후 편해진 상태에서 담담하게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글에 붙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누구에게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과격하거나 잔인한 단어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청산할 수 있는데까지 청산을 했어도, 집단 에너지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대류하는 에너지 흐름 속에 모두가 살고 있고, 모두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청산을 하셨어도 언어를 좀 순화 해서 쓰시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은 것, 우울한 것은 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잔인하거나 우울한 단어들은 누군가에게는 트리거가 됩니다. 당장 못 느껴도 영향이 꼭 있습니다.

<용서봇> 어시스트도 마찬가지. 자기가 용서 안되는 그림을 올리는 거는 남들 골탕 먹으라는 거나 다름 없지요.

자기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들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무책임합니다. 자신이 용서를 하고 나서 올려야 합니다.

나는 그 그림 보면서 온갖 분노 올리고 화 내고 그 그림 올렸으면, 내 분노까지 그 사진에 덧붙여서 남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뱉는 방송기계들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주로 뱉으면 된통 당하는 삶을 살고, 이타적인 생각을 주로 뱉으면 보람찬 삶을 살게 됩니다.

우주가 거울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이기적인건지, 뭐가 이타적인건지,

머리로만 세상을 산 지가 오래 되셔서, 가슴으로 느끼는 기능이 거의 폐쇄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이타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삶이 무의식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나는 자기가 믿는 자기 생각이 아닌, 삶이라는 성적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고 이타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결과 내 삶에 아름다움이 별로 없다면, 자신의 생각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수행이란 나 좋은대로 하는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게 수행입니다.

솔직하게 감정 토해놓는 건 수행이 아니고요, 토한 감정을 보고 다 책임지고 스스로 갈무리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명목 하에 날것의 생생한 감정을 글로 마구 토해 놓으시면 저에게 글을 삭제 당하고, 디스코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독재라고 욕하셔도 어쩔수 없고요... 여긴 제가 만든 모임이라서 제가 좋은 대로 굴립니다. 맘에 안드시면 다른 데 가셔야죠.

저에게는 에너지가 보이고 느껴지고, 저만 그런게 아니라 범고래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자기가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한 걸 인정을 안 하시고 변명하며 저하고 실갱이를 하시게 되면

저는 만사 피곤하니까 그냥 강퇴 시키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배려가 없었던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도중에 온갖 물의를 일으킨 후 몇달간 사람들 힘 빼놓고 의심 일으킨 담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굳이 끌어줘야 하나? 참부터 강 내보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의식빛이 강한 곳이라 뭐든지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을 쏟으면, 돌아오는 업이 증폭이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 쏟아도 증폭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 하시면 의식성장이 빠른거고요,

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눈팅하고 숨어 있으면 별반 얻어 가는 게 없는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고 의식교류를 해야만 그 증폭 기능을 쓸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주려는 마음 갖고 숨어 있으니, 아무것도 안 주려는
마음을 던지고 있는거라서,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안 주는 마음이기에, 본인이 아무 것도 못 받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것도 에너지 교류인 것이지요.

아무튼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만 할 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업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주려고, 그분 좋으라고
굳이 피곤하게 말 걸면서 제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억울하거나 창피하거나 적어도 자기를 왜 안좋게보냐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이 뿌리는 모든 생각과 반응이 다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의식빛이 강한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일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실 적에 영적 직관이 좀 있는 사람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납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적 직관이 부족하고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주로 생각해온 사람은 반대로 강하게 저항하게 되며,

이렇게 저항 하는 분들이 여지껏 남은 역사가 없는 이유는, 참수행을 하려면 강한 영적 직관이 필요하고,

저항을 주로 해온 습이 있어서 큰 고비를 넘을 때마다 출렁 출렁 남들에게 폐를 끼치다 보면 창피해서라도 곧 사라져버리게 되는것이죠.

저에게 어떤 제재를 당하시면, 납득이 당장 안 가셔도 조금 5분이라도 생각을 한 후에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당황해서 마구 변명을 하시면 그거도 저는 되게 피곤합니다. 저한테 남의 감정, 에너지가 다 느껴져서요.

얼마나 느껴지냐면 그냥 그 사람하고 디코 대화하고 있으면 무슨 감정 느끼고 있는지 너무 생생하게 내 몸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잘 못느끼고, 자기 감정도 잘 못느끼거든요? 머리로 생각을 굴리면서 그걸 안느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기를 거부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까지 저는 그 사람 대신 느껴야만 합니다. 본의 아니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는 다다 수행글 모음의 오픈톡 후기들을 좀 보시면 아실거고요...

예전에 겔 초반에 수행 처음 하실 때 다들 하던 실수들이라, 지금 뉴비들이 많아서 몇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댓글로 주의를 알려 드리다가, 점점 심해져서,

같은 일이 더 안 일어나길 바래서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글은 아니라서 죄송하네요.

17. 너 이래도 그게 너한테 소중한냐?

(220929 로자력 중 반지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준 것을 가져왔습니다)

다다 : (마음으로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껴안아보세요)

잠깐 느껴 보세요

천사의 가슴속이 되게 크겠죠? 넓고

나 정도는 당연히 품어주실거고...

내 가족 한번 품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천사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만..

저에겐, 천사에게 줄만한 예쁜 마음을 내는게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저의 진심을 드립니다

당신을 통해 모두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입니다

받아주세요

마음세상에는 한번 그 안에 두면..
지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지각, 의식 있잖아요?
이쪽 아니면 저쪽을 만든 그 의식이
이쪽 보느라 저쪽 안보고 있으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다 사랑이지만, 사랑 아닌 거를 보고있으면
자기가 사랑 아니라고 보이는 것과 같아요.

소중한 시간은 그대로 있다,
너는 그 찬란한 순간을 잘 보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속에 묻힌다,
그 소중한 순간은 그대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는가?
이 비슷한 기적 수업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슴속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떤거냐면 그거는
여러분 대부분이 잃었다고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임을 잃었다고 믿게 되었을 때..
가슴속에 심겨 남은 아주 미약한 목소리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믿어도,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믿어도
어떤 냉혹한 일을 겪었다고 보여도
나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다
나는 나의 금지를 지키겠다
라는 맹세입니다.

그걸 모두가 갖고있어요. 근데 대부분 잊었어요.
사라진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상처를 주면 나도 마구 상처를 주고
내가 아프니까 남의 아픔도 외면하고 내 아픔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찾으세요 안 그러면 수행해봤자, 수행자 에고만 생겨요.
인간으로서의 금지 비슷한 느낌으로 느껴져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찾았으면, 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리고 시험이 계속 와요.
너 이래도 그거 갖고 있을거냐?
너 이래도 그게 너한테 소중한냐? 그거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시험이 오는 와중에
여러분 대부분 그거 잊었어요.

근데 다시 찾고 싶은 내면의 갈망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참수행 하고 있는
거랍니다.

물론 참수행터가 여기만 있는건 아니죠, 삶이라는 참수행터도 있고요...
로자력 하시면 그거 찾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수행을 밖으로 자꾸 나가서 행동으로 뭘 하려고 하기보단
자기 가슴속의 무언가를 찾길 바랍니다.

내가 겪은 건 모두 이걸 찾기 위한 여정이야,
모든게 다 괜찮았다,
모두 그럴만했다,
내가 상처 받은 것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너를 상처준것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다,
용서할것이 없다...
의미가 되는 거는,
용서할 것이 없어야만 무언가가 의미로 남습니다

18. 1029 가슴을 열어라 - 의식교류의 중요성 1

2022년 10월 29일 가슴을 열어라 세션

(강의 내용을 옮겨 일부 수정한 것으로 특성상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제 꿈 보셨나 모르겠는데 한두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꿈은 기록을 잘 안남기고요

모임 관련 꿈을 주로 올리는데 피아노들을 잘치시더군요

제가 옛날에, 견성 했을 적에 15년됐나? 음악이 떨어졌다고 해야하나?

어떤 아름다운 클래식음악같은데, 바로크스럽기도 하고 그런게 오더군요
한동안...

저는 근데 뭐 악보 그릴줄도 모르고 악기 다루는거도 없어서 콧노래로나
불렀습니다.

한동안 그런 음율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당시 하던
영성모임에서 정모 같은거를 했는데

성당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영적으로 각성같은걸 하면 그런식으로?음악이
내려오는 사람이 종종 있대요 기적수업에 보면은 천국의 운율 이라고
나오자나요

그런게 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펼쳐고 있는 예쁜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는걸로 제 꿈에 나온거 아닐까요?

운율이 꽤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어떤 거친 에너지, 투박한 에너지가 모임에서 많이 나간걸 느꼈고요

식당도 럭셔리해졌고 부드러워진거 같아요

그동안은 거친거 비워내느라 좀 힘들때도 있었죠...

네 오늘 잠깐 헤드릴 이야기는 평행우주 있자나요?

제가 견성했을 적에 예고가 많이 죽어서 갑자기 뒤집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의식이 기민해져서 처음에 느낀것은, 그동안 내가 말해오고
생각해오고 행동해오던 것들이 테잎 레코더에 기록된 것들이 나오는거구나
라는걸 알수가 있었답니다. 자동이더군요.

그거를 안다는 거는,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 선택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모두 테잎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란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선택을 할 때 아주 아주 짧은 순간에 필름 갈리듯이 갈리기 직전에 침묵이
있습니다.

제 꿈에 보면은 그림을 인식하면 양쪽에서 그림판 바꿔주는 남자들 나오지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림 자체는 모든 그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치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들...

그런데 이를테면 저는, 제가 잘하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고

예를들면 제가 뭐 회계 같은거를 한다고 치면 이걸 제 성향이 죽어도 안맞기 때문에

그런거는 아예 선택의 범주에 많이 들어가 있질 않겠죠?

그런데 내가 할만한 것들은 대체로 어떤 그림들이 착착착 다 있는것이죠

거기서 선택권이 있는것인데 그걸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를 우선은 모르고요,

선택권이 있다고 머리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의지로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주권자로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 보통사람은 되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의식수준이, 그림판을 만든 의식수준보다 힘이 세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바가 있고요,

어떤 것이 인식이 되려면, 그것보다 상위의 인식을 갖추어야 무언가가 인식이 된답니다.

예를들면 여러분이 평소에 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할때의 의도는 나는 좋은의도라 여겼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한 짓은 주변을 상처주고 해를 끼치는 일이었다

이런 깨우침을 얻은 경우가 살면서 종종 있었죠?

뭐를 하면서는, 그게 좋을거라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민하게 보이지 않으며 그저 자동적으로 하는 자동인형 같이 하고 있는거랍니다.

내가 자동인형이었구나 라는 깨우침이 온 후에야 인형이 아닌 어떤 자결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선택을 하면 그림이 바뀌는 매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몸에 차크라 있죠? 그게 환영창조하는 투사기입니다.

그러면 차크라가 마니 열려있으면 투사력이 강하고, 적게 열려있으면 투사력이 약하기에,

원래 그림판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 종속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은

주변에 누군가 자신보다 차크라가 더 열린 사람에 의해 끌려다니게 됩니다

특히, 이 투사기는, 차크라가 몸에 여러개라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를테면 1차크라는 뭐 생명력이라고 하지요?

이마 차크라는 뭐.. 심상을 현실로 어찌고 하지요?

환영창조(이걸 뭐 시크릿류의 사람들은 현실창조라고 부릅니다만)에 쓰이는
차크라

주로 이마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걸 하지요. 이마에 집중한다든가...

차크라 자체에만 집중 해봤자 별 쓸모 없는 이유가

무언가를 치유할 의식수준이 안되는데 그 의식가지고 차크라에 집중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차크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의식이 자유롭지 않고, 의식하는것만으로 무언가를 치유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자식에게 집중하든, 연인에 집중하든...

지각이 뒤바뀌지 않은 자의 의식집중은 사실상 해를 주는 겁니다.

치유가 아니라 집착이기때문에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이거를 인정하기가 힘드실텐데, 수행하다 보면 절실히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 에너지장에 온갖 쓰레기 쌓아놓기 전엔 차크라가 잘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쓰레기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아예 차크라의 역할이 뒤집혀 있다고
해야하나.

뭐라 그래야돼.. 강 고장 나 있어요. 전부.

그거를 뭐 .. 차크라가 거꾸로 돌아가느니.. 색깔이 다르다느니..라고 설명하는데

하여간 고장이 나있는게, 이게 바로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죽음을 갈구하는 마음이고 생명의 길이 아닌 거꾸로 죽음의 길로 가는 방식으로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차크라ですよ, 육체에 있는게 아니고 원래 상위차원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통로랍니다.

상위차원의 빛구체의 복사본 같은 거예요.

쿤달리니가 각성을 할 때 1차크라에서부터 뭉친 에너지가 백회를 뚫고 나가는데, 아래에서 위로 치고 나갑니다.

그때 차크라가 정렬이 되면서 제기능대로 고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는, 실은 정체된 에너지로서,

버려야 할 왜곡된 <개별자아>의 뭉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려지고 나면, 차크라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생명을 아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쿤달리니가 나간다고 차크라가 기존에 병들었던게 돌아올 뿐이지,

제 기능이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만 하게 된다 정도라는 것이죠.

전체가 회복이 되게 하려면 이제 제대로 쓸 수가 있게 된 기능을 쓰는 연습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쿤달라니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체로 자기가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자각이 오게 되는데,

이 자각이 바로 신의식이며, 이것은 다만 인식이나 의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장 전체에 빛이 채워져서 지각이 뒤집히며, 세상의 물리적인 속성이 더는 물리적으로 여겨지지 않게되고 그냥 다 환영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환영임을 인식을 많이 했을수록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꿀수가 있는것이고

세상의 고정관념이 그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창조를 할 때 (실은 환영창조) 이런식입니다.

내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 보여서 내가 그것에 종속된다 라고 믿고 있는 의식은,

그걸 믿고 있음으로 인해 종속이 되는 것일 뿐으로, 원래 그런 증거란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기적수업이자나요?

근데 왜 그런 증거 있는걸로 보여요?

내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왜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불교에서도 그러죠?

부처님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가 있는 모든곳이 극락이라고
그리스도나 부처님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

19. 1029 가슴을 열어라 - 의식교류의 중요성 2

그러면 다시, 환영창조로 돌아가서

그럼 쿤달리니가 나가야만 환영창조가 되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영적 자각을 제대로 했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트릭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견성하신 분들은 적어도 견성한 며칠간은 일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저는 견성 당시 1년간 신호등에서 파란색만 봤습니다. 당시엔 뚜벅이였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거냐?

속에 있는걸 자꾸 비우고 버리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걸 위해서 세션을 하는거고요.

세션 몇달 참가하셨던 분들은 일상에서 적용을 좀 해보셨나요?

이를테면 이미지세션 하시면, 뒤로 갈수록 좀 더 깊이가 생겼지만,

초반에는 사진 올리고 바로 집착놓고 바로 다음 사진 올리고 바로 집착놓고

그래서 자꾸 하다보면 눈앞에 있는 현실도 어 그냥 이미지세션같다 이런경험
해보셨나요?

에너지워크에서는, 사람들 데리고 마음속에서 인사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거 일상에서 해보셨죠?

이미지세션 때,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감정반응, 특정 감정반응을 일으키고 싶은 욕구를 놓아버려서
적어도 나를 파괴하는 식으로는 안하게 되는 식이죠.

무의식은 그 매커니즘이,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도록 매커니즘이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욕구를 놓는 것은 파괴할 가능성을 버리는 것이예요.

기적수업에서 <지각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각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의 지각이 참된 지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파괴라는 결과만 나도록 지각하게 되던 매커니즘이,
살리게만 되는 결과만 나도록 지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특별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의식교류란 저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의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저 사람을 내가 자꾸만 생각하고 좋아하고 대화한다면,
그 사람을 닮고 싶다고 마음은 인지합니다.
마음은 자기가 닮고 싶은 것이 되어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류도 없이 자기 혼자 뭐든 해보았자 된다는 착각만 되지 실제로 변화하기는 힘듭니다.

자꾸만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서 나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 이유가 이견데 나오는 사람이 참 적기는 하네요.

영성구도자들은 평생 영성스승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의식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에너지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혜는 그냥 책을 보고 습득하면 되는데 물리적인 에너지장에서 오는 이점을 얻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산넘고 물건너고 비행기 타면서...

네, 날먹 맞습니다. 실제로는 날먹이라기 보단, 돈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카르마의 굴레 속에서 혼자 구르는 거에 비하면 날먹이죠.

에너지장이란, 뭐 주파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사람을 사귄 때 사기꾼, 도박쟁이, 성매매종사자들하고 사귀긴 싫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얼굴 예쁘고 말 잘하고 돈 많고 예의 있어도 별로 사귀기 싫지요? 맞나요?

피해 받을까봐. 맞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친구든 동반자든 이왕 사귀려면, 가정이 화목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 사귀려고 애쓰잖아요.

그건 이유가 뭔데요?

밝고 바르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닮아가니까.

인생에서 일이라든가 어떤 다른것보다도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답니다.

이걸 젊을때 모르면 사서 고생 하는거지요.

그럼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에너지장속에 빛이 많이 채워졌다고 칩시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그냥 남들보다 빛이 많이 채워져 있다면 그냥 그거 자체로 세상에 보시를 하게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좀 더 내어서 더 친절하게 하려고 애쓰고, 더 도와주려고 하면 물론 더 좋겠지요.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사람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단 한 번도 진리를 접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게 진리인 줄을 알 수가 있겠나요? 매커니즘이, 자기파괴의 매커니즘인데.

매커니즘을 거슬러서 알아보는 그 마음은 자신의 에너지장 속에, 아주 일부라도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NPC 개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옛날에,

@@@@ 시리즈 4편짜리 글 읽어보신 분? 그 분 반응이 특이했죠?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막나갔지요.

우사 보면, 모두가 깨어난다고 하지요?

맞긴 합니다만 어떤 그림판의 인물에는, 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영혼이라는것도 결국 그림판에 들러붙어 집착하게 되는..

영혼이 영 + 혼 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영이 없고, 혼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 이란 신적인 정수를 뜻하고, 혼 이란, 관념, 개념, 상념을 말합니다.

영혼 중에서 혼이 너무나 진득하니 카르마를 쌓아온 나머지 자신의 정수를 잊은지가 너무나 오래되면

연결이 실제로 미약함을 넘어서서 끊어집니다.
그럼 그냥 여기 세상에서 상념이 나뒹굴게 되는것이죠.
그것이 저차원으로 떨어지면 지박령 같은게 됩니다.

여기 지구에는 혼만 있는 존재가 더 많습니다.
귀신만 그런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질 않고 마치 마음이 없는거 같다.
평생 사기치고, 나쁜짓만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오직 자신의 고통만 볼줄 알고, 남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한국인은 마음자리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족이라 그 때문에 카르마가
진득하긴 하지만,
이 땅에는 저런 종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못느끼실테지만, 지구의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전쟁
하는 쪽이라든가.

혼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자기 자신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갈망해야만,
영과의 연결을 갈구해야만, 그런 가능성이 생기며,
그걸 갈구하지 않는 존재를 우린, '잠들어 깨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감동을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동을 하는 능력은 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며, 이런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영과의 연결이
있다고는 해도 대부분이 아주아주 미약하며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지경인데,
영적 자각을 해야만 그제서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 꿈속에서 결혼식 보잖아요 그게 이걸 뜻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영적 자각을 하지 못한 평균적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이는 진리를 보면 알아보고 갈구하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생에 어떤 고차원적인 존재와 에너지장을 겹친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영성구도자들이 본능적으로 구도의 길에서 영적 스승을 찾아 헤매며
만나려고 애쓰는 이유랍니다.

우사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이가,
전생에 한번은 영적 스승과 가까이 하며 지내는 삶을 가지게 된다고...
왜냐면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깨어날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에너지장 속에 진리를 알아보는 상념의 한 줄기라도 있어야만
그걸 갖고 진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에너지장 이야기 길게 왜 하고있느냐면..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게 뭐 어떤 영적 지식 이런게 아니에요.
그런거는 각종 책이든 채널링이든 경전이든 뭐..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거 많이 접해 보셨을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이
변했습니까?
원하는만큼 변했다면 여기까지 찾아오시지 않았겠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저하고 에너지 섞는거 즉 의식교류하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도 보면 수행보다는 웃으면서 놀았던 내용이 더 많고
카페에서 자꾸 권한는거도 섞여서 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서 영적으로 남들보다 빛을 많이 품고 있게 되면요.
꼭 영적 지식을 나눠줘야 덕을 주는게 아니고

그냥 빨소리 하고 놀아도 존재만으로 도움을 주게됩니다.
심지어 남들하고 막 싸우더라도 뭔짓을 하든 덕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꽤 시간이나 노력이 들겠지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 참수행을 한지 오래되어서
전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빛은 특성상 증폭이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빛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족한테
줬다면, 그때 증폭이 되요. 그러면 그 가족은, 그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
다른이에게 마음을 주면 그때 또 증폭이 되요.
영적세계의 법칙은 기적수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면 늘어난다."
세상의 법칙은, "주면 줄어든다."죠.

20. 1029 가슴을 열어라 - 의식교류의 중요성 3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서로에 대한 낯선마음을 자꾸 지우고 우리가 가진 고민도
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하면 나도 행복하면서 남도
행복할까?" 이거잖아요.

내가 직장상사땀에 오늘 재수 없었으면 실은 옆에 있는 이 친구도 같은일
겪거든요.

내 가족중에 속삭이는 사람 있는거 나만 그런거 아니거든요 다 그래요.

나만 날 형편없다고 여겨서 그 마음 숨기고 사는데 여기서 수행하다 보니

다 그런생각 하고 살고 있는거 보이죠?

내가 미워하는 그놈도 겉으로는 잘난척 해도 속으로는 다 자기혐오에 시달리면서 살고있습니다.

가엾게 여길 수 있겠죠? 잘 안다면요.

너무나 자기가 싫은 나머지 자기가 가진 변변찮은 것이라도 자랑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 가엾지않나요?

혹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정치든,,권력이든 쥐려고 발악을 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야 할까요.

기쁨이란, 여러분이 겪어 보신 분 알잖아요.

그냥 공짜로 오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잖아요. 그냥 기쁘잖아요.

전에 먹던 똑같은거 먹는데 너무 기뻐~

그 음식이 바뀐게 아니잖아요. 내마음이 바뀐것이잖아요.

똑같은 짓 하는 놈인데 전엔 미웠는데 가만 보니까 이젠 귀여워~

그런 기쁨을 평생 단 한번도 상상도 못하는 자의 인생이란 얼마나 짝짝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를 돌이켜보세요.

그런 기쁨이라는 게 있는지 알지 못했지요?

모르니까 추구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밝은 기쁨이 있다는걸 알았다면 그렇게 딱딱하게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요청 드리는 거는 저나 다른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하세요.

낯설고 어렵다면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건 다 마찬가지로 변치않고
고통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고민이 있으면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괜찮아질때가 많고

특별히 목적이 없이도 여기는 빛이 있는 곳이라 이야기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에너지 교류, 의식 교류, 이거를 평소에 세상 속에서는 좀 닫아놓고 살아야
하는게 현명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저분한 에너지가 많으니까요. 피할거 피하고 하셔야죠.

사람이 다 예쁘다고 도박쟁이, 마약쟁이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에너지 거스를수 없는거를 인정못하는 그건 오만함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다 어울릴 수 있어야지. 베풀어야지."

이건 그냥 상식이 없는 어리석음이고요.

자기가 의식수준을 어느정도 넘어서면 그런거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받는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까진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자꾸만 좋은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자꾸 마음 열고
어울리시고

좋은쪽으로 자꾸 교류 하시고요. 빛을 섞는 거랍니다.

범고래하고 뉴비들하고 섞여야 하고 세션도 섞어서 할거고요.

그럼 범고래 입장에선, 뉴비들 하고 섞이면, 손해볼까요?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섞이면 손해볼것 하고 있는걸까요?

아니죠?

왜 어떤 매커니즘으로 좋아지나요?

자기 마음의 어둠을 넘어서려고 할 때 빛을 받게 됩니다. 상위차원의 빛을.

그러면 그 빛을 펼치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션하는게 부담이 아니고 저한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도가 세상을 밝히고 내 주변사람을 기분좋게 해주려는 의도자체가
상위차원의 빛을 끌어오게됩니다.

그 빛을 끌어오기 위해 특정 영적 인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필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나의 요구 즉,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고 더 따뜻한 사람 되고 싶어서 이사람을 더 좋게 해주고싶다." 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상위자아로부터 빛을 끌어오는게 되는데 결국엔 모두 그리스도의식에서 끌어오는거잖아요.

"손해본다." 라는 심리가 올라오면 다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뿐 아니라 모든 순간에 베풀고 보듬을 때 "내 손해다" 라는 생각 올라오면

"땡잡았다. 이걸 넘어서면 땡잡는거다." 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다면 한 점도 없다면

이 세상에 있을수가 없어요. 승천하겠죠?

근데 자기가 이기심이 인식이 안돼. 그냥 베풀기만 하는 자신만 인식이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순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인지가 된다.

이거는 내가 속시켜면 더러운놈이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속시켜면 놈은, 자기가 이기적인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거지요.

@@님 같은 경우에는, @@님도 좀 그런편인데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이기심을 자꾸만 밖으로 밝혀내서 글로 쓰지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결점을 고발하는 인격 이거를 버리려고 애써보세요.

수행이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가야 해요.

"나 오늘도 이렇게 예쁘다.", "나 오늘도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게 아니라,

"나 에고가 오늘도 이렇게 날뛴다.", "나 에고가 이렇게 못났다."

이거만 계속 밝히면...

수행을 즐겁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고행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후자를 자꾸
택하고 있는거지요.

에고는 환영이죠? 에고의 목소리는 환영이다 라고 기적수업에서 그러죠?

중용 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거죠. 중도를 지키세요.

너무나 극으로 오가지요. 극으로 가는 건 에고의 술수이고

중도에 있으면 안하던 짓 하던 거라, 에고가 자꾸 불안감을 올립니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또 극 까지 가버리고..

그걸 반복하면서 끝에서 끝으로 흔들리면서 수행합니다.

끝에서 끝으로 흔들리니 감정이 격변하고 괴롭습니다.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을 애써 힘들게 가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견성 후에 백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법 즐겁게 수행할수가 있고 그게 맞습니다.

중도에 맞추고 그리스도의식에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고통에 찢은 무의식 이게 자꾸만 잠시도 행복하게 내버려두려 하질 않는거예요.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려면 고통을 겪어야 뭘 하고 있다고 믿는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습대로 자기를 괴롭히는거죠.

계속 올라고 했지만 감정 청산 하면서 올라는거지 늘상 울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감정청산 할때 말고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수행기를 읽을때도, 그런 말은 안읽힙니다.

"울어라" 이거만 들어옵니다.

감정이 가짜라는 걸 인지하는게 다다수행이죠?

그러면 울면서, 우는 자신이 웃겨야 되요.

"가짜데 빠져서 울고있네 하하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는 자신을 좋아한 나머지 우는 상을 만듭니다.

엄근진이다보니 수행도 처음에 한동안은 엄근진으로 합니다.

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깨어나지 않은 마음은 에고마음이고, 에고마음의 특성은 심한 왜곡이죠.

그러니 글을 읽을때 천천히 읽으셔야 하고

줄을 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읽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거만 골라서 읽는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읽다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이거 말고

자꾸 걸리는 말 있거든요. 아니면 정신이 흐려지는 말, 시선이 여러번 맴돌아

이런거는 저항이 올라와서 그런거니까

그 부분을 표시를 해 두시고 연단을 한 후에 다시 보세요. 그럼 들어옵니다.

기적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렵구란 게 결국 의식교류의 장이거든요.

의식이 좀 더 다른 모임보다 고차원적인 의식을 기본으로 깔아준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의식교류를 채팅으로 하든, 댓글로 하든, 자꾸 의식교류를 해야 합니다.

의식교류란 상대에게 나를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꾸만 자기보다 먼저 수행한 사람들에게 들이대 보세요.

눈에 안보이지만 반드시 이점이 있습니다.

21. 다 집어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참수행터의 특징 : 예고가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영성모임에 갔는데 아무 저항이 없고 편안하다면

그런 곳은 발전을 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수행이란 거둬나는 것이고, 거둬내려면 기존의 나는 죽어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기존의 나가 죽어 사라질때 곱게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나를 바치면 곱게 사라집니다만

그 자발적으로 나를 바치는 것을 배우기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대개 저항을 심하게 겪으면서 가게 됩니다.

저항이 심하게 올라와 있을 때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발전단계의 다음 계단에 올라설때라는 뜻이고, 그 때 자기가 딱 뛰쳐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테면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기분이 들 수 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계급의식이 심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넌 아직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누군가에게 듣게 됩니다.

영성에 대한 엄근진 상이 있는 사람은 카페의 합성짤들이나 왁자지껄한 디코 대화가 거슬립니다.

스승이나 수행자에 대한 엄격한 상이 있는 사람은 다다나 수행 선배들이 스승이나 선배답지 않은짓을 하는 걸 보고 심기가 거슬립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공포감이 있는 사람은 어울려 놀아라 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다가와 강요로 느껴집니다.

이건 엄나사에서만 그런게 아니고, 가만히 삶을 돌이켜보면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은 그걸 무언가를 포기할 핑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 사건이나 말들은 예고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벗어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자기자신(의 무의식)이 원해서 만들어내거나, 상대로 하여금 날 위해 내뱉게 하는 말입니다.

진짱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진짍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하나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못 보고 있던 무의식을 보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수행이 되고, 자기 생각에 속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즉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걸로 보이는 사건이나 사람을 적대시하면 속습니다.

그게 자기가 뭘 버려야 할지 보여주는 고마운 사건이나 사람인게 진실이에요.

넘어설 준비가 되었으니 넘어서도록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 갖고 자기의 상황을 그려냅니다.

그걸 알고 하든(훈련으로 인해 무의식이 의식화 됨) 모르고 하든(무의식을 인지못함) 차이 뿐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나 피해자 같은 건 없습니다.

22. 육체, 감정체, 멘탈체, 에테르체

오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새 글을 써 봤습니다.

먼저 요약을 드리면 작은몸에서 큰몸으로 갈때
육체->감정체->멘탈체->에테르체 순서대로 커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에테르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범위도 크고, 그다음
멘탈체, 감정체, 육체 순인데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몸>은 육체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체를 통칭한 개념입니다.

이 에너지체덩어리가 다다수행글에서 말하는 솜사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지워내야 하는거죠

달리 말하면 <영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이 4개 에너지체의 합체,
솜사탕입니다.

우선 좀 아셔야 할 점이, 기존에 유체이탈이나 아스트랄체에 관해 설명해 놓은
책들은 주로 서구권에서 왔고요,

이들은 개체성과 공간개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에너지장을
개체화된 공간적인 개념으로 구술해왔는데,

한마음 이라는 개념 아시죠?

이런 개념이 서구권에는 없기에, 개체로 구술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에너지장이란, 에너지장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왜곡된 개념으로, 사실은
그냥 의식, 마음의 착각입니다.

의식이 자기자신을 의식하는 일부분이 개별 에너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남들 에너지장 읽고 남의 마음 되기도 하잖아요? 개체의식을 벗어나
전체마음으로 접근이 되기에 사실상 에너지장이라는 개체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겁니다.

만일 에너지장이라는 개체 개념이 존재하며, 이것이 일부 영성존재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칩시다.

승천마스터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존재가 어떤 개별화된 에너지장이라고
치면,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 영적 에너지장을 가진 개인이 있다면,

그와 특정한 물리적인 공간범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에게 의식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오픈톡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걸 보셨고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데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어떤 예술가나 가수가 노래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듣고 감동한다는
것만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의식변화는 의식, 마음이 자기자신을 확장하여 인식하였다 라는 뜻일
뿐이거든요.

그것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개체속에 갇혀 있으니 개체에서 개체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다만 의식,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지각하는 지각범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저 의식이 자기자신 전체를 한번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된 일부분만 지각하고 있을 뿐이고

의식, 마음은, 자유롭지가 못하기에 자신을 통합하여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자신의 전체를 볼 의도를 내고 있지 않은 것이예요.

의식, 마음은 일부만 지각하려고 집착하고 있으며, 그 집착은 두려움에서 파생된 것이며

만일 자기자신을 하염없이 사랑한다면 자신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자신을 통으로 인식하게 될겁니다.

의식, 마음은 바로 그래서 신성이 아닌 겁니다. 편향된 지각이니깐요.

자유를 얻지 못한 마음의 일부분은 두려움 그 자체이며

의식, 마음의 이러한 속성은 마음, 의식을 경배하는 서구권 문화로 인해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참수행이란 이러한 두려움에 찢은 의식을 자유롭게 해주어

분리된 것 즉 자기가 보고 싶어하던 것만을 지각하는 방식에서 점점 자유롭게 무엇이든 지각하게 해주어

궁극적으로는 마음 전체를 통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분리된 일부분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게 공간이 되고, 그걸 더 멀리 놓고 보면 시간이 되고, 그 분리된 일부분에게 정체감마저 두게 되면 그것이 개체성, 영혼이 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풀어서 알려주는게 우사, 기적수업이고

의식에는 시공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스트랄체가 유체이탈하여 아스트랄계 가서 논다

라는 개념은, 아스트랄체 혼자 에너지장에서 빠져나와서 공간이동을 하는 그런게 아닙니다.

의식, 마음이라는 큰 개념이, 개체화된 자신이라는 착각을 의식하고 있으며
의식, 마음은 원래가 신성이었기에 아주 강력한 신성의 창조력을 가지기에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그것에 집중하는 의도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곡된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기에 고장난 기계가 고장난 것을 만들듯
궁극적인 변함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붕괴할 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뭔가 있고 그게 어딜 간다라는 착각이, 개체라는 정체성마저 부여받은
입장에서 보면

마치 개체가 어딘가 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걸로 보일 뿐,
실제로는 모든 게 큰 틀인 마음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마음, 의식은 신성이
아닙니다.

신성이라는 정수에 지각을 하는 속성이 부여되어버리면 그것이 마음, 의식이
되는 것으로,

지각을 하려면 이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이것을 지각하게 되잖아요?

즉 마음이 선별적으로 무언가를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 의식이 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음이란, 마음이란 게 분리된 지각이 더해진 개념인데,

그 분리를 통합한 마음, 즉 신성과 가장 가까운 단계로 회복한 마음,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이성>을 뜻해요.

기적수업에서는 <이성>은 바른 마음을, <지각>은 미친 마음을 뜻하고, 마음
자체로부터 벗어나면 영 이라고 해요.

모든 에너지장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의식, 마음이 자기자신 전체 중에서 일부
부분만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믿으면 그걸 실제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 만들어낸 것이 있다고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있게 되며, 즉 어떤 개체가 있다는 의식마음이 개체성을 만들고, 그 개체가 가서 놀 곳도 있다고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가서 놀 아스트랄계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있다고 믿으니까 있게 되는 것인데, 없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주가 사라지는 것이죠. 인식, 지각 가능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깨닫는 주체는 마음이지 개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각하는 자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것의 시작은 개체인 나임에도 완전히 깨달으면 그에게는 우주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동양철학이나 뭐 장자라든가, 불교 교리의 기본기가 있다면 기적수업 받아들이기가 더 쉽고

서구권 뉴에이지나 각종 서구권 영성정보에 익숙했다면 받아들이기가 좀 더 어렵게 됩니다.

이걸 승천마스터 정보에는 마치 엘로힘이 지구를 만들고 다른 맵을 덧붙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서구인인 김 마이클스의 멘탈체를 통과해 나온 왜곡된 정보로, 우주에 대한 시공간적이고 협소한 개념이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불교라든가 천부경, 기적수업에는 일관되게 절대일원론을 말하고 있으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환영이기에, 영속하여 만들어져 계속되는 것일 수가 없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진짜 공간개념으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 개체가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지금 어떤 환영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환영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개체도 시간도 공간도 모조리 환영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설명은 편의를 위해 개체화된 에너지체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스트랄체는 꿈꿀때 주로 움직이고, 유체이탈하면 나가게 되는게 아스트랄체라고 보면 되고, 감정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각몽중에 흥분하면 꿈이 깨어버리고,

감정컨트롤이 잘되어야 꿈을 원하는대로 꿀수가 있는 거고

감정체가 닦여야 아스트랄계에 갈 때 상위 영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의 아스트랄계하고 연결되어있는 건 원래 항상 그런건데,

밤에 꿈속에서 아스트랄체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늘 아스트랄체가 있는데,

육체가 휴식하게 되면 감각정보가 들어오는게 덜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아스트랄체만 남는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대낮에 망상이나 백일몽에 빠지면 눈 뜨고 꿈 꾸는 거 같죠?

그럴 때가 깨어 있는데도 아스트랄체가 아스트랄계 가있고 그걸 수신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발명가 등은 그런 아스트랄체의 수신이 원활하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거랍니다.

상위 아스트랄계는 고차원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꿈에서 자주 보는 도서관이 그런 아스트랄계의 정보 저장소랍니다.

아무튼 꿈에서 지구 아스트랄계 여러군데 중에 한 곳에 가서 놀고 있는거고,

여기는 지구의 물질계 맵이 없는 곳이니깐, 꿈이 말이 안되게 느껴지는 거지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여기서 어느정도 에테르체가 정련이 되고 나면 어떤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숙소 꿈을 꾸는거고, 여기 사람들이 지구상의 어떤 특정 아스트랄 영역으로 밤마다 가게 되기 때문에 꿈이 갈수록 정련되고 서로 일치도 되는 거고요,

즉 지구의 감정체가 지구 아스트랄계인 건데, 행성의 의식이 개인의 의식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식입니다.

개체속에 저장된 정보보다 지구에 살면 지구 에너지장의 영향을 억수로 마니 받게 돼요 비교 불가능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거기 사는 주민들이 겪은 감정들이 지구의 행성 아스트랄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었나요? 거의 지옥도라고 볼수있죠.

사람이 자기 감정체안에 지저분한게 많을수록 이 행성 아스트랄계와 공명하게 되어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어 인생에서 우울감을 많이 겪게 되고 습관을 거스르기가 힘들고 그렇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무의식이란,

내 에너지체들 속에 들어있는 것과 지구의 에너지체의 내용물 중 서로 같아서 공명하는 부분만을 개체가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체 속에 악몽이라고 부를만 한 지각된 정보가 많을수록 지구 무의식의 심해의 밑바닥에 접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민족, 한 많은 민족이라 지구의 의식장에 그만큼 큰 영향도 줄 수가 있는거지요.

만일 에너지장 크기가 작고 쌓아온 재료가 적다면, 지구 에너지장에 접근가능한 규모도 작아지기에 영향도 적게 줄 수밖에 없는겁니다.

고통을 재료로 빛으로 바꾸기 위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며

단체 작전으로 동이족은 이 작전을 위해 육신마저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동이족은 두개골 정수리에 머리판이 하나 더 있어서

백회가 열린 후 빛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이고 두개골 얼굴 앞쪽 눈 아래에 숨구멍도 더 나 있습니다.

영적 자각하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멘탈체는 정신적인 제어, 의지를 주로 관할하고,

에테르체가 사실상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으로, 승천마스터들은 ‘자의식체’라고도 부르는데,

영혼이 환생하면서 자아의식이 있을거아네요, 그런게 저장되는것으로, 즉 경험정보가 저장되는 곳이죠.

고급 개념의 자아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림 잘그려, 나는 나이 몇살먹은 김아무개야, 나는 성격이 이래 이런거.

이거를 오오가 준 그림에선 백 이라고 죽으면 흩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좀 틀린 정보이고, 영혼이 환생을 하면서 이 정보를 계속해서 에테르체 안에 저장을 해요.

영혼이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습대로 한쪽으로 편향적인 반응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카르마를 많이 쌓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환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심하면 자동적으로 자석 끌리듯이 끌려가서 정신 차려보면 이미 그 몸으로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관성같은게 있는거예요, 에테르체에 뭐가 저장되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욕 하는 성격으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충격과 죄책감을
에너지체 속에 담고 있다면

죽은자들이 모이는 영역은 아스트랄계 즉 영계인데, 이곳은 생각하면 바로
자석처럼 끌려가는 곳이에요.

자각몽 꾸면 생각하면 바로 눈앞에 뭐가 이뤄지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생각의 영향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삶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동으로 그런 삶이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느끼게 되고 환생시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사에서도 같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 성령들이
게리한테 보여줘요.

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우사 짚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바로 자석처럼 끌려가는데 어떤 이는 지구에 육화한 목적이
지구 의식장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을 명확한 의식수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혼들은 이미 그 영혼체 즉 에테르체부터 남들보다 정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스트랄계에서 자석처럼 끌려가는 다른 영혼들과 다르게 세세하게
영적 계약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미 에테르체 내에 신적 자아와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 원주민이 아니다 지구 원주민과 다르게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지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지구에서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온 존재들이다 라고 품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페페가 꿈 중에 모스크 양식의 건물 안에서 다다가 웨딩플래너였던 꿈은 그런 연결된 존재들의 하위자아를 내려 만드는 일종의 작전과정을 본 거랍니다.

현재 지구 특히 한국에 육화한 사람 중 다수가 사실상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작전팀이며

원래 에테르체 자체의 규모가 크지가 않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계약을 거스를 수도 있거든요?

지구의 의미가 영혼계약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집착이고

영혼계약은 말그대로 영혼의 계약이지,

가장 높은 자신의 신적 자아는 그 마저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상위자아와 소통통로를 확립해서 상위자아의 뜻에 영향을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거슬러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여기 온 모든 영혼이 해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꾸 영혼계약을 들먹이는데 저 역시 그 계약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면서 영혼의 집착을 다루어야 벗을수도 있으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물질육신, 아스트랄체, 멘탈체, 에테르체 순서대로 점점 크기가 커지고 상위개념이고,

코잘체는 그거랑 별개로 상위자아를 코잘체라고 부르더군요. 인과체라고도 부르고. 이 코잘체라는 개념은 승천마스터들이 말하기로는 신성의 한 개체화된 측면이라고 하며 이러한 코잘체와 영혼 사이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식으로

그리스도의식은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인 영과 구체적인 개념인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했어도 그것도 버리고 영만 있는 곳으로 가면

그게 우사나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천국이라 부르는 그것인것으로

기적수업에서 성자단 이라는 개념 있죠?

개체화된 신적 자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을 성자단이라는 복수개념으로 부를 수 있겠지요.

지구에서 아무리 수행을 해봤자 지구 아스트랄계가 너무 더럽고 그 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식의 성취 이상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승천마스터들은 주로 그리스도의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우사, 기적수업은 그거도 넘어서 변함없는 천국의 영역으로부터 말을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에테르체는 자아의식을 주관하며 영혼은 원래는 환생을 거듭하면서 자기자신을 왜소하게 알고 있는데,

기적수업이든 승천마스터 정보든 신성과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게 되면

에테르체 즉 자아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에테르체가 영혼에게는 가장 크고 포괄적인 에너지장이기 때문에,

그 에테르체가 코잘체 즉 신적자아, 상위자아인 천국의 저장소(모든 경험정보를 영으로 변환하고 귀하고 값진 고차원적인 정보만 남겨서 코잘체에 보관)로부터 상위차원의 빛을 주입받을 때,

사실 늘상 빛이 주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신적자아와 일치하여 정렬이 된 에테르체일수록 하위 에너지체에 더 많은 빛을 전달해주게 되는 개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위 에너지체 여러개속에 빛이 들어오기 힘들만큼 거의 다 막혀 있어서 빛은 대부분 소실되고 있고요.

풍삶 책에서 이걸 놀랄만큼 설명을 잘해놓았고, 사실 이부분때문에 이책을 추천드린거예요.

에너지장을 핑퐁게임판처럼 생각해보고 빛을 은색구슬이라고 치면,
구슬을 여러개 출발시키지만 장애물 때문에 구슬이 도달하지 못하고
막히는것이죠.

(에테르체 내의 장애물은 왜소한 자아의식, 멘탈체내의 장애물은 왜곡된
생각의 틀, 아스트랄체내의 장애물은 충격등으로 인해 에너지체가
조각나거나 감정적 상처)

그러면 하위 에너지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들다가
물리적 육체까지 구현되어 나오는 빛은 사실상 거의 없게되어버려서
겨우 숨만 붙어 살고 있고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에너지체안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구슬이 더 잘 굴러가겠죠.

물질체까지 빛을 구현하게 되면 눈에는 안보이지만 그 빛이 환영창조의
재료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되는것이죠.

이걸 풍삶에서는 빛의 헤르츠로 설명을 해요. 이를테면 20000 수치의 빛이
에테르체 감정체 멘탈체를 통과하여 육체까지 나올때 2000이하로 떨어진다고,
소실된다고 그래서 그 빛의 순수성이 약해져서 물질적인 것밖에 구현을 못하게
되고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운동으로 육체를 단련하면 주로 의지력을 관장하는 멘탈체에 영향을 줄테고

이건 작은데서 큰데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죠.

에테르체를 변화시켜 신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깨달으면 큰데서 작은데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고

연단이 멘탈체단련, 기적수업 워크북이 에테르체 단련이라고 봐야겠죠.

감정청산은 주로 감정체(아스트랄체)에 영향을 주고,

두루두루 하는 편이 더 효과가 있을수밖에 없겠고...

연단을 원하는 이유는 멘탈체가 닻임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계약내용이 기억이 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정체가 요동쳐서 저항이 심하게 올라올 때 연단을 하면 감정체보다 상위차원의 에너지체인 멘탈체에 통하는 빛이 많아지고 이것이 감정체로 흘러들어와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거고요.

*풍삼 :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핵심열쇠 책으로 우리 모임에서 부교재식으로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23. [돌고래] 0817 기택강독 - 참수행의 시작과 질의응답 1

2022.08.17 기택강독 (1회)

기적수업 읽고 계세요?

오늘 첫 날이라 기적수업 나오는 어려운 용어 설명하고 질문 좀 받고 하려고요

네 우사 읽으신분?

네 우사 먼저 읽는편이 나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영성판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진리는 왜곡, 곡해를 많이 당합니다.

우사나 기적수업도 인터넷 괜히 뒤져보지 마세요.

온갖 이상한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이 작년 11월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후에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지난 글들을 보면 아신테니

제가 보장하는데 기적수업과 우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장감이 안되면 사람들이 3,40명이 변해온 것을 보시면 될거고요

일단 기적수업이 텍스트하고 워크북으로 되어 있는데

영성 파고 기적수업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우사는 성경 몰라도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것을 받아들일 적에 이해가 왜 안가는지 잠시 설명 드리면요

원래 상식적으로 아이의 뇌와 성인의 뇌 중에 무엇이 더 이해를 잘하나요?

네 성인 뇌가 훨씬 발달 해 있습니다.

뇌회로도 다 완성되어 있고 뇌의 발달을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청년기 거치면서 뇌회로가 많이 보완되니까요.

근데 왜 어른이 이해를 더 못할까요?

네 이미 알고있다 라는 것도 막기도 하고

뇌가 수신기거든요?

뇌가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람이 각자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에너지들이 뭉게 뭉게 번쩍 번쩍

그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뇌에서 감지를 하는거고

또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신호도 감지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생각은 원래 우리가 가진 에너지

더하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에너지의 합산인건데요

뇌가 무언가를 보고 뇌가 보는게 아니라 실은 마음이 보는거죠?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전기신호입니다.

그럼 이 전기신호를 뇌가 수신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 이해하고싶어.

라고 하면 이미 세번의 파동이 번쩍거렸습니다

아 모르겠는데? 이게 뭘소리지?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에너지파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받아들임을 방해하고 있는것이에요

재밌죠? ㅎㅎ

사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싫은 마음을 쓰고있는거랍니다

이건 왜그러냐면요,

우리의 본래 존재는 모든것을 다 아는 존재예요.

모든 걸 다 그냥 알아요.

근데 잊은 척 하고 살아요.

그래서 기억을 좀 살려 줘야 되는 건데요,

기억을 살리려고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자기 본질을 잊은지 너무 오래돼서 자기 본질이 끔찍한 존재인줄 알아요.
진실은, 그저 순수한 존재지요, 사랑스러운 존재.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뇌에서 수신이 될 때는
모른다, 이해안간다, 알고싶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알면 안되니까. 몰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 밖에 없어서요
사랑은 받아들임과 용기이고 두려움은 외면과 회피입니다.

글서 우사든 기적수업이든 보실적에
아 모르겠네? 어려워. 이해하고싶다 라는 생각 올라오면
그냥~ 글자 구경 하자~그냥~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세요 편하게...
모르면 뭐 나중에 알아지겠지~

그담에 종교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서
네 그렇죠
기적수업 생긴 거 부터가 지적인 욕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온갖 갑론을박 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많습니다.

근데 기적수업은요

예술품 입니다

시를 분석하면 아름다움을 못느끼듯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를 읽을 때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기적수업이 가슴으로 느끼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가 두려운 나머지

가슴 달아놓고 머리만 쓰면서 산 지 오래 됐어요.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도 가슴이 막혀 있어서 돌덩이 올려놓은 것처럼...

이르테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거도요

여러분들께 글씨는 보입니다.

대충 이해도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각자 가슴이 열린 정도에 따라 달라요.

어떤사람은 제 말이 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적인 생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석 하게 됩니다.

다다가 저번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엔 이게 저거라고 하네?

아.. 왜 다르지?

헛갈리는데?

네 중요한것은 제쳐두고

사소한 모순과 사소한 불일치가 먼저 보입니다.

가슴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런게 보이지 않고

아 다다가 이렇게 자기 시간 써가지고

되든 안되든 설명을 하는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두 사람의 수준이 차이가 크겠죠?

전자는 받아들이고 있는게 아니지요 따지고 있잖아요.

후자는 상대방을 예쁘게 보니까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처럼 기적수업이든 우사를 보실 때

지적으로 따지는 생각이 올라오면

아 이렇게 뭐든지 따지는 생각 때문에 내 뇌가 엄청 바빠서 내가 늙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안 따지면 안 늙어요

▶ Q : 진짜로 생각하면 늙어요?

진짱니다

뇌가 바쁘면 호르몬 분비도 잘 안되고요,

네 참수행을 잘 하셔서 가슴을 열고 살면 남보다 덜 늙습니다.

네 맞아요

주변에 지성인일수록 오히려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 하지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은 탕탕하고

네 신경쓰고, 걱정하고 하면 늙습니다

생명에너지가 있는데요

그게 몸에 잘 돌지 않고 뇌에서 걱정, 근심하고, 따지는데 쓰고있는 것이라서

그런데에 안쓰면 몸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지적인 분석, 이게 영성을 자기꼴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구도자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지적으로 분석하고픈 욕구를 만족시키느라 혈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성책이 집에 한두권만 있지 않죠?

한권 보면 세권 보고싶고 세권 보면 어느새 열두권 되어 있습니다

열두권 보는 동안 인생은 별로 안 변해있죠...

지적으로 분석은 왜 빠지는지 아세요?

뭔가 얻는게 있으니까 분석 피곤하게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사람이 절대 자기에게 이익이 안되는 일은 안합니다.

겉보기에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는 일이 그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24. [돌고래] 0817 기택강독 - 참수행의 시작과 질의응답 2

(위의 글 이어서)

지적 분석을 할 때, 우월감을 쓰게 됩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 재는 저래서 틀렸고

우월합니다.

내가 따지고 있는 동안은요.

영성을 추구한다는것은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것이고 자기 주장 욕구를 버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구도자들이 오늘은 @@ 유튜브 내일은 법륜스님 유튜브
오늘은 초인생활 내일은 뭐.. 영성책 하도 많아서..

(전 @@ 보진 않았고요 법륜스님은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가슴이 안열리다 보니 머리로 따지고 살다보니

그렇게 따지고 지적추구 하는 것이 영성을 향한 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못 보니까...

자 다시 말씀 드리면요,

우월감 쓴다는 거는 마음 속에 계급 의식이 있다는 뜻이죠?

애가 재보다 낫고..

재는 애보다 못하고..

높낮이가 있고 불평등합니다 서로...

그리고 우월감 써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열등하다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시면, 이 지적인 분석에 끌려가는 마음을 버릴수가 있습니다만
열등감이라고 보통 인지를 못하고

영성 추구 중에서도 상당히 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책도 상당히 지적인 영성추구가 있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변에 사람들 보면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있고

일요일에 쉬는 날에 낮 12시까지 늘어져서 낮잠 자는 사람 있고

8시부터 일어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서 하루를 잘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죠?

직장에서는요

자기가 어떤 입지를 꼭 가져야 하고 일 못한다 소리 들으면 죽어야 하고

왜 그럴까요?

못나면 왜요.. 못나면 죽어야 합니까? 못나도 그냥 살면 안됩니까?

계급의식이 심할수록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영성계로 오면 뭘 하겠습니까?

미친듯이 영성저능아가 안되려고 애쓰겠지요?

영성에서도 저능아 되면 죽어야 한다

네 온갖 영성 지식을 섭렵 합니다.

재밌죠? ㅎㅎㅎㅎ

근데 진정한 영성의 길은

좀 못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쵸 머리로는 알죠

근데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도 가슴이 꽉 막혔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

한

민족입니다

한스럽다

가슴이 꽉 막혔다

네 그럼 가슴을 뚫어야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물 마시고 연단하고.. 운동도 더 하고.. 울어라.. 소리
질러라..

서구인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면요

우사는 서구인 기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정 이라는 개념 아시죠

지금은 한국사회에서도 도심에선 거의 사라진 개념입니다만

정신 이라는 말 아시죠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외국 말 하고, 한국 말 마음 하고 서로 뜻이 다른 거 아세요?

mind 라고 하면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담에 의식, 이걸 영어로 해도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안됩니다

마음이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뇌. 뇌가 답답해? 이러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죄책감을 느낀다 정도로 바꿔 말하지요.

사람은요

가슴자리에 신과 소통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통 통로가 한국인이 훨씬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감동, 정, 정신 이런 문화가 외국엔 우리보다 좀 약합니다.

그러면 크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는 마냥 좋은것은 아니에요.

마음 자리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탱크 있다고 칩시다.

물탱크 주르륵 20개 있습니다.

어떤 물탱크는 크고 어떤 건 작고요.

어떤 물탱크는 입구가 작고 어떤 건 입구가 대따 큼니다

자 하늘에서 쓰레기가 막 떨어져요.

어느 물탱크에 쓰레기 많이 찰까요?

입구 크고, 덩치 큰놈이 쓰레기 젤 많이 가져가죠?

이게 한국인입니다.

쓰레기 많이 차 있으니 매사 열받지요?

주변을 보면 고깝게 뭐든지 안보입니다.

'화병'이라는 단어가 있는 종족이어나요 우리

지구 에너지장에는 지구인들이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온 사념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건 인간의 개별 에너지장이 자기가 만든 카르마들을 저장해놓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행성카르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자동으로 바보됩니다.

자동으로 좀 병신같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너지장이 큰 사람들은

그 행성카르마를 더 많이 감당을 하고 살게 됩니다.

▶ Q : 감정 청산은요?

감정 청산을 할 때 지구에 쓰레기 던져넣는게 아니고

감정청산을 안 하시면 에너지장 속에 있는 재료로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전파함으로써 쓰레기를 더해 주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감정청산을 하면 자기 에너지장 속 밖으로 전기신호 보낼 재료를 없애고
있는거라서 지구 쓰레기 치워 주는 겁니다.

네 감정을 좀 쏟아서 버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다 도심에 사시니까

코인노래방이라든가..

차 안에서 하시거나..

▶ Q :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네 무섭죠 그 생각

막 살기등등하자나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면 그 살기에 기반한 생각을 밖으로 계속 쏘게 됩니다.

음악연습실도 한시간에 몇천원 주는데 괜찮다고 하더군요.

코인노래방보다 마음 편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거 정리를 하면

고차원적인 진리를 접할 때 자기 에너지장 속 카르마가 방해를 합니다.

자꾸만 모른다, 이해하고싶다, 이해해야돼, 어려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 내려놓고...

근데 생각이 잘 안 내려 놓아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동을 땀세게 하면 땀으로 그런 파동이 배출이 되어 나갑니다.

일시적으로 고요해지니까 좀 더 잘 받아들여 집니다.

연단도 매우 좋고요,

네 고차원적인 진리는요

빛 입니다.

우사, 기적수업 보면 흥미하고 졸린대요 침에

그 고차원적인 진리, 즉 강한 빛을 접하면

그 빛은, 가짜인 것을 깨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기적수업 읽자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라서 내 에너지장 파동들을 분해 하게 됩니다

강한 빛을 비추면 물감이 분해 되잖아요?

색깔 바래자나요?

그런 것처럼 자꾸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거랑 별개로

내 에너지파동체가 요동치며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걸 어디로 빠져나가요?

육체 뿐 아니라 에너지장에 있는 차크라들을 통해서 밖으로 버려집니다.

차크라가 아주 많습니다. 7개만 있는게 아닙니다.

144개 있다고 합니다. 초한들 말에 따르면

제 경험에 따르면 차크라 뚫릴 적에 온몸이 다 뚫립니다

마치 기운이 혈관을 돌며 모든 통로를 쏘아서 뚫어주는 것처럼 온몸이 다 뚫려요.

차크라가 아주 많습니다.

아프진 않은데, 하나하나 다 느껴져요.

네 그러면 보통, 기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고차원적인 빛을 접하면

나가는 통로가 좁은데 나갈거는 많지요?

그러면 기가 막힌다, 기운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 시스템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아 힘들다

셋다운, 자라

미친듯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자버리면 계~ 속~ 자게 됩니다

일어나서 몇줄 보고 자고 또 일어나서 몇줄 보고 자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기혈을 뚫어야 하는데 기혈은 어떤 매커니즘으로 뚫리는지 아세요?

25. [돌고래] 0817 기텍강독 - 참수행의 시작과 질의응답 3

(위의 글 이어서)

사람의 몸은 믿음으로 구성이 된겁니다.

몸 있다는 믿음이 몸을 그려 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의도가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출릴때 계속 자면은

기혈 더 열 필요가 있다는거예요 없다는거예요 내 의도가?

그쵸 별로 절실하지 않은거죠?

알아서 해줘~ 하고 냅두는거지요?

하하 네 저랑 이야기 해도 흥미하거나 졸린분들 계시다고 그래요.

세션 하면 졸리는 분들 많습니다.

배고픈 증세도 네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졸리다

그러면 그때 해야 할 일은 자는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야 되죠!

네 머리도 아플수있습니다.

뇌신경이 과민하거나 집안에 중풍, 뇌졸중

아니면 평소 일하는게 너무 머리를 쓰는 업종이다

네 버피 맞습니다

버피 딱 1분 하면 졸음이 깨고요,

2분 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버피를 1분간 미친듯이 하면 2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30분이나 걸리니까요 하하

연단은 매일 정신 유지용으로 하고

참수행을 할 때는 뻥뻥 운동이 없으면 사실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지만,

근데 너무 졸리거든요...

정말로 미친듯이 미친거처럼 졸립니다.

저도 뚜껑 따기 전에 한 달가량

죽을거 같은 졸린거 참고 운동 개뻥시게 해가지고 땀거예요.

네 그렇죠

졸릴때 1분 혹은 2분 개뻥세게 하면 정신 딱 듭니다

네 자기의 의지가 자기 몸에 명령 하는거예요.

운동하면 피가 막 돌자나요?

그리고 물 있자나요

물을 많이 드신 상태가 몇 달 이상 되면 모든게 다 버틸 만 한데

문제는 만성탈수예요.

몸이 충분히 물이 많은 세포가 되게 만드는 데 1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물을 마니 마시기 시작하면

세포벽이 다 구멍이 나 있기 땀에 몸 안에서 물이 줄줄 샅니다.

화장실 엄청 자주 갑니다

물 마신 거 다 나와 버리는 느낌이에요.

침에 한달은 그렇습니다.

천천히 세포벽이 복구가 되면서 조금씩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담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Q : 커피, 차 등 음료에 대한 질문

커피는요

몸에서 독으로 인식을 합니다.

커피 정 드시고 싶으면 강 인스턴트로 드세요.

에스프레소가 젤 심합니다.

네 차라리 믹스를 드세요 네 카누라도,

에스프레소가 제일 심합니다.

커피는 심한 탈수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인체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요.

디카페인도 제가 실험은 안해봤습니다.

차도 안좋아요.

그니까 이거는 제가 빠른 수행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고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제안만 드리는 것이고

모든건 여러분이 다 선택 하시는 거죠?

그런데 빠른 방법을 알려 드리면

순수한 물, 미네랄 워터만 드셔 보시면 몸이 아주 빨리 좋아집니다

여건이 되면 알칼리 이온수기를 들이시면 좋습니다.

음료 있자나요?

현대의 거대한 음료 산업 이거는요,

사람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 집단이 있습니다 지구에. 아시죠?

이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게 현대 음료 산업입니다.

생과일 주스는 권장입니다.

커피와 음료 그냥 몸에는 독이다.

네 꼭 @@@@@ 뿐 아니라..

거대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 영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과 연결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차 종류가 좋지 않습니다.

▶Q : 사람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왜 그런짓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 한테 행복하면 자기들도 좋을텐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면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능력을 잃은 자들이라 행복을 못느껴요

음료 뿐 아니라 식생활 쪽도 다 잠식이 되어 있고

식사는 어떻게 망쳤냐면,

동물을 사람이 먹는 것은 원래 나쁜 일은 아니랍니다.

동물계는 사람에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계가 동물계에게 먹혀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고기는 몸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나쁜것이 아닌데,

고기를 키우고 죽이는 방식에 심각한 카르마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축산업계, 도축업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면 되도록이면 동물복지 풀어놓은걸로 드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축방식이 비인도적이라

몸에 에너지장에 쌓이는 카르마 파동을 다 막을수는 없습니다.

가금류 드시고 싶으면 오리 고기를 드세요.

그건 좀 낫습니다

닭은 심합니다. 카르마 파동이

저는 고기 음.. 베이컨은 가끔 먹습니다.

비건은 아니고요,

생선도 안좋고요,

우유는 몸에서 독성물질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수행이 되시고 기혈이 마니 열리면요

뭐가 몸에 좋고 나쁜지 먹으면 몸에서 바로 뱉어 내 버려요 ㅋㅋㅋ

안좋은거 먹으면요 ㅋㅋㅋ

네 맞아요 은수저 됩니다.

몸에서 맑은 기운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기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몸이 너무 오염 된 나머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에

술도 물론 독입니다.

술은요,

인체는 원래 술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알코올을 인체에 넣는 것은 이상한 짓입니다.

네 그냥.. 현대인의 식생활은

다 독을 먹고 있구나

식품첨가물도 독성이 심하고

아스파탐은 석유에서 추출한 독성물질입니다.

수행하려면 아스파탐은 피하세요.

와인은 모든 술 중에 그나마 낫습니다

술 드시고 싶으면 와인이나 차라리 막걸리를 드세요.

근데 막걸리에도 아스파탐 들었어요.

식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식사를 조심을 안하고 수행을 하면

버리기는 버리는데 쓰레기 집어 넣으면서 버리는거니까 좀 늦게 가겠쥬

그런데 감정청산 마니 하셔서 마니 울고 그러시면은

즉 기혈 좀 열리면요

몸에서 알아서 식생활을 자기가 맞게 바꾸게 됩니다

전에 맛있었던게 맛없게 돼요

네 오늘 기택강독인데 어쩐지 그냥 잡탕으로 이것저것 이야기 하게 되었네요

나름 재밌었죠?

네 (질문기다리는중)

▶Q : 수행을 하면서 계속 "지금현재"를 피하고 싶어서 좋아지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스스로 검열하는 그런맘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진정한 감사를 느낀다면 어찌 수행을 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나..

그건 현재가 싫다는 반증아닌가?

그래서 수행도 회피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자꾸만 들어요ㅜㅜ

만일 정말로 수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지금 현재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런 의심이 안 올라 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갈등하고 의심하는 것은 행복한마음이 아니지요?

그러면 수행이 필요한거죠.

중요한 말이니깐 여러번 읽어 보세요. 위에 말

에고가 여러가지로 속입니다

▶Q : 기택에서 '특별한 관계' 가 궁금합니다

특별한관계란 카르마로 얽혀서

먹살잡고 계속 태어나는 관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Q : 감정청산을 어떻게 구성해서 해야 할까요? 주 몇 회?

감정청산은, 격하게 하시는 거는 한번씩 날 잡아서 하시고, 늘 하시면 당연히 좋고...

하지만 여러분 잘보세요.

수행이라는건 내 마음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효율이 더 좋을거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있게 할까?

감정이 어느날은 마니 올라오고 어느날은 적게 올라오고 어느날은 누구랑 싸워서 힘들고

매일 다른데 그런건 무시하고

감정 청산 일주일동안에 어떻게 구성해서 할까?

의도를 가지되,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 Q : 감정청산할 때 가슴까지 안가고 뭔가 머리로만 우는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하고있는게 아닌거겠죠? 어떻게해야하죠...ㅠㅠ

사람이 올려면, 머리로 우는 건 불가능 합니다.

운다는 거는 몸에서 세포에서 물 쥐어 짜는 일이기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에고가 수행 방해 하려고 올리는 생각이랍니다

자 중요한..말씀 드릴게요..

아래의 말 외워 주세요 호호

수행을 시작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나의 적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생각, 감정, 느낌은 관성이 있고 죽을 힘을 다해 날 방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감정, 느낌, 판단, 주장, 온갖것을 전혀 믿으면 안됩니다.

다 버리시면 됩니다.

마음이 번잡해지면 연단 때리면 고요해집니다.

하루 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되시나요?

안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자나요?

그럼 그 질문 하는 그놈은 누구예요?

모순이 있죠?

모든 생각은 다 모순적입니다.

근데 왜 모순을 바로 인지 못하냐면

그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요.

생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올라오자 마자 버리기만 하시면 안 속습니다.

26. [카페] 1111 갓수저 챌린지 제안

11월 11일은 미겔에서 맘맞는 사람들과 함께 나온 날이지요?

벌써 1년이 되었다니.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억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보세요 ㅎㅎㅎ

믿거나 말거나이겠지만 쌤 소식에 따르면 11월 11일은

1년 중 그날 하루의 생각이 현실로 실현되는 힘이 가장 큰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만큼은 되도록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 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한 것이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대요.

오늘의 드라마 세션 마지막에 해보기로 한 것이 있는데요

내일 11월 11일 하루만큼은 갓수저 기분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재벌아들보다 훨 대단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살기

그리고 하루의 끝에 기분이 어땠는지 후기 써보기입니다.

세션 안한 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내 눈앞의 모든 건물, 사람, 사물, 세상 모두를 내가 만들었구나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선가 이걸 온몸으로 확연히 깨우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경우, 자신이 알던 기분에 대입해 상상하기에

내가 만들었구나 = 내 책임이구나. 뭔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않을텐데,

실제로는, 신의식이 오면

완전한 자유를 얻은 느낌이고, 전부 내 재산으로 부여받은 기분이고,

아무런 의무감이 느껴지지않고, 홀가분하답니다

왜냐면 세상이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나를 속박하는 족쇄 였지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환영임을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원래 속박이란
없었던 것이기에
무게감이 안느껴지고 무서운게 없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답니다.

현실에 대입해 비슷하게 설명하자면 날때부터 재벌집 자녀인 기분에 그나마
가까워요,
갑질하는 재벌집 말고 사회에 기여하는 올바른 재벌집이요.

신의식을 막 받았을 때의 실제 기분은 아빠회사가 아니라 내가 다 직접
만든걸로 보이는데
즉 내가 하나님아들이라기보단 바로 그 하나님임을 알게되는거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진짜로 하나거든요.
노력해서 어떤 의식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될수가 있는 그런게
아니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날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설명이 좀 힘든
부분인데
기본 정서가, 저사람이 당연히 내가 뭘 부탁하면 해줄것이다
왜냐면 저사람이 내편이고 날 위해 존재하고 날 좋아해줄테니까 라는 느낌이
있답니다.

나도 저사람을 위해 그가 바라는 그 이상을 해줄것이다

왜냐면 나역시 저사람을 위해 존재하니까 그리고 나는 아주 행복하니까
모든걸 다 가졌으니까!

너 이거 가져~ 나는 가진게 너무 많기에 네가 이걸 가져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줄게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니까

이런 정서랍니다.

처음에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주체가 안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여기 지구의 환경 때문에 늘상 이런 느낌을 유지하고 사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잊을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원래 재벌 아들딸인데

경영실무수업 와서 잠깐 안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기분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보시고 어떤지 후기 남겨 주세요~

27. [돌고래] 0831 기택강독 - 시크릿, 카르마 1

2022.08.31. 돌고래 1기 기택강독 2회를 상당부분 편집 추가한 글입니다.

합본 가진 분은 395쪽 볼게요

4단락 6부터 볼게요

너는 실재를 완전히 가리려고 하기에 매우 두렵지만

그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않는다

너는 네가 실재에게 가하려는 일이 아니라

실재가 두려운 것이라는 환상으로 대체한다

그리하여 죄의 책임이 실재가 된다

그 아래 볼게요

5-4

너는 마치 네가 세상을 만들지 않은 듯이 세상을 대하며

꿈이 일으키는 감정들이 네게서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꿈속의 등장인물과 그들의 행위가 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너는 네가 그들을 조종해서 너를 위해 행동하게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네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죄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만족의 허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시크릿 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시크릿은요

이게 잘 되었더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성의 시작을 시크릿으로 하지 않겠지요?

시크릿은 사실 위험합니다 다쳐요

자기 맘대로 잘 안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반대로 해를 입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위에 단락 좀 봅시다

세상을 니가 만든거야~ 이게 핵심인데요

그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지금도 창조력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퍼진 시크릿은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돈 벌자고 퍼뜨린 거고

그 방식대로 하면, 아예 안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창조를 일으키는 그 힘, 그게 이 물리적인 세상에 한해서 종속이 된 힘이에요.

물리적인 세상속에 있는 빛, 더러워진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해지기는 힘든 경우가 많지요.

빛이 어떻게 더러워지냐?

다른 식으로 표현을 좀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있잖아요? 말하는 능력 있잖아요?

꿈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꿈 속에서 하는 생각이나 말은

깨어있는 현생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하고는 좀 딴판인 경우가 많죠?

내가 원래 가진 능력을 꿈 속 플랫폼에서 이상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 빛은요

하나님의 빛은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지 않겠지요?

이 세상도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양자역학 이런거 보면 세상이 빛입자로 구성되어 있자나요?

이 빛입자가, 물리적 우주를 구성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자나요?

근데 이 <뭔가 개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빛 입자 자체가,

하나님의 순수한 빛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혼탁해진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하고 사랑이 없는 약육강식의 물리적 우주를 그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영역이 있겠지요.

여긴 신계의 빛으로만 구성된 절대적인 빛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적수업에 <성자단> 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자단>인 그리스도 연합체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냐?

아니요. 완~ 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데 사는 것처럼 보이냐.

꿈꾸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

자기가 신성을 가진 걸 마니 까먹었다

그럼 당연히 신의 능력을 제대로 못쓰지요.

자기가 신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신이 아닌 존재를 만듭니다.

자기자신이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신보다 못한 빛으로,

신의 세상 아닌 것을 만들어내게 된답니다.

내가 사람인데 사람 아닌 개라고 믿으면

사람처럼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지요?

근데 4발로 걸어다닐거 아녜요?

개라고 믿으니깐요.

그거랑 똑같아요.

시크릿이 왜 안될까.

사람의 에너지장을 흰 구체로 상상해보세요.

에너지장이란, 일종의 수신기, 발신기 이면서 동시에 저장고입니다

영혼이 제3의 눈 송과체 속에 있다 이거 사기고요,

영혼이 바로 이 에너지장입니다.

즉 에너지장이 몸보다 훨씬 큼니다.

왜 이런 사기를 치냐면

원래 제3의 눈, 송과체로 환영 만드는 투사기처럼 쓰는게 맞긴 한데,

거기에 집중하게 하면 영계 귀신놈들이 그 통로로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물질계에 개입할수가 있게 되지요 생명에너지도 빼먹고.

아무튼 이 에너지장 속에 카르마 파동을 많이 쌓아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의 틀, 습

이런게 에너지장 속에 마치 미로처럼 굳어서 형성이 됩니다.

핀볼인가? 그거 뭔지 아세요? 게임기?

핀볼 튕기면, 미로 돌면서 나중에 공 떨어지자나요

이 쇠공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이라고 쳐보세요

쇠공 들어왔어요

미로 통과 해야되죠?

빨리 못가지요

온갖 길을 다 통과 하는 동안 소실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네 탁해집니다, 빛이.

에너지장에 겹겹이 여러개가 있고요

그 안에 다 미로가 있고요. 생각의 틀이나 감정적 상처를 미로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개의 상위차원의 에너지장들을 통과 해서,

이 물질계에 그 빛이 나올 적에는

이미 더러워져 있어서... 올바른 창조를 뭘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 청산도 하고 내 생각의 틀을 마구 깨고 두려운 거도 해보고

그렇게 내 에너지장 속에 미로를 깨부셔서 통과가 잘 되게 하면은

물리적 세상으로 나오는 빛이 양이 더 많겠지요?

순도도 높을것이고.

네 챌린지.

이게 바로 어시스트의 꽃입니다.

저는 챌린지 몇년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수행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못하던거 생각도 못하던거 자꾸 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어야 해요.

삶에서 많은 체험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산속에서 도 닦는 분들보다

훨씬 통찰력있고 균형잡힌 삶을 사는 분이 많지요.

이곳이 물질 밀도가 아주 높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균형에 도달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건 다 도외시하고 아스트랄게처럼 상상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거죠.

종신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 있습니다.

지루하니까 온갖 상상 다 하죠.

그런데 그 상상이 이루어 집니까?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걸요.

감옥 나가고 싶으면 여론 조작, 탄원서 제출, 가석방 노리기 등

물리적인 노력을 하는 편이 나갈 확률이 그나마 있겠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투자 방법이나 돈의 속성에 대해

배우지도 않았고 직접 돈을 다뤄보지도 않았는데

방구석에서 상상만 하면 돈이 어디서 생겨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월급쟁이로 직장생활 해요 상상만 하면서.

최소한 돈이라는게 더 생길 창구라도 더 만들어놓고 상상해야 할 것 아녜요?

상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여기 지구에선 너무나 허튼 것인데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팔아먹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물질계면 엄연히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르마파동이 에너지장 속에

꽂

꽂

꽂꽂

꽂꽂꽂

빈틈이 전혀없이

전혀

전혀 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돌덩이처럼

제가 강조 마니 했지요?

진짱니다.

여러분 살면서 생각이 멈춘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고요~하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는 그런 적이

자기가 의도하면 늘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됩니다.

혹시 좀 고요하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당장 요동칩니다.

그럼 시크릿을 아예 할수가 없는거냐?

할 수는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상황을 뭐 바꾸든가 말든가 할거 아녜요?

오른팔 들어올려 보세요

왼쪽 눈 찡그려 보세요

잘되지요?

내 팔이니까 당연히 내맘대로 되지 그거 안되면 장애인이죠?

내 마음은 내 맘대로 돼요?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못써요?

내 마음인거 맞아요 이거?

지멋대론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고맘이죠.

예고한테 난 내 마음 간수하기 싫어, 니가 해줘.

이러게 했다고 전에 말씀 드렸죠

28. [돌고래] 0831 기택강독 - 시크릿, 카르마 2

(위의 글 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시크릿을 한다고

10억 10억 10억 10억

이러면 온갖 생각 올라오죠?

10억 가지고 되겠어? 집도 한채 못 사겠구만

그래도 너무 욕심부리면 안 이뤄지겠지?

난 지금까지 뭘 한거야?

방구석에서 이거 해서 되겠어?

그래도 론다 번이 된다던데?

내 친구 미영이 개는 돈많은 남자 잡아서 좋겠다

개는 시크릿 안해도 될텐데

이런 생각은 결핍감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고요

결핍감을 더 느낄 환경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져요

반대로 되는 이유이고요

그럼 우리가 창조력이 아까 핀볼기계처럼

속에 미로가 많아서 막혀있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불안, 결핍, 두려움 이거는 창조가 잘된단 말예요?

이건 왜 그래요?

지저분해진 빛이라고 했자나요? 결과가?

그러니 지저분한 건 쉽게 창조가 되고

깨끗한 걸 창조 하는 건 깨끗한 빛인데,

통로가 다 막혀 있어서

깨끗한 빛이 자기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올수가 없으므로

깨끗한 아름다운 환경을 못 만드느거지요.

에너지장 속에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는 것이죠.

▶ Q : 남을 비웃으면 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요?

남을 비웃으면 우주는 거울이거든요? 있는 게 전부 나입니다

카르마란 어떤 것을 하면 바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데에 시간이 마니 걸릴 때 전생 후생 이렇게

생을 아울러 돌아올 때 어차피 시간이 환영이기에,

빨리 돌아오든, 몇생을 거쳐서 돌아오든, 그놈이 그놈인거고

삶 속에서 반복되는거도 윤회이고

태어나면서 몇 생을 거쳐 반복되는거도 윤회이고요.

근데 카르마라는거는 무서운게 아니고요

원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무언가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법칙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네가 꿈 꾸고
있어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걸 고칠 시간을 주는게 카르마거든요?

그래서 몇 생, 혹은 한 생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고 치면, 주제가 같은 꿈을 계속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르마를 아! 꿈 속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탁 깨치면

그 영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으냐면,

인식이 정련되지가 않았으니, 꿈 속 일이구나 하고 깨치는 순도가 높지 않아
그 순도 만큼만 카르마가 지워지게 되는 것이예요.

카르마는요,

자신의 잘못된 인식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거야',

'하나님의 이치에 안맞는 생각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아 내가 이치에 안맞는 생각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울 적에, 죄의식이 너무나 강한 마음이

더 가혹하게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깨우치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는거예요

왜곡된 인식으로 고통과 원망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걸 막아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게 기적수업이고

원래 카르마란, 무서운 죄받음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이의 인식체계의 왜곡에 불과합니다

왜 이토록 카르마가 진득하냐, 왜 이렇게 뻑뻑 하냐

너무 오랫동안 그게 꿈인줄 모르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왔으니 뭉치고 뭉친 것이지요
또한 그의 인식이 꿈 속에 매여 있으니
꿈 속 인식가지고 뭐를 인식을 해봤자 그것을 깰 힘이 없고
꿈 밖의 인식, 올바른 인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인은 화병, 한의 저장고 라고 말씀 드렸고요
지구 전체의 화의 저장고입니다.

사람 개인 에너지장이 있고, 집단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 에너지장은 그 특성이 엄숙 근엄 진지 완벽주의
못하면 죽어야 돼 잘 해야 돼
이걸 영혼이 처리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나는 겁니다
행성의 에너지장이 있듯, 국가의 에너지장도 있거든요?
개인이 태어나면 자신의 성격 즉 개인 에너지장보다
국가 에너지장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남자로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으면
한국에서는 군대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한국인다운 정서라는 것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별 영혼이 이곳에서 그림판 덮어 쓸 적에

의식수준이 낮다면 자석처럼 끌려들어 올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영혼이 이걸 속제로 여긴다는 인식이 있기에
거기 가서 이거 좀 거슬러보자 이런 의도로 오는 거랍니다.

우리 카페가 별 이상한 짤 만들고 엄근진 완벽주의 타파하자
헬렐레레 세상 가볍게 놀자
네 그런거 의도적으로 하는겁니다
진지하면 괴로워요
병맛 좋자나요 남들 웃겨주고요
전 웃겨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귀인이에요

네 그럼 이런 카르마 파동을
이를테면 누구를 미워해서, 그게 습이 되어서 자기 에너지장속에 많다고
칩시다
이러한 카르마파동의 특성은,
하나님의 원래 빛에서 너무나 그 품질이 저하되어서
거의 물질적인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몸으로 이 빛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행을 전혀 안해도 느낄 수 있는 진동은 어떤 게 있어요?

소리의 진동이라든가

화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근육이 부하될 때 부들부들 떨리는 진동 등이겠죠

연단하면 막 떨리지요?

물질몸이 물질이라는 환영을 자꾸 벗어나서 순도가 높아질수록

더 미세한 진동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 빛이 깨부수는 저차원 파동만 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그 빛 자체는, 몸으로 못 느낍니다

물질계를 벗어난 빛이거든요

이거를 주파수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진폭이 크면 저차원의 빛인 것인데

백회 열린 후에 들어오는 절대계의 빛은

진폭이 느껴지지 않고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경전에서 프라나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신계의 빛이죠.

재밌죠?

이런게 사실 상당히 물리적인거예요 에너지장, 빛 이렇게

인지 가능한 범위의 것은 꽤나 물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미워하던 습도 원래의 속성은 빛이자나요?

저차원으로 품질이 떨어진 빛 그거를,

연단을 하면, 내가 내 신경계에 올려주는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싫어도 인식하게 되잖아요

덜덜 떨면서 그걸 인식하고 처리하게 되는 거자나요?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빛으로 낮은 수준의 빛을 인식하는 것이기에

이 두 빛이 서로 만나면 저차원이 빛이 분해가 되든가,

둘이 섞여가지고 고차원 빛의 품질이 떨어지든가,

하야간 해결이 되는겁니다

즉 연단은 한국인 스피드의 카르마태우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르마랑 맞장뜨기.

카르마란 저차원 빛으로 구성된 파동덩어리

저차원 빛은 하나님 빛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

사랑, 평화가 아닌 고통, 그래서 신경계에 고통으로 인지됩니다.

고통을 회피해오다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 Q : 연단은 평생 해야 하나요 ?

인식수준이 뛰어나지면 연단보다, 그냥 명상을 하는 편이
더 파동 분해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연단만이 주는 신체적인 효과도 있고 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어느정도 카르마 파동을 닦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사실 창조가 아니고 환영을 그려내는거예요

여기가 환영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력, 창조의 힘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 뭘 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다운 것을 만들어야 그게 창조입니다.

즉, 사랑을 확장시키는 행위만이 창조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에서는 사랑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욕을 확장시키지요.

차라리 네빌 고다드를 읽으세요.

그는 물질욕을 벗어난 사랑의 차원에서 창조력을 다룹니다.

우리가 세션 에너지워크에서 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확장을 환영세상에 맞는 방식으로 하는 걸 배우는 거랍니다.

29. [돌고래] 0831 기텍강독 - 시크릿, 카르마 3

(위의 글 이어서)

자각몽 뭐 보신 분 계세요?

자각몽 꾸면 그게 오래 지속이 잘 안되잖아요?

아 이거 꿈이네? 라고 인식이 되는것도 얼마간만 인식이 되고

슬~ 꿈하고 섞여서 의식이 흐려져서 그냥 개꿈이 되어버리지요.

자각몽 꿀 적에, 꿈을 자기맘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날아다니든가, 순간이동하든가, 눈앞에서 건물이나 풍경 만들어내고요

이 자각몽은 뭐냐면요

몸이 에너지장이 있다고 했죠?

에너지체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스트랄체 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에너지장 중에서 아스트랄계 라고 있어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꿀 때 모두가 유체이탈을 합니다

네 아스트랄체만 아스트랄계로 갑니다

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이걸 훈련을 통해 의식적으로 해내는 것이고요

자각몽은, 이렇게 아스트랄계 가서 놀고 있을 때,

자기가 놀고 있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스트랄계란 곧 상념계인데요

지구도 사실 상념계입니다만

상념계처럼 안보이도록 물질 맵을 덮어 쓴 곳입니다

그러면 꿈인걸 인지 해야만 자기 맘대로 환영을 바꿀 수 있자나요?

여기도 상념계 거든요? 물질맵을 썼을 뿐.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꿈이네?

세상이 다 내가 만든 환영이네? 인게 인지가 명확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매트릭스를 자기좋은대로 변경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머리로,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뿔속까지 알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식의 각성상태 라는 글 보셨어요?

제 글중에 있는데 그 글에 보시면 신의식이 올때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완전히 내가 만든 것임을 알게되고

그 전에는 사실 내 맘대로 매트릭스를 변경하기가 좀 힘이 들고
그 후에도 아직 남은 카르마 파동을 계속 지워야 합니다.

아뇨, 아름답게 보이는거는 그냥 견성때만 해도 그렇게 되고,
신의식이 오면 이 세상이 내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랩탑도 내가 만들었고
이 집도 내가 만들었고
이 사람들도 내가 만들었고
하늘도 바람도 내가 만들었네 이게 너무 확실해 집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마구 성질을 부리고 위협을 해도
종이 호랑이가 어흥 하는걸로 웃기게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이 안되는 의식이라서 나중에 직접 겪어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걸 알면
어디를 통해서 창조가 되냐면 제3의 눈이 아닙니다
가슴차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뿜게 됩니다
창조의 포스 자체는 가슴 차크라를 통해서,
그 창조를 이 환영세상에 맞게 어떤 이미지에 투영할 때
그 이미지는 이마 차크라,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곳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왜곡된 세상속에서 세상의 의도를 벗어난
하나님다운 올바른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가슴 차크라와 이마 차크라가 제 기능을 해야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다 꿈 꾸면 다다가 가슴 열어보죠? 꿈에서
그게 이런거 보는 거고요
네네 가슴을 열어라 세션에서
막혔던 가슴을 마음으로 여는 그런 걸 합니다

▶ Q : 가끔씩 벅차오르는 행복감은 뭘까요?π

벅차오르는 행복감은, 자신의 에너지장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게 원래 있던 하나님의 빛과 결합할 때,
내 신경계가 그걸 인지하는 것이예요

감정 청산 제대로 하면 갑자기 확 행복해지곤 하죠?

뭐를 치웠으니까 빛이 마니 들어와서

내 에너지장속에 원래 있던 미약한 신계의 빛과의 결합도 마니
이루어지는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맘대로 된다 라는거는

이를테면 지금 여기 우리가..한 20명 오셨나요?

자 지금 20명 왔는데 마음속으로 둥글게 원을 그려서

손을 덩석! 잡아 보시겠어요?

이렇게 했을때, 밝은 마음으로 덩석 잡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래도 모르는 사람인데... 쭈뼛쭈뼛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상상인데도 꺼려질수가 있어요

상상인데도 자기 의도대로 하질 못하는 거죠.

상상인데도 의도대로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상, 생각이라는 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기에, 그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엔 옆사람 덩석! 안아보세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 들지요?

자 이렇게 누구를 만지고 안는거가

마음 차원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섞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싫어하는 분은 없죠?

마음속으로 예수님 안아보세요 덩석

기분 좋아지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 가슴이 열린 만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그분의 의식장에 우리가 접속을 하는거예요.

상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상상은 너무나 이 꿈속에서는 사실이고요,

상념계에 매트릭스 물질맵을 씌워놔서 눈에 당장 안보일 뿐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크릿 진짜 올바른 시크릿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도관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올 도관

파이프, 통로…!

수행 하면서 조금씩 통로가 생기다가

영적 자각을 거치면서 자꾸 도관이 커지고

나중에는 에너지장 전체가 도관이 됩니다

네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 때,

내가 그 빛에 마음으로 감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지화 하면 그게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크릿하고 다른점은

시크릿에서 상상을 해봤자 행복감은 잘 안들거든요?

에너지장 속에 고통이라는 감각을 올리는 것들만 많아서

행복감 느끼고 싶어도 잘 안 느껴져요

상상을 하면 자꾸 원치 않는 것부터 먼저 떠오르고, 불안하고.

근데 에너지를 마니 닦아서 그속에 있는 재료가 그 속이 거의 비고,

하나님의 빛을 훔 마니 채울 수 있게 되면은, 몸이,

좋은 감정을 훨씬 훨씬 풍부하게 느낄수가 있게 됩니다

네 성배란, 하나님의 빛을 품고있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에너지장 속에 받아들이고,

그것과,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결합하여

온 에너지장에 그것을 공명하게 하면, 그 빛이 이 물질계에 투영이 되면서

사람의 에너지장이 일종의 투영기계거든요?

이마 차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크라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빛의 품질이 좀 떨어질 뿐

시시각각 내 세상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수행을 하시면 주변환경이나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저 사람 이런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친절해졌지?

저 사람 저렇게 귀여웠나?

나한테 인상쓰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뭐 잘못먹었나?

갑자기 변합니다.

다른 평행우주에 점프 해 온 것처럼요.

내가 투영하는 빛의 품질도 순도가 높아졌기에

내가 투영하는 이미지, 즉 필름도 그림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해야 할 것은 지금의 내 삶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빨리 가겠죠?

근데 내 세상에 보이는 온갖 나쁜것들

아니 이 병을 내가 만들었다고?

나만 보면 갈구는 상사를 내가 원했다고?

아닌데? 난 저새끼 꼴보기 시른데?

근데 이건 내 머리로 하는 생각이고.

무의식속에 들어가면 이런식입니다

상사 보고,

너 이 쓰레기같은놈아 너 나쁜놈이자나

너 나쁜놈이니까 나쁜짓 해봐 내가 지켜봐 줄게

나쁜짓 하네? 그거봐 넌 나쁜놈이자나

누가 나쁜짓 하고 있는 걸 보면 흡족한거예요 무의식은.

왜? 나 말고 저놈이 죄인이 되거든요.

나쁜 짓 하는 이미지를 투영해냅니다

그걸 보고 나는 잘못없다 결백하다 하고 자기 인식을 합니다

나는 죄없다 우월감마저 올라옵니다

왜 나는 잘못이 없어야만 하죠?

죄책감이 원래 너무 심해서, 그거를 일시적이거나 버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나쁜짓을 하는게 아니라

좋은짓하는 걸 보고싶다 라는 게 무의식까지 인식이 바뀌어야만

무의식적으로 좋은짓 하는 사람들을 투영해 내게 되고

내 주변이 좋은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에너지장은 자동 투영기로서 의도적인 투사를 하지 않을 적에는

무조건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투영해 냅니다.

안에 든 것이 좋은 것만 있어서 좋은 것만 투영해 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꿈을

바꾸려고 애쓸 욕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별로 뭘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든 별로 그렇게 거슬리는 게 없게 됩니다.

이런 게 시크릿의 역설이죠.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에 가야 한다

라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마음상태지요?

뭐가 어떻게 보이든 원래의 내가 행복 그 자체라면

겉으로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시크릿을 할 수 있는 마음상태가 되면

막상 시크릿을 의도적으로는 그닥 안 하게 되는 것이예요.

매순간 감사하고 감동이니 모든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가
이상적이겠죠.

물론 이 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지요

매일 매일 깨어있으려고 해야겠죠.

30. [카페]영혼의 파편화와 트라우마 청산

2022.12.14

<https://cafe.naver.com/herecamelight/12250>

영혼의 파편화에 대한 성모마리아의 메시지

다음 글에 댓글을 달다가 이야기가 길어져 새 글로 올립니다.

영혼의 파편화란, 의식의 일부가 원래는 신성이지만, 자신이 신성이 아닌 특정 영혼이라는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왜곡된 의식인데, 이러한 왜곡된 의식을 통해 특정 사건을 겪을 때 그것을 잘못 인식함으로서 즉 두려움이라는 자세로 그 일을 지각하였을 때, 의식을 확장하기보다는 수축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책에서 이 현상을 보면,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 몸이 산산조각 날 때, 영혼도 함께 산산조각 나게 되며, 그러한 영혼의 조각들이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것이 지구인의 영혼을 상당부분 의식성장하지 못하도록 정체시키는 일로서, 지구의 암흑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 같은 장소입니다.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면 바로 몰입을 해 버리지요? 반면,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은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인지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못하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조현병처럼 다채로운 성격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그러한 파편화된 마음들의 집착의 강도가 매우 심하여 각자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마음이란 원래부터 전체성입니다. 그러하여 물리적으로 그것이 산산조각나 산개해있다고 한들 그것은 다만 시공간개념을 적용한 현상일 뿐, 그 조각 마음들은 그저 마음 자신에게 외면당하고 숨겨져있을 뿐인 자신의 또다른 마음으로, 모든 조각들이 끌어모아지듯이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이란 통째로 하나로서 조각이 날 수가 없는 것인데, 마음을 운용하는 의식은 마음이 조각이 나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으며, 집착으로 인해 산개하여 특정 시공간에 붙어있게 느낄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이 분산된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정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런 경우 이러한 영혼의 파편화 상태가 남들보다 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마음인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집착하고 고착화되어 산개하고 있기에,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마음의 퍼센티지가 낮은것이죠. 이러한 산개한 마음조각들을 자기 마음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이 참수행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감정 청산이 영혼의 파편화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감정 청산을 할 때 그냥 슬프거나 서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나 충격, 트라우마를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의식은 자동으로 그것을 재경험 하게 되는데, 이때 마치 그 일을 다시 겪는것처럼 충격이나 트랜스상태에 빠지거나, 다른 인격이 발현되거나, 기억을 잊거나, 기절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는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얄게 들어간다 하여도 최소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려움이 올라오지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옛날 수행터에서 적잖이 목격했고, 저 자신이 과거의 충격을 재현할 적에 번번이 트랜스 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실어증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지만, 몸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되는 상태이죠. 그 정도로 사람의 에너지장 속에 들어있는 트라우마의 흔적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으로, 우리가 연단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무의식 깊이 들어가 충격의 에너지를 다루면서도 휩쓸리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일찍부터 하는것으로, 사람의 자아정체감 즉 에너지장은 실은 전체가 트라우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것을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상심으로 온전하게 경험했더라면 그것이 충격이 아닌 그저 환영으로 올바르게 지각되었을 것이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의식상태로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에 과하게 집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집착하는 마음조각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조각이 대체로 자신의 에너지장, 의식이 뻗는 의식장 내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특정장소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같은 경우 지박령이 되는거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 그 장소에서 사고를 겪으며 의식이 과도하게 몰입하여 그 장소에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고, 사람과 아주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영혼)에게 계속 집착해 동시대에 태어나 원수지간을 이루는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장소나 사람이나 다 어떤 실재적인 지점이 아니라 마음 속 환영이지만, 이것을 시공간 속에서 인지할 적에는 마치 마음조각들이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 등에 둘러붙어 있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착이 되어 있고 응축이 되어 있으면, 장소에든 사람에든 시간에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이 마음은 마치 몇 군데 지점에 산산히 흩어져 붙어있는 것만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승천마스터들이 말하는 영혼의 파편화 현상이랍니다.

이들이 말하는 <영혼의 파편화를 치유할 적에 그 일을 다시 겪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정 청산을 할 적에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재 체험 하게 되는데, 어느정도까지 들어갈것이나가 선택 가능하긴 합니다만, 트라우마같은 경우 엉겨붙은 에너지가 썰기 때문에, 평소 맑은 정신으로 사는 상태가 아닌데 그 에너지에 어떻게 주변 여건이 되거나, 혹은 트리거가 심하게 자극되어 그 일에 접근해버리면 즉 그것을 다시 체험하면, 그 에너지에 휩쓸려버려서 위에서 기술한 자기 정신을 잃는등의 사건이 있는거예요.

사람을 치면 걸거나 암시를 주면 다른 인격이 되듯이, 그때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살게 되는데, 이때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지각하지 않고 다시한번 휩쓸리게 되면서 그 에너지를 올바른 인식으로 지각하여 무효화시키지를 못하면 즉 용서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파동 자체가 현실이라는 환영을 투사해내는 재료이기에, 현생에서 얽히고 꼬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 청산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로,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실은 겪었던 일을 자기도 모르게 확대재생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식성장의 길을 갈 적에 왜곡된 의식의 파동 형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일로, 처음에는 파동의 진폭이 크기에 크게 출렁거리지만, 점차 의식이 성장하고 현명해지면서 진폭이 작아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것이죠.

트라우마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으로, 괴로움을 최소화 하려면 강한 영적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 고통이 그저 감각일 뿐, 환영일 뿐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신경계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등 바른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게 중요하지요. 특히, 참수행을 하려면 이러한 에너지 부하를 몸이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신력 뿐 아니라 반드시 체력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잘 되지 않을 적에는 준비삼아 근력을 늘려놓는 편이 좋지요.

의식적으로 그것을 재생해서, 다시 그것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그 안에 실린 충격을 처리하게 되고, 충격이 큰 경우, 처음에는 온 몸이 땀으로 젖고, 팔다리가 자기 의사와 다르게 전기 충격 걸린듯이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기신호이기에 청산을 할 적에 주변의 전자기기가 영향을 받아 기기가 고장나기도 하며, 팔다리에 에너지가 흐를때 전기충격 오듯이 따갑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사건들을 기억하면 그것을 재생하게 되지만, 갈수록 그 사건이 아닌 원래 에너지가 있고 사건은 허울, 속임수일 뿐임을 알게되고, 나중에는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장에 집중하여 에너지 자체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바로 그 에너지가 분해되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본인이 인지하기에는 큰 하나의 사건, 혹은 여러가지 사건들의 총합으로 인지되지만, 실은 이는 이 에너지가 투사해낸 여러가지 환영일 뿐으로, 원래는 하나의 왜곡, 원오류가 있었음을 기적수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심리상담이나 영성쪽에서는 충격으로 인해 영혼이 다쳤다고 설명하지만, 기적수업은 그 반대로 처음에 원오류(신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착각)가 있고, 그 원오류가 무수한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합니다.

수행을 해 보시면 꽤 시간이 흐른 후에 모든 환영이 다 동일함을 알수가 있으며,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건 충격의 에너지인데, 이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단 한 지점에서 다채로운 충격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충격파가 무수한 환영들 즉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청산을 수없이 반복해나감에 따라, 점점 더 그 에너지의 양이 적어지면서, 혼미한 정신이 아닌 바른 정신으로 그 에너지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그것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나, 그것을 보는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기에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보는 올바른 인식은 무엇이었는가 등을 숙고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실은 처음부터 오직 사랑만 있었으며, 나의 왜곡된 인식이 왜곡된 상을 만들어 덧씌워 충격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며, 차츰차츰 자신의 에너지장이 더는 번잡한 트라우마의 흔적인 저질 진폭의 전기신호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결한 신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어 더는 저질의 전기신호를 자가증폭시키지 않게 될 때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던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얽혀있던 에너지가 원래의 신적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저질의 전기신호가 바로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방어>로서, 신적 에너지를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수행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의식이란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는 약하고 갈수록 강해지기에,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이 도관(빛이 통하는 파이프, 기혈, 차크라)이 열렸을수록, 기적수업 등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심하게 감정적으로 출렁거려 수행이 고행이 되어버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며, 기적수업같은 절대적인 가르침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감정 청산을 하다가 저급 아스트랄계에서 의식이 고착되어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참수행이란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마음을 내어 상위차원의 진리의 빛에 의지함으로서 자신의 저급한 의식을 정화시키는 것이기에, 고차원적인 의식을 내지 못하고 저급한 의식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같은 놈끼리 싸우게 되는것밖에 안되고,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휩쓸려가게 되는데, 이때 지구 무의식장에 들어있는 사념체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에게 기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천마스터들이 주는 기원문이 영혼의 파편화를 치료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실 제가 경험해온 수행의 길은 이러한 저급한 충격파를 의식으로 재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저항이 있기에, 그저 기원문을 외우는 것 만으로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인의 의식장은 더구나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장이 지구 전체의 집단무의식장을 대표하고 있기때문에 기원문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겨우 될까말까 한 수준입니다.

의식성장이란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집단무의식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지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남을 원하게 될수록 깨어남은 더 쉬워지겠지만, 아직은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의식이 깨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은 극히 초기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선발주자들은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지요.

31. [세션] 귀한 사람은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2022.12.27

지난 세션 내용중에 일부 제거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29일

여러분 이 세션이요

여러분은 개인이 다다에게 혜택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세션을 보는 관점은

저에게는 개인이 개인이 아니고

저한테는 여러분이 빛을 펼칠 통로 같은 겁니다

나 혼자 펼치면 통로가 하나뿐이지만

여럿이서 무의식을 봐서 그걸 놓게 되면

그 놓아진 자리에 빛이 통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데려온 빛이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통하는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되긴하는데

집단 무의식장있어요

집단 무의식장의 특성은

그보다 더 작은 집단 무의식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거든요 일종의?

예를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있죠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가족은 각자가 세상과 교류하는
뭐 .. 직장이나, 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있죠
또 그보다 더 큰 개념으로는 도시 전체, 나라 전체, 대륙, 지구...
우주 개념으로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는 무엇과 네트워킹 이루고있나요?
태양계, 우리 은하계, 우리 성단하고 네트워킹이 되겠죠?
은하계는 은하계끼리, 성단은 성단끼리...

그런데, 우사 보면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무의식의 구조가?
마음의 구조 말이에요
사람 안에 우주가 있다 이런말 동양철학이나 종교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 수행하는데 도움받으니 세션한다 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빛을 펼친다 라는 개념이

여러분께는 실제적으로 잘 느껴지지를

않을수가 있으니

잘 와닿지 않을건데

빛을 활용할수가 있게 되면 그게 너무나 실재적이고

오직 그거만이 실재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존재하는게

그래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게됩니다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되요

로자력 보면은 읽기는 하는데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근데 가슴속에, 그게 뭔지 알고싶다는 소망이 느껴지죠?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행복하답니다

그러기 전엔 그저 존재란 공허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만족이 절대로 안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멋진 동반자를 만나봤자

가슴속에 구멍난 그건 안채워집니다

가슴속에 그 빈공간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 펼치게 되어서만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진짜로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에 모여가지고

세션 하게 된 것은 한..

5개월? 4개월? 걸렸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세션이 목적이었어요

늘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나혼자 수행 하면서

아 이거 여럿이서 하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멋질텐데

세션을 하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몸이 파동체에 조금이나마 통로가 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빛이 흐를수있게 되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세션하게 되는데 4~5개월이 걸렸으나

오픈톡도 해야했고,

저하고 티카타카

팩폭 당하고

별 힘든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처음 그 관이 뚫려야 하니까

그러면 뚫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빛이 스스로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

그냥 뉴비들이 더 수행 잘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하면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되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 멘탈에 온갖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정신이 제법 망가지면서 그 대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도관이 되어 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더 쉽게 하고 있다고 많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적잖은 사람들이 못버티고 사라졌죠

제가 이 초기인원을 만들어내는 강도는 과격함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것도 도중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거 감수하고

별일 겪을거 감수하고

별일 겪으면서 내가 망가져서

정신빠진 소리를 하다가 욕먹을거도 감수하고

그런저런거 다 감수하고 빨리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준 거, 멋진 글 올려준 거,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일 해준 거, 놀라운 아이디어를 준 거,

이런거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한테 기억이란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흑백 티비 보다가 4k 보는거같다고

아주 찬란합니다

아름답고요

네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성격이 상당히 신랄합니다 제 인격이

나자신에게 팩폭을 하면서 빨리 끌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뭐.. 수행 뿐만 아니라

인생을 되게 엄청 집약적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되게 꼬장꼬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근사근하고 부드럽고 이러지가 않아요

직장에 보면은

직장 상사중에

일 잘하고 약간 또라이 있죠

제가 그런타입이에요

남들이 일 못하는걸 보고 있지를 못하는

불러서 고쳐서 이 조직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않는

제가 그런성격이에요

그리고 어떤 비효율적이거나 뭔가
순리에 어긋나는 그런거를
귀신같이 캐치를 잘해요
그거를 안고치고 있으면 저는 속이 문드러져요
그런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래요 라는 질문에)
원래 그래요 성격이
타고난 건 고치는게 아닙니다
잘 갖다가 쓰면 되지요.

근데 어쩐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포기하고 놓아야 하는,
그래야 에고가 버려지는 수행 하고,
이런 꼬장꼬장하고 적극적인 성격 하고,
물과 기름 같은거거든요?
(이런 모임을 하면) 갈등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충 그래서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중
누군가 슬프게 들린다는 말을 해서)

저는 유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도

제 말이나 행동이 어떨때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기적수업의 가르침에 두어야 할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세속적인 기준에 두어야 할때도 있고

네. 특히 표정을 볼수없고 소리도 없는 채팅이기 때문에 다 자기마음대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뭐

너무 진지하게 여길것은 없어요

아무 의무도 없고

근데 자기자신이 여기에서 올드비로 뭔가를 해왔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족들, 직장, 카페 등등에서

(이곳에서 받은) 빛을 전달해왔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빛을 주는 행위는
세상을 벗어난 행위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냥 자신 마음을 돌이켜서
혼자 마음 따뜻한 말 친절하 말 하는 거와
이렇게 집단을 이뤄서 빛을 증폭시켜 전달하는
그리고 무의식을 세션해서 보고 그걸 다수가 동시에 해제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에 너무나 커다란 영향을 끼친답니다.
이게 여러분께는 안보이고 안느껴지지만
저는 빛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저에게는 보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한번쯤 여러분이 명상하듯이 고요히
오분이든 십분이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으면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귀한 사람은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귀하다는 건 아무도 내게 줄수없잖아요

내가 귀하다는걸 가슴으로 인식해야만 귀해져요.

가만히 생각만 해보는 일이 사람들이 없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 집단들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무언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내면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묻고 나서, 계속 계속 묻기 때문에,

질문만 하기 때문에 답을 못들어요.

물었으면, 물러나서 고요해보세요.

답을 들을 자세로 가만히 있어보세요.

답이 언어로 오지 않고 감동으로 오는 적이 많을 겁니다.

경험해보셨죠?

지금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류하시는게
되게 훈훈하거든요?

근데 세션을 저하고 오래 하신 분들중에
다른사람에 비해 거의 마음을 안주는 분들도 있어요
가져가는 걸 주로 하는거지요.

저는 주는 것에만 집중하면 원래 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내꺼 가져가~ 이거도 가져가
저거도 가져가~ 이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그래 이거 내꺼~ 이거도 줘~ 저거도 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도, 다음 순번 사람들에게
너도 나한테서 이거 가져가 ~
이게 여러분 역할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요
나만 좋자고 하면 고립돼요.

우사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있지도 않은거라고

마음이 수행을 하는것이예요

그 마음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남에게 마음을 안열고 안뻗으면

자기속에 고립되고 갇힙니다.

대부분의 저항은 거기에서 와요.

나나 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수축할거나, 확장할거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항이 오고 기분이 나쁘면

카페 열어서 누군가에게 댓글을 달면서 케어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되면 자기자신이 행복해지는걸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강요할 순 없거든요?

근데 다만

자기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빛은 밖으로 확장이 되고 뻗어나가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행복합시다

네 말이 길었네요

그럼 12월 즐겁게 보내시고요

연말에 재밌는거 많이 같이 해요

마니또 같은거도 하던데

고마워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32.기택강독 1012-1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2022.12.25.

1012 기택강독

〈생각이 굴러가는 모양〉

내가 오늘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쳐요

그 친구 나한테 잘해줬던 친구, 내가 잘해줬던 친구이고

내가 타지에 와서 외로웠던 차에 만난 동향친구라고 쳐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욕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칩시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해왔다고 치고요

그 친구가 나에게 살갑게 굴고 밥도 사줬는데

나도 그 친구에게 마음 열고 있던 차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민정이가 한 그 얘기가 진짤까

개가 진짜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애일까

민정이가 과장을 한건 아닐까

보니까 민정이가 개 소영이 질투하는거같던데

아니 두사람이 눈빛 주고받는거 내가 얼마전에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내 남자친구 민정이가 몇번이나 멍하니 쳐다보던데

자긴 키 크고 자상한 남자 좋다고

혹시 나한테 일부러 이생각 저생각 하게 하는걸까

벌떡 일어나니까 이미 30분 고민했어요

근육이 아파서 못 누워 있겠어

냉장고 문 열고 냉수 벌컥벌컥 냉수컵 들고 또 생각해요

내 남자친구가 근데 최근에 뭐랬더라?

나 머리 새로 한거도 못알아보고 가방 산거도 못알아보고

내 친구들 소개해준거 너무 일렀나?

개들이 나보다 예뻐 보일까?

지금 남자친구 말고 전남자친구 영철이 개가 외모는 좀 더 나았지

근데 개는 지금 애만큼 자상하진 않았어

아니 그런데 지금 만나는 애는 자상하긴 한데

전에 환승이별 했던 전적이 있잖아?

혹시??

직장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이야기 하던데?

거실을 몇번 성큼성큼 오가다가 얼마전에 산 운동기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옷걸이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옷걸이 된지 얼마나 됐지?

거울 보니까 뱃살이...

소영이는 피티 시작한지 두달째던데 나도 할까?

아 하기싫은데. 그런데 돈들여야돼?

내가 그렇지 뭐 게을러

뭐 하나 제대로 했던 게 없어

남자친구 차라리 좀 못난 애가 낫겠다

스펙도 좋고 자상하니까 다들 눈독들이잖아

애랑 결혼할것도 아닌데 왜 고민한담?

난 어차피 애도 안낳을거고 혼자 살거라구

그럼 여자친구라도 좀 친한애들이 있어야지

아 근데 소영이는 왜그러는거야?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지

다시 누웠지만 역시 잠이 안옵니다

정신차려보니 새벽 2시

내인생은 왜 이모양 이꼴일까?

남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는 거 같은데

왜 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남자친구도 사랑하는 건 아냐

직장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거 포기하고 돈 더벌려고 이거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네 뭐 너무 익숙하시죠?

〈생각하는 훈련의 필요성〉

한달에 잠 못자고 20분 이상 고민하는 이런 일이 몇 번 있는지 세어보세요
잠 못잘 뿐 아니라, 낮에도.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고민하는 거

주제는 계속 바뀔수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생각해요.

그런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걸 세어보시고 그 빈도를 줄이셔야 돼요.

수행은, 생각, 감정을 자신이 통제하고

자기가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자기자신에게 알게 훈련을 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자기자신이라는 이 에너지장과 의식마음은

내가 내버려두고 개보고 내 주인노릇 하라고 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자기가 주인인줄 아는 미친 개랑 비슷해요.

얼마나 미쳤느냐에 따라서 생각,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고요,
그걸 자연스러운거니까 내버려둬라 라는것은
뉴에이지쪽에서 의도적으로 도입한 대규모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꺼가 아닙니다.

지구의 에너지장속에 쌓인 사념체가 의식을 가져서
한마디로 귀신놈들 겁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나는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면,
도리어 생각을 못하게 되고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메모장에 쓰기라도 해야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데,
그마저도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 감정, 특히 느낌

느낌이 너이고, 느낌대로 살아라

느낌은 자연스러우니 내버려둬라 라는 것은,

귀신놈들 먹이가 된 채로 우리에게 쪽쪽 빨리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느낌대로 뭐든지 하는게 맞으면,

우울증 걸리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맞는거겠네요

이혼하고 싶으면 애가 둘 있어도 그냥 이혼하는게 맞는거자나요?

선생한테 대들고 싶으면 느낌대로 대들고 선생 뺨 때리면 되지요

느낌이란, 자기의 경험정보 + 귀신놈들 주입

이 잡탕이 느낌이며

진짜 신성으로부터 온 느낌은 너무나 깊이 숨어있어서

그걸 찾으려면 한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각 감정 느낌 의견 주장 판단 모두 버려야한다>

현대인들은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이 느낌대로 산다, 이런것에 너무 속아왔고

학교 교육도 어떤 인성교육따위가 흐려진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곳도 없고

위인전을 읽기보다는 어려서부터 sns 하면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영적 자각 하기 이전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의견, 주장, 판단,

모두 다 버려야 할 대상이며

직감, 느낌 또한 감정덩어리로부터 나오는 카르마의 경험정보입니다.

어떤사람이 부모가 불륜하는걸 다수 목격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칩시다.

이사람이 나중에 남친 여친 사귀면,

그 사람이 사소한 다른사람에게 관심보이는 행동을 하면,

이사람에겐 어떤 <느낌>이 올라올까요?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배신감마저 들겠죠?

그건 느낌이죠?

그게 신성으로부터 온 느낌일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돈 갖고 싸우는걸 다수 봐온 사람은
이직하거나 연봉협상 하는데 돈 자기가 원하는대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느낌대로 그 금액을 부를거 아닙니까?

자기 느낌대로 사는게 옳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며 분노조절장애인걸까요?
느낌, 직관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앎>

영이 맑아져서 오는 것은 느낌, 직관이 아닙니다 거대한 사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앎>입니다 영이 닳이면 앎이 옵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
느낌이 올라오면 그것이 어디에서 파생됐는지에 대한 앎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을 놓으면 즉시 뭘 할지에 대한 앎이 오고
이미 마음속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

느낌, 직관을 따르는 삶이 위험하지 않은 지경이 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냐면 인구밀도가 아주 낮은 오지.. 사막..

전자파도 없고 인구밀도도 낮고 교육수준이 높지않아 별로 가치관에 방해도 없는 곳...

자연과 항상 가까우니 좀 더 마음이 맑아서 수신을

좀 더 아름다운 마음에 가까운 것을 수신 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삶이 주는대로 그저 받아들이며 따라가면?

만약 어려서부터 부모 또는 선생님이 〈넌 해도 안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대충 살고

흘러가는대로 주어진대로 살면 되나요?

인생은요, 자기 좋은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다

화내고 싶다면 화낼 자유가 있고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둘 자유가 있고

누가 나보고 〈넌 못해〉 라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할 권리가 있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유도 있고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식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파간다입니다

〈인간 의식의 아름다움〉

인간의식은 〈도전〉입니다

인간은 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면 한계를 깰 이유가 없어요

자기초월 하려고 애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훌륭한 책을 너무 안봐요

본받을만한 사람을 인생에서 찾아보세요

어려운 환경 이겨내고 남에게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

보면서 우리 가슴이 뛰잖아요 닳고 싶잖아요

<용서는 집착을 놓는 것>

기적수업에 나오는 용서는요

개체의식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준높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착 떼는거 라고 보시면 제일 비슷해요

용서란 집착을 놓는거라고 했습니다

도인은요

고민을 안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도인입니다.

화났으면 화 버럭 내면 될까요 안될까요?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보통은 화 버럭 내고 나서 어떻게 되요

죄책감 올라오죠 아 그래도 그러지말걸

근데 그러면 화 내지 않았다면 그게 더 옳은 것이었을까?

〈내면의 양육자〉

아이를 키운다고 칩시다

아이 예쁘다고 꾸짖지 않으면 잘크나요?

내가 키우는 애가 사람구실 하게 최소한 만들어줘야 하는데

부모로서 자신감이 없으면 꾸짖다가 죄책감이 심하게 올라와서,

달래다가, 화내다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부모로서 체통이 영 없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다 대고 하고 있는 짓인데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살펴야 한다는걸 먼저 인정해야하고요

내면의 양육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건사할 능력이 안되요

내가 어디에 가치판단을 뒤야할지도 모르겠고

딱히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어른다운 어른이 안보여요

주변에서 돈 잘버는 사람 사회경험 많은 말고,

진짜 어른답다 이사람.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어디 뭐 심리센터나 영성센터 가도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더 나쁜 기억 갖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나 자신이 나를 건사할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고

외부에서 나를 건사해줄 수 없음을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내 내면에서 나오는

가슴이 뜨거운 무언가만이 나를 가르칠 자격이 됩니다.

그게 평소엔 안느껴지거든요?

가슴이 뜨겁고 정의로운 느낌에

내가 무언가 태어난 이유가 이거같다

이런 느낌 거의 느낄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좋은 책이라도 읽고 위인전도 읽으면서 역할모델을 삼았는데

요샌 그런거도 없고

모든것이 다 옳다 라는 프로파간다에 당하고 있습니다

33. 기택강독 1012-2 모든 것이 다 옳다 vs 모든것을 다 용서한다

〈모든 것이 다 옳다 vs 모든것을 다 용서한다〉

그러면 모든것이 다 옳다는 뉴에이지식 대규모 사기와,

기적수업의 모든것을 다 용서한다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두가지는 너무나 달라서 완전히 극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겐 두가지가 똑같이 보입니다

기적수업의 용서하는 자는 빛 입니다

빛을 찾아 그걸로 용서를 하는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 사랑으로 용서한다 라고 할 때,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매트릭스를 일부라도 깨어야만 나오는 신계의 빛입니다

대부분이 이 빛을 경험한적이 없기에

세상 속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을까요

세상의 사랑이 의미 없다고,

아예 펼치지도 않고 막 사는 사람은 해를 끼치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기자신 파악하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하고, 실제 자기 하고 많이 다릅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요 중앙을 세로로 가르세요

왼쪽은 내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목록을 쪽 적어보세요

오른쪽은 내가 지금껏 이룬 것, 객관적인 사실, 내게 지금까지 고마워한 사람,

내가 영향을 미친 사람 혹은 일, 나의 일 적인 업적, 내가 도움 준 분야,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실패해서 해를 끼친 것 등을
사실관계 위주로 나열해 보세요.

안해보신 분들은 해보시면 놀라실겁니다

시간을 좀 들이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자신을, 난 나를 가혹하게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자기자신에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자기자신이 아니라면, 남이라면 가차없이 깎아내렸을 거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환경오염, 남에게 준
상처,

그거를 상쇄 할 만큼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살았을까?

누군가 나를 키우는데 들인 수고

이거를 내가 상쇄할 만큼 누군가를 케어하며 살았을까?

내가 받은 것은 얼마큼이며 준 것은 얼마큼인가?

철저하게 분석해본다면 에고의 실체가 보입니다

충격의 연속일 겁니다.

〈용서의 수준〉

그럼 용서로 다시 돌아가서

용서란, 의식이 여러가지 수준이 있고,

그 수준마다 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이 엄연히 달라요

기적수업에 나오는, 형제를 보면 그리스도로 보여서

바로 집착이 떨어지고 형제가 구원자가 되는 게 되려면,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장이

빛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되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구원자로 바로 보이지는 못하다면,

이사람을 죽일놈은 아닌, 불쌍한 지구인 정도로는 봐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적수업의 구원자로 보는 용서를 할 능력이 안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자신을 기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뭉치면 인격이 된다>

이를테면 그사람 생각하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데

너는 나의 구원자~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며 살자~

이런걸 계속 하면,

그 울컥 올라오는 에너지는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뚫뚫 뭉칩니다

에너지는 있음을 인정해야 초월이 됩니다

없는 척 하면 뚫뚫 뭉쳐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있어요 "형이 내꺼 뺏어갔어 으앙~" 이러면 엄마가

1. 오구 그랬쨌? 먹을거 뺏어갔쨌?

2. 또 싸우냐! 시끄럽다 그만올어 저기있는거 먹어 그냥!

1번을 1000번 겪고 자란 사람하고 2번을 1000번 겪고 자란 사람하고

행동양식이나 사고구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2번을 겪어온 사람은 마음속에 서러움이 뭉쳐 어떤 서러운일이 있을때마다

그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나 좀 알아줘~ 서러워 엄마~ 하는 그 아이로 퇴행합니다.

이런 트리거들이 무수하게 뭉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에너지장, 카르마저장고입니다
트리거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뭉친인격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심리센터, 영성센터 등은
이런 감정을 사실로 여기고 풀려고 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뚝! 저기있는거 그냥 먹어!〉 한 거를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미 나는 엄마 사랑 못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치유해봤자
나는 원래부터 관대한 엄마 가진 부잣집 아이처럼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기적수업은,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라고 하죠

처음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에너지장을 많이 닦아 내셔서,

빛의 구성이 에너지장속에 카르마 구성과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어서

자신의 인식 즉 자신의 자아가 카르마덩어리가 아닌 빛으로 옮겨갔을 적에

〈아! 진짜로 그런일이 일어난 적이 없구나!!〉 하고 깨달음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적도 없구나 죽은 적도 없구나〉

뭐 어느 책같은거 보면 고승들이나 할법한 고차원적인 깨달음같이
들리겠지만

참수행을 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초보적인 깨우침입니다.

장자 었나요?

내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었는가

동양에는 이렇게 인생이 전부 꿈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꿈이고 실체가 아니고

내가 몸을 보고 있는데 진짜로 몸이 존재 안한다 라는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정신 나갈 거 같은 느낌도 같이 옵니다.

남은 카르마 파동이 아직 규모가 있으니까요

〈느낌과 앎의 차이〉

느낌과 앎은 어떻게 다르냐면

느낌은, 얼핏 정확한거같이 강렬하게 와도,

그 즉시 다른 느낌이 또 옵니다

아 촉 오는데? 이건데~ 아 아닌가? 아~ 이건가 저건가?

앎은, 100프로 확실합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진짜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냥 연애감정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에 푸욱 빠져서

슬로우모션으로 모든게 보이고 이런 순간 경험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인생에 한두번밖에 없는 소중한 경험이지요.

그 때, 여러분은 느낌을 느끼고 있는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다는 앎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절대적인 행복감과 앎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일이 한번씩 일어나냐면요
원래 에고의 사랑은 진짜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수가 없습니다.
거래이기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줄게 넌 저걸 해줘> 이런 식이죠.

근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응하여 깊이 케어할때
일시적으로 마음의 틈 사이로 진리의 빛을 엿보게 되는데,
그 때, 천국에서 신과 사랑했던 나날이 얼핏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그러한 행복감을 찾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랑에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그냥 인간이구나 하고 실망하게 되지요.

<집착을 떼는 용서>

자 다시 용서로 돌아가서요,

맨 처음에 민정이니 소영이니 온갖 이야기 했는데

이런 망상과 의문, 질문, 판단이 계속 돌아가게 두고싶은 욕구를 매 순간 순간
놓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용서랍니다.

즐기지 않는거예요 그냥 놓는겁니다.

근데 안놓아지거든요?

거머리같이 따라와요 괴롭습니다,

놓고싶은데 안놓아져요.

예를들어 담배 끊으려 할 때 계속 생각나죠

그럼 어떻게해요?

생각이 올라오면, 선언을 하세요.

내 머릿속은 내꺼야!! 이런식으로

늘상 거친 인격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으니 평소에는 단호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운동하기 이것도 단호하죠?

제자리뛰기 1분 해보셨나요? 전속력으로 하면 보통은 30초도 못합니다

100미터 전속력으로 뛰는데 아무리 느려도 20초잖아요?

그러면 헉 헉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20초만에 그딴 뭐 민정이 고민 소영이 고민따위 안하게 됩니다.

자기 몸이 매트릭스 그림판에 잠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 사투입니다.

<함께 가자>

여기는 금렵구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사투가 아닌것이 될수있게 도와드리는 곳이지요

원래는 죽을 각오로 목숨 내놓아야 그게 찾아집니다.

살면서 자기 삶 바꾼 사람이 되게 드물잖아요?

알콜중독자가 갱생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거나, 사연이 있는 경우,

그사람의 삶을 쓴 책 같은 걸 보면 반드시 매우 힘들게 자신을 극복해낸

집중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거리를 가셔야 되기에 막 죽을 지경으로 해야된다 이런거는 아니고

수행은 여기처럼 빛을 제공해드리고 함께 가는 시너지가 있으면
도움도 받고 즐겁게 갈수도 있거든요.

의식의 특성이, 빛의 특성이

어둠도 그렇지만, 모이면 증폭이 되는데 증폭이 제공으로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커져요, 사람이 모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다고 무조건 그런 혜택을 받냐
안타깝지만 그건 아닌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같은 걸 해도,
아 저친구도 같은걸 하는구나, 재도 나랑 같은 인간이네 = 내 친구네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냥 사람 몸뚱이만 옆에 있는거지, 혼자인
마음이잖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 좀 친해져봐라
땀글도 좀 달고 놀아봐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가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그렇다고 억지로 챙기고 케어하기는 현대인들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드니까

다만 친구들 뽀글이나 뭐 그림같은거 보고 좀 더 많이 웃어보세요.

시간이 안나는데 억지로 하다가 의무감에 제풀에 지쳐 쓰러집니다.

롱런하셔야 되니까 즐기자~

너무 과몰입은 하지말고 재밌게 갑시다!

<용서의 기본 : 생각 계속하고 싶은 집착 놓기>

용서의 기본 : 생각 계속하고 싶은 집착 놓기

실천 해보시면 자기가 하루 동안 생각을 계속 하지 않고 있는 적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아서 좀 충격 받으실 겁니다.

생각 기계 같은건데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당합니다.

집단에너지장에 의해 생각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야지요.

다음에 만날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노트에 양쪽 적어보기 하고

생각 하루동안 계속 놓기

막 고민 계속 하고 싶어서 미칠겁니다.

자기주장이 더 올라와요

그럼 그냥 계속 놓으세요

놓는다고 선언하고, 안되면 벌떡 일어나 운동

에너지가 끈끈해서 처음에 놓는다고 선언하지만 그 선언하는 의식 빛의 힘이,

여러분을 잠식한 그 생각빛보다 약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빛을 일으킨 존재는

<여러분을 보고 애쓴다 애써 그거갖고 되겠어?>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뿌엥~ 하고 물러나지요

강단이 좀 있어야 하지요

강단이 있게 나가면 저쪽에선 더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몸을 두고 양쪽에서 서로 뺏으려고 투쟁하는거랍니다

<참수행 합시다>

지구상에 사람이 70억명인가요?

매트릭스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거의 없겠지요?

수행놀이는 많이들 합니다

수행놀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부처님 예수님 이야기로 귀결되는 건

실은 그만큼 인간 집단에 감명을 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온세상에 영성스승 구루 수행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빼는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건데

매트릭스 탈출 하려면

다함께 모여서 시너지 내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 한다는 마음 보다는

전우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씩 생각해주시면 좋을거같네요

세션을 하면 세션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서로 하나인 마음을 찾기 위해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런 통합과정이 방어력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마음으로 결합하여 빛이 공유되면
자신의 마음의 맑기를 더 오래 더 쉽게 유지할수있어요
아직은 어색하실테니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이라도 가끔 해보세요

34. 기텍강독 1005-1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쓸까

1005 기텍강독 요약

제목 : 수행과 능력

<주제에 맞는 기적수업 문구>

오늘 주제에 기적수업 문구... 펼쳐봤더니 이게 나오네요

(합본471)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들어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고

자신을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셨던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선언이다

네가 너의 제단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미친 생각은 그것이며

너는 그 생각에 믿음을 투자하기에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뭐든지 너의 믿음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고 여기지 말라

너는 그 미친 생각을 참으로 강력하게 믿고 신뢰한다

〈예술〉

예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예술품을 볼때, 어떤 예술품은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예술품은 생각이 멎고 감동이 올라오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예술보다는 고전예술쪽이 좀 더 후자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 신 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던 시절에

예술은 신의 목소리를 지상에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신도 물론 종교에 의해 일그러져 있었지만
예술가 개인이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자신을 초월하고
신의 아름다움을 예술에 구현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볼 때, 몸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마음이 그 작품을 느끼고 있는거잖아요
그 작가의 의식장에 접속이 되는거거든요

특히 그 작품을 만들던 당시 그가 느낀 의식 이거에 접속이 되는건데,
접속을 얼마만큼 깊이 할 수 있는가는 개인의 마음 운용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사람은 예술작품 보고 막 우는데 어떤이는 점심 뭐먹지 생각들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카르마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만일 본인이 예술을 했다면 전생에 좀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춤>

춤을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엔 안무 익혀야 하잖아요 숫자 세면서 동작 계속 계속 익히다보면

첨엔 음악도 안들리고 근데 동작이 꽤 익었으면, 음악 틀고 맞춰보자나요

그러면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고 나서야 음악의 리듬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자나요

그리고 몸의 동작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을 때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춤만 있고 인간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개별 자아를 잠시 잊는것이죠 그러면 가슴으로 느끼는거잖아요 그게?

그때 너무나 행복하죠 몰입하고

그런데 어떤사람이 예를들면 무대공포증이 있다고 쳐요

스튜디오에서 춤을 출때는 이렇게 몰입이 되었는데 관객을 인식하면

실전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몰입상태가 되지 않으니,

머릿속에서 동작을 생각해야만 몸이 작동하지요

생각을 해야 몸이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않고 음악과 하나가 되지 못하죠

<일>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춤이나 악기연주, 미술 등도, 안무 외우는 등의 기교가 필요하듯이

일에 있어서도 기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춤에서도 자기자신속에 빠져들어가면 역설적이게도 자기자신은 잊히잖아요

그거처럼 사람은 사라지곤 할때가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보면 그분들 그냥 자동으로 하는데, 힘들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한 마음 운용의 능력이, 수행을 하면 개발이 됩니다

집중력이 개발되는것과도 같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쓸수가 있게 되는것이고

그럼 왜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맘대로 못쓸까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쓸까〉

여러분 근육에 지금 부하 걸리는 에너지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이를테면 폰 잡고 있거나 뭐 랩탑에 손 올려놓았다든가. 키보드 위에

이러면 근육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생명력으로 느껴질거예요

조금 더 깊이 느껴보시면 그게 근육에 실린 긴장감인걸 알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난히 몸 찌뿌둥한 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풀어줘야 좀 기분도 나아지고 그런날

그런 근육에 들어가는 힘, 긴장감이 삶에서 현저히 줄어든다고 상상해보세요

한...1/20로 줄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의 안느껴진다고

평소에는 아예 몸이 안느껴지다가

뭔 일이 일어나서 깊이있게 볼때만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러면 세상 사는데에 스트레스가 없겠지요?

그 상태에서 집중을 하기가 훨씬 쉽겠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일반인들보다

그 근육에 실리는 에너지 부하가 몇 배 많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은 병자이거나, 병자에 가깝겠지요?

마음이 고착화되어서 굳은 것이 에너지이고요

그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장 속에 많을수록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에너지 교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교가 아니잖아요

사람관계로 인해서 직장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만 어려우면 버틸만하죠

근데 그 직장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거나, 아님 늘상 남을 헐담하는
사람들이거나,

늘상 우울해보여서 같이 우울해하기를 바라거나

이러면 그 직장 다닐수록 피폐해지곤 하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실 때 에너지장끼리 서로 에너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은 양이 대량으로 오가요

끼리 끼리 논다,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이런 말이 에너지 오가는걸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거를 참수행하고 불과 1,2년 지나면 몸으로

그 에너지 교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늘 느끼고 계세요

전철 지옥철 타면 피곤하잖아요

누구 정신 이상한 사람 근처에 있으면 나도 혼미해지잖아요

그거를 좀 더 근육부하 관점에서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될 뿐이에요

〈에너지장〉

자 그러면 에너지 교류를 할적에 내 에너지장 속에 재료가 거의 없어서

내가 나눌 것이 없으면 내가 훨씬 덜 피곤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에너지장이 비면, 그 자리에 신의 빛이 채워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는건 온통 신성 뿐인데

그거를 내가 만든 에너지로 가리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내가 만든걸 치우면 원래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쏘인 에너지를 자동으로 치유해서 원래상태로 돌려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에너지 교류를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에너지는

거의 없고, 상대가 나에게 주는 에너지는, 그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오면 무효화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그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은

저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하면, 돌아오는게 험한데

이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하면, 뭔가 부드러워
뭔가 편해, 돌아오는게 탁탁 오지가 않고 뭔가 그냥 들어가
뭔가 나를 받아주는 느낌이야

그런데 이 <그사람>에 두가지가 있다고 볼수있는데요
영혼이 아예 깨어나지 않은 그림판 인물인 경우가 있고,
영이 조금이라도 깨어나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인 경우, 내게서 도망가게 되고 후자인 경우, 나를 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집단에서 어떤사람 보면 편해. 유한거같아. 부드러워
근데 함부로 깎치면 안될거같아. 나도 품위 지키게 돼 이런 사람 있지요?
나보다 에너지장의 구성이 좀더 정련된 경우입니다

<수행하면 일을 잘하게 된다>

네 그러면 수행하면 일에 도움이 되겠죠?

일 자체도 잘하게 되고 특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니까요 신체의 기능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생각을 별로 안하고 일을 그냥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딱 필요한 생각만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결과를 걱정 안하게 됩니다

반면 일 못하는 사람은 이거 맞나 틀렸나? 제대로 하고있나 아닌가?

이거 하면 혼나겠지? 어떻게 반응할까? 아 하기 싫은데? 월급 언제지?

저번에도 이 일 했다가 낭패 봤는데? 일을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해내더라도 피곤함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산속에 수행자들, 절에서는 존중받고 집에게면

자식들에겐 무시당하고 돈버는 능력은 없으니 산속에서 강의하면서 그걸로 돈벌고

이거는 참수행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능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일능력도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무엇보다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찰력이 뛰어나 집니다.

<통찰력>

통찰력이란, 무언가를 한가지 시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동시 시각으로 볼수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파급력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됩니다

그래서 허튼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 자체를 뺄질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찰력이, 일 뿐 아니라, 사람을 보고 대할 때도 생깁니다

어떤 집단에 딱 들어가면, 수십명이 있으면

누가 리더고 누가 참모고 누가 부하인지 잠시 둘러보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어느 마음에서 왔는지,

그가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운용 : 여러 사람의 입장 느끼기>

여러분이 감정청산을 하실 때 내 입장에서만 봐서는 그게 안풀리고
엄마 입장, 아빠 입장 되어서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동시에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 운용의 달인이 되어가는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사람 마음 되었다가, 저사람 마음 되었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월등히 뛰어나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을 감정청산 하면서 많이 닦잖아요 가짜임을 많이 보게 되면, 겁이
없어져서

새로운 시도에 마음을 많이 열어놓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돈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보였는데 이젠 도처에 기회가 많아
보이게 되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뭔가 묻는것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지기에,

사람을 활용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리더가 됩니다

35. 기택강독 1005-2 그래도 싫은 일을 어떻게 할까

〈카르마와 영혼계약〉

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점 있으세요?

(스레드1) : 일을 전반적으로 잘하게 되지만, 개개인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나요?

(스레드2) : 직업이 카르마로 나타나기도 하나요

예를들면 의료쪽에 종사하거나

남을 변호하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게 카르마 인가싶어서요

네 그럼요. 카르마도 있고, 영혼계약도 있어요

견성을 제대로 하시면,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뭘 하려고 여기 왔는지, 영혼계약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영혼계약내용은 이시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지구를 좋은 곳으로 바꾸는데 한몫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방식이 어떤사람은 춤으로, 어떤사람은 가르침으로

어떤사람은 축구로, 어떤사람은 요리로

직업의 선택은 거의 카르마와 영혼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자율성이라고 할만한게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성격, 인품, 외모, 잘하는것, 생각하는 방식, 가족, 지역 모두 다 정해놓고
웁니다

그리고 이게 좋게 말해 영혼계약이고

더 큰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그림판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매트릭스 자체의 의식의 전압을 개인의 의식이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매트릭스에 그려진대로 살아야 합니다

견성을 한다고 다 깨닫는것은 아니고 견성을 제대로 했을 때 깨달아집니다

어떤사람은 자신이 견성했다고 주장 하지만 이야기 나누어 보면

그 의식수준이 깨어나지 않은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작은 영성체험을 견성이라고 말하는것이죠

제가 말하는 견성은, 매트릭스를 깨고 영이 제대로 깨어나는 것이고요

영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신이 진짜로 하고싶은걸 할수가 있게
됩니다만

그렇지만, 애초에 그 그림판, 하필 많은 그림 중에 그 그림판 덮어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림판에 있는 것을 하긴 하되, 그걸 더 깨어난 의식으로
해서 더 빨리 전체성으로 돌아가는데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영이 진짜로 깨어나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뭘 하든 상관이 없게됩니다 존재상태만이 중요해지거든요

깨어나기 전에는 내가 이 직업 아닌 다른걸 택하면 더 행복할텐데 라고 생각
하지만

깨어나 보면, 자신이 싫어하던 바로 이 일이 자신을 구원해줄 일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도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의식이 깨어나면,

이 부모야말로 내 영혼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빨리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구나

기적수업에서 말하는 구원자로 알게 됩니다.

<그래도 싫은 일을 어떻게 할까>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고민들 하시죠?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싫어하지 않게 되기

둘째. 집어치고 딴거 하기

단순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아무것도 본인에게 허용을 안해주고

보통은, 자기학대를 계속합니다

싫어하지 않게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그 일이 싫으니까

내 사무실 내자리도 정리도 안하고 먼지도 안닦고 옆사람하고 인사도
데면데면하게 지냈는데

덜 싫어하는거부터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 자리 청소 깨끗하게 하고 예쁜 화분이라도 들고

옆사람을 한 인간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해보고 초코파이라도 하나 주고

오늘 만나는 고객에게 사무적이 아니라 조금 내가 덜 싫은 마음으로

즉 어제보단 조금 아주 미세하게라도 베푸는 맘으로 해보면

한달 두달 석달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이 전만큼 싫게 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자신이 그 싫은 일 하면서 배웠어야 할 과제를 완수했기 때문에,

아예 직장이 바뀌거나, 직장의 조직문화, 규율, 직장동료 중 하나는 바뀌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정말로 그 직장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안맞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 되지요

그런데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지를 앓는거죠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많지요

용기가 필요하죠

이건 직장만 그런게 아니죠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내게 해가 되는 관계로 보인다면 내가 영혼을 좀먹고 있는 거 같다

근데 이거 그만두고 다른 관계를 못 얻을 거 같다

그래서 계속하지요

〈감정에 대한 질문〉

(스레드) : 싫어하는 것을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을
들여다 봐야하는게 아니라, 다다님 말씀따라 허용을 해야 하나요?

감정은요, 여러분이 다 속고 있고,
거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프로파간다로 인해 과대평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대접해 주면, 힐링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어디서 나온건데요? 예고잖아요. 신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의 부모는 내가 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배제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감정이 소중한다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해주고
싫은 것은 안하게 하면, 부모 자격이 없는것이 아닌지요?

현대의 여러가지 심리 이론이라든가 교육이 감정을 너무 중시하고있어요

감정은요, 통제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저는 도리어 그걸 더 했습니다

그게 안 싫어질 때까지 하곤 했어요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걸 도리어 해봐서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걸

알게 되는 거하고 같아요. 두렵다고 안하면, 영영 못하고요

싫어한다고 안하면, 역시 영영 못배웁니다

〈무언가를 싫어하는 이유〉

뭘 해도 싫은게 별로 없어야죠

싫은거는 왜 싫은지 아세요?

자기가 이걸 해서 잘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거예요

그냥 하면 싫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다 보면, 오래 하면 그냥 잘하게 되잖아요.

일 하면서 자기자신을 계속 평가, 판단, 비난하지요

그래서 그 일을 싫어하게 되는거예요

한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카르마가 형성 되는 거지요.

못하는거 자꾸 해보셔야 되고요 싫은거도 자꾸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별거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야 참수행자입니다

〈사람 싫은 마음〉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누가 유난히 싫다 이거는,

그사람이 내 내면에 내자신이 보기 싫어서 외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예요.

내가 그거 보기 싫어서 나 자신 아닌 그 사람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올바르게 사랑하기는,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나 증오가 대단합니다 무의식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하실거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영적에고나 생깁니다

증오하기를 그치는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속에는 엄청난 증오를 품고 겉으로는 근엄하게

난 널 사랑해~

세상은 아름다운거야~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자~

정말로 마음이 맑으면, 얼굴도 아이처럼 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내모습을 인정을 먼저 하세요

난 엄마가 너무 밍다, 그러면 엄마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싫은거를 못풀면 다음에 또 만나게 되지요

근데, 또 만날 때, 그 과제를 완수하기를 거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더 나쁘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태업 계속 한쪽으로 감는 것이죠.

난 직장상사가 너무 밍다, 그러면 그 직장상사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 직장에서 유난히 밍거나 무능해 보이거나 말하기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 맨날 찾아갔습니다

맨날 말걸었어요 먹을거주면서

빨리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사람이 사채업자다, 마약 한다, 성매매 중독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사람구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싫어한다 이런거라면
그사람을 피해가지고는 내 영적에고나 키우는거지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아주 단순합니다 먹을 거 주세요 백프로 통합니다
나를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주는 먹을거는 안 먹는다
그러면 먹을거 뭐 좋아하는지 알아봤다가
좋아하는 먹을거 중에 비싼걸로 골라서 주세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그사람에게 기프티콘 2만원짜리 5번 싸보세요
날 미워할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은 그가 날 미워한다기 보단,

내가 그로 하여금 날 미워하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난 좋은것이죠

그래서 기프티콘 몇번 쏘면 끝날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실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베풀기 싫은 것이죠

직장에서 인기인, 호인 봐보세요 기프티콘 마니 쏘는 사람입니다

제 말 이거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조사해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을 못느끼기 때문에 물질로 그나마 마음을 표현해야

좀 호인도 되는겁니다 물질과 마음을 자꾸 분리하는데

그것도 그냥 미워하려고 그러는거고요

물질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서 구상되어서 만들어진거예요

결국 마음이에요

36. 뭐를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문제라면 문제

광협 상황실 (비트롤센터)

주로 바쁘게 일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이런 대화도 오갑니다

제인웨이: 마음이 중요하죠.. 이십대때부터 다른 사람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 여는게 힘들고 남이 제 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정상이 아니라 힘들었는데, 혹시 조언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다다: 다른사람이 느껴진다고요? 아. 다른사람의 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뜻인가

제인웨이: 예전처럼 자극적으로 안느껴지는데 옛날에 견성글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좀 네.. 느낌이 와여

다다: 만일에 제인이가 그런식으로 사람을 쳐내고, 남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방어벽 안쳤으면, 제인이는 이미 정신 망가졌을거예요. 잘한겁니다 그거. 여기가 쓰레기장이라.

제인웨이: 아 감사합니다 따흑

다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 잘했다고 마음을 돌리시고, 내가 뭘 문제가 있다 이런생각을 안했으면 좋겠구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게 힘든거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안여는게 훨씬 좋은 적이 많아요. 마음을 열면, 좋은 거만이 아니라 나쁜 거도 같이 섞이니깐요.

나쁜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열면 혼미해지죠.

제인웨이: 감사해요 다다. 옛날부터 많이 고민했던거라...

다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거예요. 기준이 없고 혼미하고 그냥 외부자극이 오면 그거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러면서 그걸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있어요.

이거도 대규모 프로파간다죠.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려면 뭐가 옳고 그른지 뭐를 받아들이고 뭐를 쳐낼지 기준이 있어야돼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까탈스러운 거는 내가 내 정신을 유지하는거를 중시해서 그렇구나 하면 되는거고... 용서하는 거는 계속 실천하잖아요?

제인웨이: 네!

다다: 남에게 쉽게 휩쓸리지 않는 대신에, 남에게 많은 원한이나 애착 가지지도 않으면서 살았을거예요. 막 죽도록 용서 못하겠는 그런 사람 없을겁니다.

제인웨이: 그렇지.. 애착없는것도 좀 이상하단 얘기 많이들어서

다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별 의미없고 다 애착대상들이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살면서 사람들은 다 애착갖고 물고 빨고 핏吮으면서 사니까 나만 이상해보일텐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자기 특성이 그런거야.

제인웨이: 감사합니다. 압도적 감사

다다: 나도 그런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내가 싫어서 빠져보기도하고 그랬지만.. 빠져봤자 정신만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확장할거냐.. 사람관계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의식확장 할 것이 아니니까 다른식으로 해야되거든요?

감정청산이 아니라, 성찰을 하면서 의식확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뭐 세상에 대해 여러가지 경험하거나 알아보거나 하는것만으로 의식반경이 넓어지고 생각의 틀이 깨지잖아요.

제인웨이: 성찰...! 경험 좋습니다. 맞아여.

다다: 말하자면.. 애착과 의존으로 배우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 안되니까 그런식으로 배우고 있는거랍니다. 애착을 못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성찰할 때 집중력이 좋을거예요. 저사람하고 관계안하는, 그래서 관심도 없는, 그런게 아니고, 관계를 하되, 실제적인 육체적 애착관계를 하는게 아니라, 의식간의 관계를 해봐요.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관심집중이다가

제인웨이: 의식간에 관계!

다다: 점점 더 케어하게 돼요. 마음이. 케어하면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애착을
마구 덮어쓴 담에 그걸 힘들게 지워서 사랑을 찾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제인웨이: 아 알거같아요 오늘 현친보며 느낌.

다다: 주의집중해서 그것이 내게 의미있어지면서 그래서 점점 더 케어하고
그래서 다른 많은 결점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서는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좋은점은, 사람에게만 하는게 아니라, 온 세상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룰테면 뭐.. 전철타고 집에 가고 있다고 칩시다.

제인웨이: 감동이에요 넘 감사합니다 진짜..

다다: 전철시스템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타고 그
이유는 그 역 근처에 산업공단이 있고 이 지역에 주거지역은 어디어디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내릴것이고 그러면 이걸, 사람들과 사람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주의집중, 이것이 더 나아가면 사람들에 대한 애정, 관심, 사랑, 케어
이거든요?

제인웨이: 아.. 네!!

다다: 이런걸 자주 한다면, 그 의식으로 무엇을 보든 도처에 사랑이 아닌걸
사랑이 되게하는 의식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고쳐주려고 하게
되겠지요.

전에는 그런걸 생각 안해봤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내게 의미있는 걸로 만들면.. 내가 논리적, 이성적이라서 사랑 못해 라는 생각이, 내가 논리적, 이성적이라서 사랑이 가득해 가 되는것이죠.

히치하이커: 우와....

해피: 진짜 멋있다

제인웨이: 현재 직장이 정말 배우라고 맞게 보내준게 맞는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다

다다: (내가말했지만 좀 멋진것같다고 생각중)

여기서 그런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개선하고 주의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케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스템 보고 케어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은 사람에게 저렇게 따스한 댓글 달아주니까 수행이 되었고 어찌고 나는 내눈에는 이런 구조상 결점만 보이니까 내마음엔 사랑이 없고 수행이 덜되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거 봐요 시스템 계속 고치잖아요. 사람보다는 시스템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거 쓰는 사람들이 혜택보고 전보다 더 행복감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인웨이: 맞아요 사랑이에요

다다: 사랑인걸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보는 그게 문제지

해피: 와.. 사랑이에요

비비: 헉 ππππππππππ

다다: 비비도 사람보단 시스템 먼저 보이는 스타일일거 같네요. 결점 먼저 보이고

비비: 엇 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다다: 글 쓰는거 보면 알죠 ㅋㅋㅋ

히치하이커: ㅋㅋㅋㅋㅋ

비비: 저도 제인장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ㅎ

다다: 예민하고 까칠하고 이런게 축복이지 결점이 아니에요.

해피: 우와

다다: 제 성격 봐봐요 되게 좀 급진적이잖아 막나가고 근데 그게 여기선 잘 쓰이잖아요. 뭐든지 잘 쓰면 되죠.

비비: 네네!!!

히치하이커: 다다장 저도 팀 운영 관해서 물어봐도 돼요? 왜 팀원들이 어떤 사람은 쪽쪽 잘해나가고 어떤 분은 쭈구리같이 있고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매정하고 냉정하게 더 잘 하셔야합니다. 할 때도 있고 아님 따뜻하게 얘기해야할때도 있고 다다장은 당근 채찍 기준이 있나용?

다다: 네

히치하이커: 무엇인가요

다다: 대체로 채찍을 많이 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치하이커: 네…… 그렇죠 근데 격려도 잘 해주시자나요

다다:ㅋㅋㅋㅋㅋㅋ농담이고요

비비: 맞아용

히치하이커: 그 타이밍이 궁금해요

다다: 마음을 느껴보고 그 바운더리 너머를 보게 해주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느꼈을 적에 그냥 안주하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행복하니까, 그 상태를 좀 더 즐기고 싶으니까. 그러면 채찍
안써요. 우주쭈해요.

히치하이커: 아

다다: 그 상태를 한껏 즐겨야 그 이상도 가려고 할 마음이 들기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상태가 마음에 안들고, 뭔가 마음에 바라는게 더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면 좀 채찍을 쓰는 편인거 같네요.

누가 쭈구리 되어 있을 적에

히치하이커: 마음 보는게 1단계군….

다다: 그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고 느껴보면

히치하이커: 아니 0단계… 네

다다: 자기가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자기는 그러기는 싫은데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는 엉덩이 좀 떼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거 같네요.

37. 사람이 힘들 수 있다.

엄나아가 많아서 새로운 습관을 탑재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 대화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몸이 안 하던 짓 하니까 당연히 힘들거든요

근데 막 힘들면 안된다

이런 관념이 강하니까 죽겠는거지

사람이 힘든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덜 힘들지도요.

부모님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뭐 딱히 일을 뻑세게 하고 있는 거도 아닌데
나한테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다 ->나는 슬애기
이런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거등

아마 애초에 다 하기 싫었던거도...

사람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못 받아들여서
아 힘들어 뉘지겠는데 힘들면 안돼 힘들면 슬애기
이런 생각 해서 더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힘든 거를 허용을 해줘요

그래야 그게 몸만 힘들고 마음은 안 힘들거등

근데 힘들 때마다 힘들면 비정상, 힘들 자격도 없으니까 힘들지 마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들면 힘들어하게 허용을 해줘야 낫지

힘들어서 나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힘든 내 감정에 대해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서 힘들다 라고 인정을 해야...

자기가 무슨 사람이 아니라 로봇같이 살아야 되는거처럼 여기고 있거등
덕분에 일도 잘하고 그런 쪽으로 탁월한 지성을 가진 의식구조의 인간이
된건데
대신 자기가 힘들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해버리면 속에 갈등이 심한거지.

힘들어

라고 말해봤어요? 감정청산 할 때

말을 해야지 터짐

나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안할거야

이렇게 반복해봐요 육성으로

수십번 해야 터지든 말든 할것임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면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말하기 싫어”

이렇게 아무튼 올라오는 거 다 내뱉음 됩니다

응 해보세요 그리고 아픈 인간은 한심하고 나약하다

이런거도 밖으로 내뱉어요

그래야 그 생각에 지배를 안 당하게 돼요.

밖으로 내뿜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관념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 그걸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고

내뿜어서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고 지배권을 약하게 만들면 그게 뭐 별거 아니게 되어서 지배력이 사라짐

한심한 인간아! 이런식으로

대상도 없이 그냥 내뿜어봐요

그럼 인간을 아주 그냥 통째로 혐오하는

마음이 나올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죽어야 돼

이 마음이 풀어져야 좀 회복이 됨다

글고 아침에 설치면 왜 힘드냐면

자기가 무능한 인간을 속으로 혐오하면 할 수록

자기자신이 무능한 것을 입증하려고 하게 되거든?

왜냐면 내면에는 자 타의 구분이 없어요

인간은 무능하다 = 나도 인간이다 = 나도 무능하다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무능해져야 된다고 무의식이 믿고 있는데

아침에 설쳐서 진취적이고 부지런하게 되려고 하면

무의식에서 알고있는 자아가 생 난리 발광을 하는거지

근데 개가 사라지는 과정이, 에너지를 좀 빼줘야 되거든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괴롭고

그 존재가 내면에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존재가 되어서 한풀이를 해줘야
에너지가 빠집니다

근데 인정하지를 못하고 억누르니까 그 존재가 분명 지금은 자기 자아의
일부인게 맞거든요?

존중을 못받고 있는데 계속 존중 받을 때까지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악을
쓰지요

기적수업에 죄책감 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인간들 다 쓰레기다 하고 내뱉으면서

그게 너무 진짜 같이 느껴지고(진짜가 아닌데)

이상하구나 하고 인식이 탁 되어야 그게 깨집니다

38. 누군가의 생각과 노력과 마음씀이 엄청 들어가 있는거야 물건 하나가

다다: 한달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2만원정도 예상하고요

분기마다 좀더 늘려줄거예요

얼만지는 사실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데..

봄봄: 세션후기 쓸때마다 주는거죠 빛디

다다: 어째선지 아직 계산해보는 사람이 없네. 시무룩

봄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두가 다부장님 같지 않답니다 ㅠ

혹시 음식점 가서 회전을 이런거 계산해 보시는지?

다다: 네

약간 좀

어디 매장 들어가면

봄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다다: 자동으로 인건비 세금 관리비 매출액 소득액 이런거 나오는 편

봄봄: 와우

전 경영학과 나왔는데도 1도 관심가져지지 않는편

다다: 비행기 타면 유류비 얼마에 고객 몇 명이고 마일리지 이용률은 몇프로쯤

봄봄: 일도 그런쪽이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타고난 부분..

다다: 될테니까 비행기 뜨면 얼마 벌겠군 이런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스타일

봄봄: 저는 그런 사람이고봤는데

다다: 새 가게 생기면 상권분석 자동으로 굴러가고

봄봄: ㅋㅋㅋㅋㅋㅋㅋㅋ얼ㅋㅋ

다다: 사업을 해봐야 해요

해보면 그렇게 된답니다

사업 여러 차례 하다보니 그렇게 된 편

봄봄: 30대 안에 해보는게 목표임다

다다: 그치만 이건...

내가 써놓은 1회권 패스 현금가, VIT-D가

다 써놨자나 ㅌㅌ

봄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르륵.....

(계산안해본1인..)

다다: ...

궁금하지 않나

봄봄: 왜쵸..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다: 지금 입고 있는 옷, 마진이 얼마 남았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봄봄: 그게 왜 궁금하져..

웃은..웃이다..

다다: 왜 그게 안 궁금하지

봄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다: 식당 가면 밥 한끼 사먹으면

식당 주인이 얼마 벌어가는지 안궁금한가여?

음 그럼 돈 말고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면

이 지역의 주요 특산품은 궁금하지 않나요?

주요 산업은?

교육수준은?

주요 관광지는?

상권은?

사람들의 주요 나이대라든가

차량 통행량

봄봄: 그런게 궁금하다고요??

다다: 엄...

봄봄: 듣다보니까 지난번에 제인에게 해주신 조언이 생각나네요

다다: 그럼 뭐가 궁금한데요?

봄봄: 카페에도 글 올려주신거

다다: 여행을 가는건,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물론 관심사가 좀 다를 수는 있지 뭐 이를 테면..

고성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면 그 뭐 역사나 가문이 궁금할수도 있지

봄봄: 관광지 특산품 이런건 궁금하져

다다: 관광지가 궁금하면, 그 관광지의 회전율이 궁금해지자나

봄봄: 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일상을 어케 사는지가 궁금해요

다다: 그러면 회전을 알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관광지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알아야하구나

봄봄: 회전이 왜 때문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다: 그거를 알면 그 관광지 말고 다른 제조업 같은게

봄봄: 와 인가 많다 여기~~~(끝)

다다: 없어서 관광지로 벌어먹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

그럼 왜 그런 제조업이 이 지역에는 없냐

지리하고 관련이 있거든

봄봄: ㅋㅋㅋㅋ제 고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 안해봤네요..

다다: 제철소나 원자력은 물이 필요하니까

엄..그럼 뭐 경제나 이런 데는 관심 없을수도 있지

인간에 대해서는 궁금할수도 있자나

저 인간은 왜 저런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는지

봄봄: 맞아요 저는 그게 젤 궁금해요

다다: 호기심이란 동물하고 구분되는 인간의 특질이거든

봄봄: 상대의 사고방식 가치관

다다: 그게 많을수록 인생에서 성취도도 커요

봄봄: 선택의 이유 같은거

오..맞는거 같아요

다다: 그런데 한 인간을 아는데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산업구조를 모르는데 과연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봄봄: 오….

다다: 그 지역이 이를 테면 나는 울산 출신이거든

울산은 청정지역과 공단지역이 섞여있어요

100프로 고용률에 GDP가 전국최고거든

6만불이니까

봄봄: 마자요 그건 본거 같아요ㅋㅋㅋGDP

다다: 그러면 여기 문화가

자동차 석유 화학 조선

사람들이 기본 성실하고

봄봄: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 한땀는데

오토바이군단

다다: 자동차 매너도 좋고

도시의 전체적인 문화와

포항하고 좀 비슷하지

이를 테면 뭐.. ○○하고는 다르겠죠?

봄봄: 한번도 그렇게까지 생각해본적 없는거 같아여

저는 ○○출신인데

ㅋㅋㅋㅋ제 고향에 대해서도..

사람봄비네~(끝)

다다: ○○사람하고 울산사람이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울산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바람핀다든가, 타지역으로 떠돈다든가 하는게 충격이라고

○○사람에겐 그렇게까지 충격이 아닐수가 있어요

그런게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를 만든다고

봄봄: 그렇네요 진짜로

다다: 소득수준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논할 수가 없지 사실

친구든 연인이든 뭐..가족이든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봐야지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느낌이라도 오는거고
그것도 안해보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해라는걸 하겠어요
이해하는걸로 착각하는거지

봄봄: 와...진짜 그렇네요

저 지금까지 이해하는 걸로 착각하고 산듯요..

다다: 그냥 대부분 좋은게 좋은거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는거지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깊이 있게 음미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되어보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 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지구 속에서 나오지요

봄봄: 사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다다: 광물이야 우선은

봄봄: ㅋㅋㅋㅋ엎

다다: 그게 정제가 되어야 되죠

대체로 높은 열을 통해서 정련이 되고

철로서 된 후에도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에 제철소에 가죠

그럼 금속 판형으로 가공이 된 담에

금형시설이 있는 각종 공장으로 운반이 돼요

그러면 금형 하는 사람이 기계에 그 금속판을

걸어가지고 또 가공을 한다고

캐드 같은거 써가지고 프로그램 돌리고

포크 하나 나오려고 해도 수많은 공정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알면은 매사 사물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로 안보이지요

봄봄: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이렇게나 다르네여

다다: 다 귀하지요

봄봄: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진짜 다 귀하구나

다다: 누군가의 생각과 노력과 마음씀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야 물건 하나가

봄봄: πππ

그 말 글에서도 읽고

다다: 그거 못버리는 엄마가 구질구질해 보인다

봄봄: 했는데 새롭게 와닿아요

다다: 이런 거도 상대방 생각을 해보면

그니까 이런 뭐랄까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얕으면

사서 고생하는 거지

화 안 나도 될 일에 화 나고

안 싸워도 될 일을 가지고 싸우고

봄봄: 제가 꽤 오랫동안 엄청 냉소적으로 살았어서(겁먹어서 시니컬한 척)
예,,,

다다: 도처에 은혜 받은거 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보고 사니까 자기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봄봄: 맞네요 진짜로

다다: 막 눈물이 펄펄 나야 한다고 진짜로 사람이 좀 되면

너무 자기 몸 받은게 귀하고 고마워서

봄봄: 아직 사람될람 멀었구나

다다: 그 몸 하나 숨 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옷 입어야지 신발 신어야지 뭐 손톱발톱깎이도 필요하고 샴푸며

이런게 전부 누군가가 공들여서 고생해가며 고안하고

누군가 어느나라의 노동자가 피땀흘려 만든 거라고

봄봄: 저 사실 제인이한테 그 조언해주신 거 연어할때도 카페글 읽었을 때

다다: 그 사람 자식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거 만든다고
같이 못있었다고

봄봄: 저한테 와닿는 얘기라고 안느꼈는데..

ㅠㅠㅜㅜㅜ

다다: 자기가 그거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듣게 되는 거야

봄봄: 맞아요

다다: 이렇게 일대일로 이야기 하면 들리자나

자기가 의미 있다고 보는 만큼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지요

봄봄: 나는 제인이랑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거 같아요

다다: 웬걸

봄봄: ㅋㅋㅋㅋ사람한테 관심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네...

다다: 다 어느 날 바닥에 무릎 꿇고 와 제가 진짜로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눈물 펄펄 흘리면서 참회하기 전엔

인간이 아닌 채로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이 원래 동물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되게 하는 게 성찰이지

봄봄: πππ

다다: 현대 사회에서 누가 성찰을 잘 하나?

철학자나 하지요

근데 그 철학자요 지식만 들이파지요

봄봄: 맞아요

다다: 자기 엄마가 자기 낳아서 키우는데 똥귀저기 몇 개 갈았는지 성찰을 하나?

쓸데없는 뭐... 어느 대학교 등록금이나 불러줄 것 가지고 논문이나 쓰고 있지

차라리 이공계쪽이 낫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주니까. 기술로

봄봄: 그런 거 없음다

아 이건 일 애긴데

세션후기 쓸 때마다 에어드랍 해주는 거죠?

그럼 페페한테 엑셀 체크하는 거 말고 숫자 입력하는 걸로 바꿔달라고
하려구요

다다: 스시요?

광업 스시 자체는 강 두시지

봄봄: (이미지)

이거요

다다: 이거 체크하면 옆에 합산 나오자나요

숫자는 위에 써있고요

봄봄: 세션후기 쓸 때마다 적립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다: 와. 세션후기 항목만 숫자로 바꿔야겠네

이거봐 내가 이런 생각을 못해

봄봄: 예 페팀장님께 요청하겠심다

다다: ㅋㅋㅋㅋ매니저 잘됐다

봄봄: ㅎㅎㅎㅎㅎㅎ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다다: 네

봄봄: 동아리장은 월로 봐야 하나요

다들 겸직이라서 〇〇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입니다

팀원으로 보는 것인지?

다다: 동아리장은 에어드랍이 없어요 지금으로선

봄봄: 아아 넵넵

다다: 〇〇가 얼마나 일은 안 하는구나

동아리장을 팀원 정도는 쳐줘야겠군요

봄봄: 넹 ㅎㅎ 조직도에 있긴 있어요

다다: 팀원란에 체크해주세요

봄봄: 옹

다다: 이런 거도 마음속으로 굴렸을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을?

이런 거 세심하게 잘 잡아내는데

그 영역을 세상 모든 거에 확장하면

얼마나 뛰어난 능력자가 되겠어요

봄봄: 흘그흑흑

사람도 되고 능력자도 되어볼게요 다다

고맙습니다 ㅠㅠ

다다: ㅋㅋㅋㅋㅋㅋ네 ㅋㅋㅋㅋ 근데 지금도 훌륭하니 걱정말아요 ㅋㅋㅋ

39. 0203 세션엿보기 - <하겠다> 마음먹으면, 하기싫은 마음이 안올라오는게 정상입니다

0203 에너지워크

10시 세션 후반부에서 9시 세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와 허락을 구하고 올려봅니다.

돈이란

남에게서 가져오는거예요

그쳐?

이거 이해 못하면 돈 벌기가 힘들어요

남이 나에게 돈을 지불할 기분이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건데요

꼭 행복은 아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해줘야 하는데

자기자신이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인품이라든가..

어떤 뭐.. 능력이나 기술이 안되는데 어떻게

돈이 그냥 쉽게 오겠습니까?

젊은시절에 고생을 꼭 해보시고요

실패도 해보고

직업윤리를 갈고 닦아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요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벌어들인

그 돈 그냥 허물어집니다

하기 싫은 일도

땀 흘려가면서 해보시고

일이란게 어떤건지 느껴보시고

그냥 오지 않습니다 (돈이)

일을 하면요

하기 싫은 일 안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돈 벌릴 거 같잖아요?

실은

하기싫은 일이 없어져야 안정적으로 돈이 벌립니다

내가 이 일은 못하겠어

노가다는 못하겠어

식당 서빙은 못하겠어

왜 못하는데?

자신이 없든,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든...

아무튼 남들로 하여금

급게 돈을 줄만한 고운 기분이 들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우라를 풍겨가지고는

안정적인 현금수입은 창출이 힘들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거리낌이 없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기 싫은거 피해다녀가지고는

마음 한구석에 켕기는 마음이 늘 있고

하기 싫은거 일부러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2년이면 인생 변하기 충분하답니다

2년이란 인생에서 참 짧은 시간이거든요?

80년 산다 치면..

40분의 1인데.

그러나 그 2년간 싫은일에 부딪치며 도전할때 인생이 변해버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조차 평생, 대부분 안하기에

세상엔 능력있는 사람이 되게 드물며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는 근기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드문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기란 쉽습니다

아무도 도전을 안하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하기싫지만 열심히 웃으면서

매일 노력하며 자기 쇄신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별로 보기 힘들죠

100명중에 1명

그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안해서 그렇죠

네 젊을 때 해야 됩니다

나이들면 잃을게 많아지잖아요

잃을 것 없는 거

그리고 체력이 좋은거 두가지가 큰 자산입니다

하기 싫은 일어요

성실하게 해가지고 잘 하게 되면

좋아하게 됩니다

잘 하니까 칭찬듣고 돈도 버는데

당연히 좋아하게 되죠

하기 싫은 일이란 실은

잘 못하는 일을 달리 말한 것이에요

잘 못하니까 칭찬 못받는다, 그러니 하기싫다

이렇게 된것이죠

못하는거 인정하기 싫으니

하기 싫다고 포장하는거예요

자기자신이 자기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감탄해야

잘하는거라고 볼수가 있죠

스스로를 감동, 감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남이 감탄하죠

그리고 내가 나스스로의 퍼포먼스에 감탄을 하면

남의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찬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뭐를 하면요

아주 집요하게 해보세요

어느정도까지 하느냐면요

그 퀄리티를 내가 수없이 고쳐가지고

땀이 막 나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이럴정도로 고쳐보세요

그래야 인생이 진짜로 그 습이 변한답니다

네 자기 쇠신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요

그러니 정말로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데로 사는 사람이 드문데

정말 힘드니까 그런것이죠

네. 하기싫은 마음은

내가 이것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딱 먹었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안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마음 먹었는데,

왜 반대 맘이 올라옵니까?

나를 방해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딱 마음 먹었으면

그거 하고 싶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를 하겠다! 라고 하고

실제로 하실 적에 그 하기 싫은 마음이

막 몸을 아프게 합니다

등짝도 아프고

눕고싶고

혼미하고

그러면 연단하시면됩니다 ㅎㅎㅎㅎ

개운해지죠?

그리고 그 싫고 괴로운

마음을 느끼면서 내보내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몸이 실제로 막 아프지요.

계속 하면

그걸 하면서도 안 아프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한 지경이 되면

그러면 그 일로 인해

배울 것을 다 배운 것이니

다른 일 해도 됩니다

뭘 하든 하기가 싫어서 막

몸이 배배 꼬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후기 써주세요

호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40. 0210 세션엇보기 - 빛과 우산

세션에서 걸다리 몇개 올려봅니다

비유가 예뻐서 나누고싶네요

〈빛과 우산 / 수행할때의 신체적 통증〉

여러분 수행을 하시면요

몸이 주기적으로 아프지요

몸살도 겪고

두통도 있고

치통이 있어서 충치인가? 싶어서

병원 가봐도 이상 없다 그러고

빛이 몸에 들어오면요

빛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내가 영이 아니라 영혼이지요?

내가 아는 나 말예요

영성책에서는

영혼이 진짜고 몸이 가짜 이런식으로 말하지만

우린 그거 아닌거 알잖아요?

영혼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에 세우면

영 으로부터 빛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영혼은 ‘날 알고 싶어’ 라고 하면서도,

쓰고 있는 우산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빛은, 낡은 우산 사이로 물이 몇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빛이 조금 스며들면
그것만으로도 빛을 전혀 모르던 존재에겐
큰 것입니다

어 이게 뭐지?
이런 건 처음이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충격도 받습니다
우산 밖에 다른 세상도 있었어...?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장이 진동을 심하게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요
빛이 들어와서 다른 거를 쓸어버리는데
그 쓸어버리는 강도가 세진 않지요

그래서 야금야금 아픕니다.

아픈 것은,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수행 후에 몸 아플 적에는

약 먹지 말고 그냥 몸 따뜻하게

하고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지요?

운동해서 땀 빼면 빨리 낫는다 그랬고요

약 먹으면 인위적으로 체온 내려버리기에

더 오래 아프면서 아픈 줄을 몸이 인식을 못해서 파동이 덜 버려진답니다.

확 아파버리면서 땀을 마니 빼는게 좋습니다.

아픈 거는 나쁜게 아니에요.

몸이 알아서 정화작용을 거치는 것인데

수행할 때 아픈 이유는

빛이 들어와 몸을 흔들면서 몸이 탁기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사 많이 하게 되지요.

설사도 그냥 설사가 아니라 물설사...

물이 물총 쏘는 것처럼 나오죠.

이질 같아서 병원 다녀봤자

소용없습다 설사

할만큼 해야 낫습니다

41. 0213 세션엿보기 - 아 나는 사랑스럽구나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비난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비난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며, 그걸 갖고 있어서 벌 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래요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죽을 죄가 아니죠.

그거 들키면 큰일난다

이렇게 여겨요

사람은 어리석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자리를 되찾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어리석어요.

내 어리석음을 인정 못하면

남의 어리석음도 당연히 인정 못하지요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긴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가지 시각으로 하나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시야가 협소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핑계 대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게 없는 척 하려면요

있는데 없는 척 하면 힘이 듭니다

피곤하고 답답하고 졸리고 혼미하고

있는 거 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요

벗어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뭐를 안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를 위장을 하든 뭐를 해야 되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내게 사라지지요?

영향력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가 대단한 실체라서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갖고 뭐든 해야된다

피하든 위장하든

내가 그것에 의미를 두고 영향력을 주는 거지요

아 있구나

근데 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있든 말든 뭘 상관인가요?

〈진짜 자기자신이 되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여

인격적인 어떤 특성 있잖습니까?

이거는 영적 깨우침하고 반드시

함께 가지는 않는답니다

이상적인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린 여기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원리만으로 치면,

만일 깨우쳐감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인격이 정렬 된다면

모든 성자는 동일한 인격을 갖고 동일하게 반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기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어떤 습을 가져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든

그게 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그게 뭐 죽을 죄도 아닌데

남에게 크게 폐 끼치는게 아니라면 괜찮다

이렇게 관용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지

내가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

무조건 뭐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이런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게으름 조금만 피워도

자기비난 올라오죠?

근데 자기비난이 점점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신성에 가까워지면서

모두가 다 부지런하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게 아녜요

그저 자기자신이 되어 갈 뿐이에요.

자기자신을 버리면 진짜 자기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진짜 자기자신이 어떤 이는 세상에 온 목적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데에 기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영적으로 뉘어나갈수록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저 게으름을 피울 적에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게으름 피우면서

마음 편하게

으하하하 게을러서 너무 좋다아

이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자유가 생기는 거랍니다

ㅎㅎㅎㅎ

내가 지금 돈 없어서 게을러서 안되는 상황이야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5분 10분

마음 편하게 게으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못하니 마음이 얼마나 바빠니까

자기자신의 모습이 속에 뭐가 있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왜냐면

그거 전부 다 진짜 내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고 없는 척하거나 자꾸 덮어씌워서 가리면

봐야지 버리지요

네네 자꾸 민감해져서

더 괴롭기도 합니다

<칭찬, 찬사를 들을 때 의심하거나 오글거리는 마음>

여러분이 다다한테 막 찬사 보내면

제가 뻔뻔하죠?

뭐 그렇게 감동 안 하거든여?

그 마음은 예쁘지만요

왜 그래요 그건?

난 다다라고 내가 철썩같이 안 믿으니까요.

난 인간 다다라는 특질을 가진

그런 존재를 벗어난 존재이기에

사람들이 보는 인간 다다건,

세션하는 다다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보는 것일 뿐, 내 본질이 아니란 말예요

근데 그러면 남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뭐라고 찬사를 하든

그거야 그 사람 맘이고

나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도 괴롭고
좋은 말 들을 땐 더 괴로워하는 그놈은 실은
자기가 반지라고, 페페라고
그것만이 자기의 본질이라고
철썩같이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걸 해서 깨주는 거예요
내 본질이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는 예쁜 마음이 와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집착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보이는게 아니라
내 고집, 내 집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해 되시죠?

너 참 예쁘구나
라고 해보세요

친구들 보면서

예쁜아

오구오구 너 예쁘구나

고양이한테 예뻐할 때는

그런 기분 없거든요?

왜?

그냥 순수하게 예쁘잖아

사람한테 왜 순수하게 못하나요

왜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예뻐 받으면 오글거리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온갖 상념이 있어서

그것들이 부딪치는 거지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 나는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십니다

맞죠?

42. 기택강독 20221228 기적수업의 핵심개념 〈희생〉 1

네 오늘은 뭐를 할까요 성령님? 하고 책을 펼쳤더니 이 말이 나오네요

〈너는 너만을 해칠 수 있다〉 535쪽 합본입니다

어디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나 같이 볼까요?

〈너는 너만을 해칠 수 있다

이 점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별함에 빠져 있는 마음은 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단락입니다

〈공격의 목적은 마음에 있고 공격의 결과는 목적이 있는 곳에서만 감지된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위험한 목적은 마음 전체를 다치게 한다〉

좀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4단락 마지막쯤입니다

<실재인 모든 것은 형제의 무죄를 선포한다>

아래에서 4줄

<거짓된 모든 것은 형제의 죄가 실재라고 선포한다

만약 형제에게 죄가 있다면

너의 실재는 실재가 아니라

한순간 있다가 먼지로 사라지는 특별함의 꿈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리석은 꿈을 방어하지 말라>

다음 장 가볼게요

<만약 네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고통스럽다면

너는 형제 안에서 죄를 보았고

형제 안에 있다고 여긴 것을 기뻐하였다>

네 이 부분 보니까 이중에서 마지막 2줄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이상하게 이 단락을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니까

뭐랄까

오늘 내용 전체요

거부감이 많이 올라와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시는지 느껴보고 있습니다

억울함도 느껴지고

저항

황망함

같은 페이지입니다

536쪽

맨 아래에서 4줄 올라오세요

〈그(그리스도)가 평화로운 이유는 그의 시야에는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면 그가 가진 것 중에

네가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는 너의 눈이요, 너의 귀요,

너의 손이요, 너의 발이다〉

이 부분 아름답지 않나요?

예전에 기꺾 캘리그래피 할적에 몇번이고 써보던 문구네요

더 위의 단락은,

마치 나보고 죄인이라고 고발하는것처럼 느껴지고,

아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싯구같은 구절은

나의 죄를 씻어주는것같은 느낌이 들겁니다

기적수업은 이런식이죠

마냥 편하게 읽히지가 않죠?

영성 책이니까 위로만 해주면 좋겠지만

발가벗기고 고발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을 많이들 느끼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팩폭 작렬하냐 너무 적나라하다〉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을 보자면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뭉쳐놓은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자유로워지는데

그냥 그걸 보는거 자체가

마치 나 자신이 꿩처럼 숲속에 머리만 쳐박고 있고

그런 나자신의 머리를 아니 대가리를 억지로 빼가지고

<이걸 봐 보란말이다!!> 라고 하고

개가 총격받아 줄줄 우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하는거도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는것도 아닌데도

나는 억지로 보는 일 당하는 것처럼

억지스럽게 여겨집니다

억울하고요

여러분이 수행 하다가, 자기 내면에서

<아 내가 이렇게 무례하구나, 무모하구나>

이런걸 느끼고 참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울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껴놓고는,

며칠 지나면 스멀스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 무례하고 무모한 나를 고발하는 내가 되어가는 나자신이 싫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한 말 같네요.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중에 하납니다

말로 설명을 하면 바로 저항이 올라와서

보통은 설명도 안합니다

그냥 제가 말없이 에너지워크만 합니다

참회 수행을 하려면, 자신이 보기싫은 모습을 봐야만 하잖아요

안보려고 발악하던 부분이니 처음에는 그거 못봅니다

딴거만 계속 보면서 중요한건 냅두고 겉다리만 짚습니다

인생이 좀 나아진거 같긴한데 정말 중요한건 그대롭니다

이를테면 난 수험생이다, 공부 하기가 싫다

수행을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개선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따뜻해졌다

잘나가는 친구들도 보면 이젠 전만큼 시샘이 올라오지 않는다

잘 해온 것 같다

그러나 내 현실은 여전히 공부 하기가 싫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렵고 주변에서도 나를 말린다

찢리쵸?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것은 내버려두고

오 오늘은 저항이 넘 많이 올라와서

타이핑이 잘 안쳐질 정도네요

호호호

(에너지처리하기위해 사람들이 땀생각하게 하려고 땀소리 하는 중)

친구들 오늘 카페에

연단하살법

이거 웃기지않아요?

안녕하살법 이거 아세요 뭔지?

(스레드에서 사람들이 안녕하살법 설명중)

오 잠깐만요

카페에 오늘 이상한 글 있었어요?

누가 지웠지

네 아무튼 지금은 없죠?

네 그거 어디든 있는 같은 글입니다

네 매크로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글요

(에너지 안정되어 다시 이야기 시작)

수행이란 뭘까요

수행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딱히 뭐 다른 단어 쓸것이 없어서 쓰고있습니다

수행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행이라는 단어는, 무언기 실제로 행함을 말하는거잖아요?

아까 예시를 들어서 그 공부하던 분이

어떻게 해야 참수행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대답 : 싫은거 하는게 수행이니

힘들어도 공부하는게 참수행이다)

공부를 해야 참수행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무언가가 해야할 일 이라고 규정하는 놈은 뉘두고

그 해야할 일을 하면 참수행인가요?

누가 규정하나요?

<그거 해야돼> 라고 믿는 그놈은 누군가요?

<공부 좋은건데 싫다고 하다니 이상해> 라고 규정하는 그놈은 누군가요?

싫을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져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공간에 하루에 십수시간 가둬놓고

같은거 시키는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않나요?

그럼 그 자연스런 마음보고

<너 이상해 너 왜 공부 그냥 하면 되는데 안해?>

하는 그 놈은 누구예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직장 다니고 싶어져야 내가 참수행이 된거다〉 라고 여긴다고 칩시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계속 그 직장 다니기 싫은 마음과 갈등하고 있으면

직장 강 때려치고 다른 직장 구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경우하고

어느쪽이 참수행일까요?

(사람들 대답 : 다른 직장 다니는 게 참수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 대답 : 억지로 하는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다른 직장 구해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던 사람이,

그 직장의 재무상태가 나빠져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전처럼 다시 자기 직장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감사하며 만족한 것은 뭐죠?

되돌아왔잖아요?

아 뭐 어찌라고? 싶지요 ㅎㅎ ㅎㅎ

그 직장 다니기 싫은 그 마음을 보는것이 참수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다니기 싫은 마음을 봐야 한다고

자신에게 강요하며 싫은것을 꾸역꾸역 해내면서 참수행자라고 위안한다면

그건 또 참수행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역설이 있어요.

참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란 어떤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상태란?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처참할까요 보람찰까요

즐거우면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참수행일까요

그럼 연단은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졸 괴로운데

요새 연단을 두어달 제대로 안하던 분들이 연단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카페에

너어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괴로워하는 마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

괴로워하는 마음의 특징은요

그 마음 자체가 괴로움에 집착을 하는 마음이기에

이걸 해도 괴롭고 저걸 해도 괴롭고

이걸 안 해도 괴롭고 저걸 안 해도 괴롭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괴로워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괴로워

이 괴로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든

그냥 괴로워요

뭘 안 하면, 하는 것보다는 덜 괴롭지만,

안 해서 뭔가 불이익을 본다고 여기면,

안 하기 때문에 괴롭고.

아 뭐 어찌라고?

우습지 않으세요?

좀 비웃어보세요 그 마음

참수행 한다고 해놓고,
좋아지면, 좋아졌지만 본질은 괴로워서 괴롭고
마음 속에는 늘 비웃는 존재가 있지요

<이거 봐 이거 좋아지면 뭘 해?
본질적으로 내 괴로움은 똑같아 이걸 바꾸지 않을거야>
느껴지시죠?

괴로움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동안,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자기비난을 끝없이 합니다
비난 하는 동안은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끝없는 정신활동을 하면서
의식을 왕성하게 씹니다 비난하는 데에
영성에 빠지기 전에는 남을 비난하는 데에 왕성하게 썼는데
이제 영성을 건드린 후에는

<남을 비난하는 남 혹은 자신>을 비난하는 데에 왕성하게 씹니다
이것도 우습지 않나요?

<나는 이제 남을 비난하지는 않아,

근데 재는 아직도 저런거 보면서 남들보고 욕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네 아휴
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져서 다행이다>

너무 빠대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느껴보면

보통 생각을 1겹으로 안하고, 3겹 4겹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특히 가족이나 연인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대화하는 말의 내용>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과,

<내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감정> 세가지가 다 다르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나자신>도 가만히 의식하면 느껴지며

<그 인식자를 숨기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 두려움>도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겹겹이 층층이 되어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도 이런사람 있지요?

출대 부르르 떨면서

<어 추워>

아 춥구나! 하고 옷을 갖다주면

<아니야 괜찮아!>

춥다여 이거 입어~

<아니야 나 ~~~ 해서 이 옷은 못입어>

응 그래? 그럼 히터 틀어줄까?

<아니야 ~~ 해서 히터는 지금 안틀어줘도 돼>

(스레드 웅성웅성 : 우리 엄만데? 우리 엄마다)

<우리엄마다> 에서 뺏겨졌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춥다고 왜 매번 그러냐

나는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 추우니까 춥다고 하지 어찌라고. 말도 못하냐???)>

이분은 추운 거를 좋아하는거예요 싫어하는거예요?

추워하고 싶어요 안추워하고 싶어요?

추운거 싫어서 부르르 떨면서 인상쓰잖아요

그럼 시러하는 거자나요

근데 안춡게 해주면 거부하잖아요

이분 왜이래요?

뭘 얻으려고 이러는거예요?

네 맞아요 @@님

<자기가 시러하는 일을 당하는 걸 유지함으로 인해 얻는 심리적인 이득>

이분같은 경우엔 그게 뭡까요?

관심과 애정요?

아니죠

상대방이 웃입혀주는걸 받아들여야 애정을 받는거자나요

안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바라는건 애정과 관심이 아니예요

맞나요?

그럼 뭘예요? 뭘 바라고 이러는거예요?

<내가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상대는 절대 내 불편을 해소해줄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있죠?

거기서 내가 얻는 득이 뭐예요?

내 행동 하나에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이건 권력 아닙니까?

어 추워. 하면 상대방이 절절 매잖아요

계속 절절 매게 하려면 난 계속 추워야됩니다.

이 상황을 남녀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여자가 <아이 추워>

남친이 응 자기야 이거 담요 덮어줄까?

<아냐 그 담요 빨지 않은지 오래되서 지저분해>

응 그래 그럼 히터 틀어줄까?

<히터 틀면 피부가 쪼그라드는 거 같아>

이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려고 하는걸까요?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고 하는거지요?

남자로 하여금 남자노릇을 못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이 남자를 전전긍긍하게 하는 능력이 더 커지는겁니다

자 둘이 결혼 했습니다

이 여자의 무의식은, 남자가 해주는 서비스를

작은거 하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작은 것부터는,

〈이걸 왜 사와? 저게 더 싸고 성능좋은데〉 부터 시작해서

〈친구네는 이번에 어디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갔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 친구 남편 승진했다더라

그친구 남편은 새벽부터 조깅하고 밤에 학원다니면서 자격증 따더라〉

예시가 너무 팍팍작렬이에요?

이 여자분이 얻는 득이 뭐예요?

가짜신 노릇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가짜신 노릇 해서 그 대가로

남편은 불만족스러움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즉, 돈도 남의 남편보다 못 벌어야 하고

내 취향 하나 사소한 거 못 맞추는 남편이 되어야

그래야 내 권력이 더 썩습니다

43. 기택강독 20221228 기적수업의 핵심개념 〈희생〉 2

부모와 자식 노릇으로 다시 가볼까요?

엄마가 춥다고 하시네요

딸인 나는 엄마가 추운걸 보면 죄책감이 듭니다

엄마는 내가 히터 놓아주거나 보일러 바꿔주는걸 거부해요

무릎도 아프고 추워서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이 많은데?

나는 절절 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성인이고요

엄마도 성인이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절절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게 대놓고 말하면 오히려 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겠죠

그러나 나는, 이런 현상을,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절절매지 않으면
엄마를 버리는거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 절절 맵니다

(스레드에서 누군가 지각한 사람이 와서 인사하는 중
인사에 다수가 응대해주는 중 그 상태가 한참 가는 중)

자 지금 스레드에서는 계속 다른이야기가 오갑니다
이거는 왜 이런걸까요?

기택강독 일주일 기다려서 여기 들어와놓고
왜 다들 지각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것일까요?
사람의 행동이 우습지요?

기택강독 듣고싶어서 왔어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말을 걸어
지각한 사람이야

원래 도중에 들어올때 인사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사를 하든어쩌든

여러분이 자기가 하던거에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만

그냥 가만히 못있는 그 마음은 무얼까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모두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무례하게 굴고들 계시죠?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택에 집중해서

더 좋은 인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남의 어떤 요구에 절절 매요

여기 누가 들어와서 어떤것을 요구하는것으로 느껴지면 끌려가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웬 할머니가 들어와서 계속 말을 거네요

나는 말을 섞기 싫어요 할머니 동네 마당발이야

그럼 강 말을 안섞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 걸면 대답을 안하면 죄책감 올라와요

그래서 대답을 하긴 해요

근데 밝게 못하죠 톡톡거리게 되죠

그럼 톡톡거리어서 또 내가 형편없는 사람같은 기분이 들어요

〈말을 애초에 안했다면 들었을 나자신에 대한 인식〉하고

〈말을 해서 드는 나자신에 대한 인식〉

그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말은 왜 했대

아 뭐 어찌라고?

자 이런것을 보고 좀 웃어보세요

웃기지않아요?

얼마나 일희일비 침소봉대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내 소중한 인생이고 소중한 삶인데

남들이 다 내 목줄 쥐고 있는 것마냥

그리고 남이 내 목줄 쥐고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되는지 아세요?

내가 목줄 쥐었다고 (무의식중에) 믿고 있는 자에게

원없이 무자비한 권력을 펼칩니다

어 추워

하면 절절매는걸요

계속 추워야죠

<히터 놓아준다>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기세 비싸다>고 못받아들이죠

<전기세 내준다> 그러면

<뭐하러 전기낭비하냐>고 그러죠

이런 목줄 쥔 인식이 강할수록 주변사람이 행복할수가 있을까요?

(스레드 : 우리 엄마 얘기다)

엄마란 왜 비슷하게 행동할까요

엄마란 어떤 존재이길래, 왜그럴까요?

이거 잠시 고찰해봅시다

희생하는 존재. 네

또요?

자식들에게만큼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힘으로는 권력 못가진다

(스레드에서 올라오는 대답에 응하는 중)

희생이라는 것은 기적수업의 핵심 개념중에 하나죠?

네. 자식은 내 소유물이다

근데 아빠는 안그러는데 왜 유독 엄마만 그래요?

아빠도 자식 있잖아요

다다 글중에 성시리즈

1편만 남기고 나머지는 카페 오픈 후에 창고로 넣어놨습니다

그게 아마 7편까지 있나 8편까지 있나

그담에 남자란 무엇인가 시리즈 2편에 달린 댓글 보신 분?

아하. 다다글중에 갤럭시 글의 댓글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시죠?

사람들의 행태 즉 에고의 행태를 알고 싶으시면

다다글은 댓글이 찢입니다. 댓글을 제대로 보시면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예고의 양식이 제대로 보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 남자가 몸이 크고 힘이 세니까 남자가 더 썰거같냐?
천만에 여자가 한이 서리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여자란 위장하여 숨겨진 예고이기때문에 더 강하고 세다
시어머니에게 당해봐서 알잖냐? 얼마나 지독한지?>

이거를 여자, 남자를 벗어나서요,
한꺼풀 겹을 더 덮어쓴 예고라고 봐 보세요
이게 희생자 예고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얻으려면, 가해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하고,

<권력을 얻으려면, 피해를 입어야 한다> 라는 입장하고,

이를테면 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치정살인같은거 말고

외국에 뭐.. 길가다 히치하이킹 하는 여자 납치해서 죽이고 땅에 파묻는
그냥 모르는 사람 죽이는 연쇄살인범이라고 칩시다

이 연쇄살인범하고, 이 살인범에게 우연찮게 당해서 죽는 여자하고,
세상에 종속되는 강도가 다르겠습니까?
가해를 하면 자기의 가해가 눈에 보이잖아요
잘못인거를 인정을 할수는 있잖아요

피해를 당하면

〈나는 잘못된거 없는데요?

우연히 그냥 표적이 된거기땀에 이걸 그냥 억울하기만 하고 개에게 물린거지
내 책임이 아닌데요?〉

바로 이러니까 희생이 기적수업에서 최고가는 개념인거죠

이해되세요?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안 봐도 되지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희생자에게 영혼이 있다고 칩시다

이 영혼은 왜 이런 사람의 인생을 택해서 태어난걸까요?

멍해지죠?

네 짐작도 안가지요.

이 앞뒤가 안맞는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걸 영혼이 자발적으로 겪을까

이걸 겪음으로서 뭐가 좋을까

가족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이런일을

왜 굳이 겪으려고 할까

〈자기가 기존에 누구를 죽였다고 믿기에,

그 죽임을 당하는 자의 입장도 되어서

그 죽인자의 죄책감이 뭔지 겪어봐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혼은

심지어 영성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그러지요

〈체험이야, 경험이야. 별거아냐〉

그런데 세상의 고통이 많다고 치면 그것을 굳이~

겪으러 와서 굳이~

20년동안 지하실에서 아버지에 의해 감금당하는 삶을 굳이~

세상에 참 별별일이 많지요

<기쁨이건 고통이건 분별하는 마음이 이상한거야~

다 경험이고 체험이야~> 라고 하는 그 영혼의 메시지는 도대체?

이상하다고생각 해본적 없으세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또라이같잖아요

경험, 체험 하려면 좋은걸 경험해야지

사실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경험, 체험이라고 합리화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의식수준이 그것을 자기가 겪어야 할 삶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거예요

다른 걸 택할 수 없고 그것만 택할수가 있다

"그것"이란

<20살에 살해당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30살까지 10년간 감금당하다 죽는 삶을 살래?>
그 둘중에 하나는 택할수있는데,

<80세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거는 택할 자격이 없다>
왜? 아예 의식의 반경에 없다
그래서 그 인생 그림을 덮어쓸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선택>이겠습니까?

아까랑 같죠?
엄마야. 추워.
안 추운 삶을 택할 수 있어
내 딸 이제 능력되어서 보일러 갈아줄 수있어
근데 그렇게 안하기를 택해
왜?
<돈도아깝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민폐고
전기도 아껴야되고>

살해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영혼이라는 극단적 이야기하고
출기를 선택하는 사소한 이야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니까?

영혼이 택하는 거하고, 인간이 택하는 거하고, 같죠?
여기도 꿈이고, 영혼의 세상도 꿈입니다
살아있는 꿈을 꾸고 있다고 믿다가,
죽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다가
다 꿈속입니다

처음에 저항 올라올 적에는 혼미하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몸 좀 편하시죠?
우와 진짜 그러네?
헐 정말이네?
하다보니까 편해지셨죠?

네 그런데 영혼의 세상에 있을적에는
이렇게
우와 진짜 이러고있네?

정말이네? 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사는 곳, 또다른 꿈 속은

아주 강력한 명령어가 걸리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최면, 최면이 걸리는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계를 아스트랄계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범죄자라고 믿으면,

범죄자 아닌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곧 존재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때 꿈을 꾸는 것도,

잠들기 직전의 의식상태 감정상태에 맞는 아스트랄계로 가게 되고,

죽을때도,

죽기 직전의 의식상태 감정상태에 맞는 아스트랄계에 가게 됩니다.

잘 때 꿈 속에서, 자기 수호령들이 도와주거든요?

너무 허튼곳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이끌어주려고 하긴 합니다만,
거의 수호령이 영혼과 서로 급이 크게 차이가 안나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여기 엄나사에서 사람들이 의식성장이 빠른 이유는
급이 높은 수호존재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합니다
또한, 죽었을때 그 영계에서도,
도와주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믿음이 곧 존재상태이기에
그러한 존재상태에 대한 믿음을 거슬러서 누군가 도와준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적에 의식수준을 바꿀수가 있고요
죽어서는 바꾸기가 불가능이고 관성대로 그냥 갑니다.

네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버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일요일 밤에 9시에 만나서 놀시다 이번주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오늘 처음에

이야기 제가 꽤나

복잡하게 계속했지요?

답답하고

일부러 그러니까 ㅋㅋㅋ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거 마구 올리고

그런걸 처리해나가는 에너지워크 과정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시간에 또 봐어요

후기

후기 어렵다고 여기지 마시고

후기 그냥 쓰세요 그냥

후기 좀 마니 써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후기 너무 적어요

공짜 아닙니다 이거

네 그럼 다음시간에 봐어요!!

안녕~~~

방학 축하합니다

전역도 축하해요

행복한 연말 새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에는 광협비트로

호호호호

VIT코인충전하세요

엄나사 굿즈 마니 나옵니다

수행하면서 굿즈 수집 해보세요

곧 초안이 올라올테니 많은관심

ㅋㅋㅋㅋㅋ

판촉물도 오늘 제작 들어갔습니다

궁금하시죠

호호호

네 곧 굿즈팀에서 샘플 받아서

자랑하러 올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인사드릴게요

안녕~~ 일요일 밤 9시에 놀러오세요~

행복합시다

44. 0224 세션엿보기 - 이보시게 페라리엔 고급유를 넣는거라네

에고 이놈시키!! 조진다

이 마음이, 학대하는 마음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내 몸을 대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의 몸을 대해버리면

너무 티가 나기때문에

미움받겠죠?

그래서 남을 대할때는 속으로만

그렇게 대합니다

속으로 온갖 의심 하면서

겉으로는 잘해주지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내가 대할 적에는

그런 가면 필요없죠

더 험하게 대합니다

네 냉혹할 정도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합니다

나를 올바르게 사랑해야 하니까

취업도 해야 하고

일찍 일어나야만 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인해
나를 학대하듯이 대하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한 번 쓰다듬으면서
너 고생많다 고맙다
라고 해주지 못하고
너 지금은 이거 해야돼 저거 해야돼
그게 널 위한거야

여러분이 동물 키우실 적에
그 동물이 뭐..보더콜리라고 칩시다
곡예 가르칠겁니다. 어질리티도 내보낼거고
그래서 그 개한테
어질리티 맨날 훈련시키고
한번도 칭찬은 안해줍니다
보더콜리가..왜...고양이처럼 그루밍을 하나
칭찬은 안하고 밥도 그냥
대충 먹입니다
최고급 사료 먹어야 어질리티 잘할텐데

그러질 않고 막 먹입니다

어울리는 다른 개들은요?

내 개한테 막 와서 물어뜯거나

막 추근대도 그냥 냅둡니다

원래 다 그런거야

(어질리티..뭐 이것저것 통과하는 시험 있슴다 재밌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할적에

페라리 몰고 다니면서 식용유 넣는다고

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몸이 장기밀매 하는 사람이

장기 수확하면은 9억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돈가치 떨어져서 훨 비쌀걸요

자기 몸이 근데 장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심장 뛰고

자동으로 애쓰지 않아도 숨 자동으로 쉬고

소화도 자동으로 시켜

신진대사 이런거

메타볼리즘

아..밥을 먹었으니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뇌로 보내면 뇌가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이거 다 계산 해가지고

오늘은 호르몬 몇 마이크로그램을 어디로 보내야해

끄응 끄응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기계 갖고 있는건데..

자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 기계 스스로 망가뜨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보시게 페라리엔 고급유를 넣는 거라네

라고 하면

제 차 티콘데여?

자네 차 티코 아니네 페라리네 하면

차가 이렇게 안나가는데여?

절절 기는데여?

그건 식용유를 넣어서 그러네

티코니까 식용유 넣죠

아니라네 자네 차 페라리라네

제 차 안나간다니까여? 이거 병신같아여

그건 식용유 넣어서 그런거라니까

병신같아서 돈을 못벌어서 식용유밖에 못 넣어여

네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비유 진짜 잘하네)

ㅋㅋㅋㅋㅋ

스스로 감탄

ㅋㅋㅋㅋㅋㅋ

자..

우리가 몸을

사랑하는 법은

그렇게 막 어려운게 아네요

수고했다고 한번 툭툭

쳐주세요

지금 해보세요

예뻐해보세요

오구오구 예쁘다 해보세요

눈알은 그냥 쓱쓱

몸이 기뻐하는거 느껴지나요

그리고 걸을 때도

멋지게 걸으세요

왕처럼

네

우아하게 걸으세요

숨을 쉴때도 사랑하면서 쉬고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느낌 다릅니다

지금 해보세요

어떤느낌인가요

시간이 멈춘 느낌 있을겁니다

시간이 멈춘 순간에

자주 머무르세요

덜 늙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시간이 없는곳에 머무는 것이니까요.

45. 0224 세션옛보기 - 몸은 신성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림자를 보느냐 투사기를 보느냐〉

몸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어떨까여

남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거랑

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게 뭐 그리 다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남들하고도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면 몸이나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의사가 문제인거니까여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꾸만 방어를 해지할수록 몸이 더 잘 느껴지죠.

몸이 더 잘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몸에 대한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데,

몸을 느낀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라는 환영을 투사해내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거랍니다.

그때는 실은 내 마음이 다른이로 보이는 환영을 투사해내고 있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는 건 그걸 인식한다는 거자나여?

환영을 인식하는 거하고, 그 에너지를 인식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환영은 투사된 그림자를 보고 그림을 보는 것이고,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은 투사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가 마음에 안드는 짓 하는 걸 눈앞에서 볼 적에

그 사람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그림자 보고 내가 쏘고 있는데,

내가 쏘아서 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보고 너 팔들어라 다리들어라 하고
있는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보고 정신나갔다고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

〈몸이야말로 신성으로 가는 통로〉

그래서 또 영성러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이놈이야 이놈이 범인이야!! 이놈 잡아야 해.

근데 이놈 보는 그놈은 또 누군데요?

마트로쉬카 아시죠?

우리 영성러들이 하고 있는게 그 마트로쉬카입니다.

그리고 기적수업은요

맨 끝나리에서 돌이켜 보는거예요.

중용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학대하는 놈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놈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미운놈은 없고, 애처롭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있는것입니다.

그냥 있는거.

좋은거도 나쁜거도 아니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문제는 있긴 있는데 저놈이 미워

저놈만 없으면 난 무한한 평화와 삼매의 경지로

이게 영성러들의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봐라

그런데, 그 시작은 자기몸이어야 한다.

몸이야말로 신성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로 그거 때문에 몸이 <아무것도 아닌>것입니다.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예고는

몸을 확대해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의 뜻은

몸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올바르게 몸을 지각하라는 뜻입니다.

46. 스타워게즈와 구기종목

최근에 용용이 스타워게즈에 대한 비전을 카페에 올렸더군요

그거 누가 여기 찾아서 댓글에 좀 달아주시렵니까? 글에 쓰고 싶은데 못찾겠어요

우리 꿈속에서 구기종목 공통적으로 하지요?

테니스, 럭비, 배구, 피구 등이 있었습니다

구기종목들인데 공통점이 축구처럼 땅에서 구르는 공이 아니고

공중에 떠다니는 공이지요

그 꿈 중에 다다가 테니스 잘치는걸로 소문나있는데

엘보로 한동안 테니스 못치다가

코트에 복귀해서 테니스 라켓 쥐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시기가, 우리 모임이 어떤 일로 좀 힘들었고 정상화 한 직후지요

그 구기종목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지구는 폭격처럼 저질 생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행성의 에너지장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고, 인위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인위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 통신전파에 많이 노출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저질 생각이 떠오를 적에 그걸 빛으로 된 생각으로 쏘아 맞춰서
무효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꿈에서 구기종목으로 나오는지 느낌오시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많은 활동이 있지만

구기종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스타워게즈입니다.

상념 하나를 공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타워게즈 하면 기적수업, 즉 <빛>이 내려준 문구들을 세뇌하듯이
반복하거든요?

그걸 반복하면서 자기자신의 생각도 달라질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폭격받고 있는 저질생각들이 떠오를 적에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빛으로 그 공을 받아치게 되는거지요.

우리 머리속에 비난하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지요? 그 강도가 무엇이든간에.
이 행성 전파나 미디어는 이러한 저질 생각으로 사람을 세뇌해 왔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 떠오르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자기비난이든, 타인 비난이든, 온갖 불평이나 창피한 생각이든.
정말 자기가 부족해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고요, 폭격처럼 생각을 쳐맞고
있는거예요.

우리는 그 세뇌에서 깨어날 때가 되어서 먼저 깨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거랍니다.

그러한 그 세뇌 방식을, 기존대로 저질적인 게 아니고,
반대로 빛과 연관된 문구들로 우리 스스로 세뇌를 하는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독적인 집착하는 습을 역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상위차원에서는 그런식의 방식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회사 코스프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모여서 마냥 행복해하고 즐겁게 놀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 이상한 행성에서 그런 걸 해봤어야 말이죠.

우리는 어떤 임무, 어떤 의무, 대가, 일, 이런것을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행복하라고 하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릅니다.

여기가 빛으로 환한 곳이지만, 빛을 포용하고 빛이 되어가는 그 방식만큼은
일단 함께하고 시간을 좀 쓰게 하기 위해서

회사 코스프레 해서 부서 짜고 할 일 주고 팀장 팀원 만들어놓으면

그 안에서 자기 역할, 할 일 하면서 서서히 자기보다 빛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자신도 마음을 쓰고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랍니다.

여기서 제가 각종 신박한 기획을 엄청 많이 해왔지요

한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획이 아니지요

기획, 아이디어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실행력 추진력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영감이 쏟아지고 있는거고 그 영감의 원천은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며

협조하게 하는 흐름 또한 상위차원에서 물꼬를 트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그들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에 맞추기 위해, 저라는 사람을 써서 사람의 틀을
통해 나오는 거랍니다.

스타워게즈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하면

막상 해보면 댓글 다는 그게 엄청재밌거든요?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밤을 새요

안 해보신 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적수업 문구 뭐 그리 재미있다고 그거 댓글 다는게 그렇게 재미있을 일인가

그런데 그걸 하고 계시면 자기 수호존재라든가 연관된 상위자아가 되게 좋아하는거지요

좋아하면서 계속 빛을 주입해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재밌고 밤 새도 힘이 나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빛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은 존재는 곧 통로가 뚫리게 되고

그 통로를 통해 다른이들에게 네트워크게 되어 주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되면 당연한 말이지만 남보다 상위차원의 지원을 대폭 받게 됩니다.

즉, 남들보다 의식성장을 훨씬 빨리 하게 되고 수월하게 가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디코에서나 종종 이야기 해왔기에 잘 모르실텐데 나중에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존재나 상위자아는 상위차원에서 여러분 캐릭터와 소통을 시도하고 굴리면서

자기 캐릭터가 말 잘 듣나 안듣나가지고 서로 재미있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상위자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자기 캐릭터와 연합해서 하기도 하는거예요

이런 게임이 우리들 꿈에 티비중계, 피시방, 게임화면으로 자주 나오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캐릭터와 제대로 연결되어 영구적으로 소통하게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으며

소통 연결선을 확립한 저같은 사람을 통해 자꾸만 여러분을 케어해 달라고 옆구리를 찌른답니다.

여러분이 뜬금없이 다다에게 연락해보고 싶을때

아니면 제가 뜬금없이 누구에게 연락하게 될 때가 그런 경우고요,

다다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도 여러분은 조금씩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 누구에게든 연락하고싶거나 뭐든 안하던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숨지마시고 참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대로 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잘했다 싶게 됩니다.

몇 번 해보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차에 올라탄 듯 쾌속 질주 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자기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고

그 상위차원에서 여러분 굴리는 그 존재가 실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시합, 경쟁 좋아하고 이런게 그냥 개인 성향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작은 곳에 찾아오신 분들은 진짜로 과격한 게임매니아들이예요

자기자신은 여기서 찌질하다고 느끼며 살지만 자신의 진짜 자아와 연결이
되면

지금의 자기 모습은 그냥 껍질만 남게 되어버린답니다.

그러한 쾌속 질주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 스타워게즈이니

다음 스타워게즈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보시고요

매번 스타워게즈 참여상 실물 상품까지 제작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품 가지고 또 신박한 이벤트를 할것이니

남 일처럼 보지만 마시고 뛰어들어 진짜 재미를 누리 주시기 바랍니다.

엄나사 산악회 3월 말에 출범합니다

꽃 핀 전국 명산 엄나사가 정복한다!!

47. [세션] 0325 세션엿보기 - 내 귀가 모기 귀로구나

몸을 다시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막힌 부분을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봅시다

뚫으려고 할 적에

[그게 대단하니까 어려운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내 본질의 위대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지랑이같은거랍니다

모기 잡을때 생각해보세요

손바닥 뻗어서 착! 박수치죠?

<내가 손뻑치면 모기가 안죽으면 어찌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기 잡나요?

아 너무 당연한거죠

네

여러분의 본질에 비하면 그 아지랑이는 모기 같은 거랍니다

그런데 그 모기는 입이 살았어요

말을 잘해요

[요러요러하니까 이러이러해서 난 대단한 모기야]

<이 모기새끼 강 죽어> 하면 되는데요

<진짱가...?> 이러고 있습니다

<강 죽어> 이럴 적에, 모기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죽이나요?

아니죠

네

그냥 모기는 잡아죽이는거니까 잡아죽일 뿐

근데 모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니, 역시 난 대단해.

너 날 이렇게 미워하는거지? 너도 참 짱하구나]

뭔지 아시겠나요?

그럼 나는 <응 그렇구나 죽어>하면 되는데

<진짤가...?>

또 이릅니다.

오늘 비유도 역대급인거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꿀꿀

모기는 정말 모기다리가 약하죠

근데 내가 그거를대단하다 스고이 이러케 여기고 싶습니다

왜요?

그래야 모기 잡는 내가 대단해지거등

어느새 나도 모기의 입담을 닮아버렸어

웃기죠 ㅋㅋㅋㅋ

자기가 버리는 마음들에 대해 아무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할수록 그걸 시간속에 쌓으면서, 부심을 만들어갑니다

모기 10킬 한 자하고, 모기 100킬 한 자 구분이 생깁니다

모기 1000킬 했으면 뭔가가 있을것이다

모기 100킬 한 자의 손바닥하고...

모기 10000킬 한 자의 손바닥 두께가 다른가여?

혹시.. 털이라도 나있을까요?

손기술이 좀 현란할수는 있어

ㅋㅋㅋㅋㅋㅋ마니 잡았으니까요

근데 막 모기 10000킬 했다고

<난 김동현처럼 어깨가 튼튼해 모기잡는다고 근육이 생겼거든>

이렇게되나요?

모기자너.

모기라구.

모기를 자꾸 모기아닌걸로 만들고싶은 마음을 경계해야합니다

네 또 몸을 느껴봅니다

네 웃다보니 어깨가 좀 가벼워졌죠?

웃으면 세상 심각한게 없죠

네

웃을 때야말로 우리의 통찰력이 사는 때랍니다

심각할때는 뭐가 잘 안보이는데 웃으면서 깨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하하

모기가 혼자 우쭐우쭐 하든말든 내가 왜 동요하지요?

난 모기 아닌데여 모기가 입 좀 털면 그런다고 내가 모기 못잡습니까?

네 입 좀 턴다고 모기가 힘 빼집니까?

다리 철사처럼 굽어져요?

모기의 말이 진실도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속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 귀가 모기 귀구나〉 하시면 됩니다